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 욕구의 역학

- 라이프니츠의 욕구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 -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김 준 영

# 육구의 역학

- 라이프니츠의 육구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 -

지도교수 이 석 재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김 준 영

김준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라이프니츠의 욕구 개념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자들은 라이프니츠의 욕구가 단순 실체 내에서 다음 지각을 갈구함으로써 한 지각 상태에서 다른 지각 상태로의 전환을 야기[cause]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치점을 이루었다. 이것이 이른바 “표준적 해석[standard view]”이다. 즉, 표준적 해석에서는 욕구가 한 지각 상태를 다음 지각 상태로 전환시키는 직접적인 인과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아담스 등이 제시하는 표준적 해석은 직관적이며, 다수의 문헌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석재는 이러한 표준적 해석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가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담스 등은 단자의 욕구를 파생적 힘과 동일시한다. 욕구와 파생적 힘이 모두 다음 지각 상태를 야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문제가 없는 전제이다. 그러나 표준적 해석자들은 욕구와 단자의 원초적 힘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담스 같은 경우는 원초적 힘을 파생적 힘과 거의 동일시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따를 경우 문제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단자의 원초적 힘은 그 단자의 완전히 짜여진 사태 계열들의 법칙 혹은 그것을 추동하는 힘으로 간주되며, 라이프니츠 철학의 결정론적 성격 때문에 이러한 계열에는 결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표준적 해석이 위의 전제들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단자의 욕구는 그것이 갈구하는 것을 반드시 일으킨다는 함축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반직관적인 귀결일 뿐만 아니라, 라이프니츠 스스로가 명시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변화 혹은 한 지각으로부터 다른 지각으로의 이행을 야기시키는 내부 원리의 작용은 욕구라고 불릴 수 있다. 여기서 욕구[the appetite]는 그것이 얻고자 하는 전체 지각[whole perception]에 항상 완전하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그것의 부분[something of it]은 성취되며, 그

리하여 새로운 지각[new perception]에 이르게 된다.(AG 215/논고 258;  
국역 다소 수정)

위 인용문은 (1) 욕구가 갈구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 그리고 (2) 욕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에 도달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준적 해석은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석재는 표준적 해석이 (3) 베일의 개 문제에 대해서도 직관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한다.

이석재는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 이른바 “이중 가닥 해석”을 제시한다. 그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단자 안에는 두 가지 구분되는 종류의 욕구인 원초적 힘으로서의 욕구와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있다. 원초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계열의 법칙에 따르며 이 법칙의 조화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사태를 갈구한다. 다른 하나인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그 개체에게 더 나은 상태를 갈구하는 것으로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보다 나은 상태의 다음 사태를 욕구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1)~(3)은 거의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갈구하는 바는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원초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반드시 다음 사태를 야기한다. 따라서 (1)~(3)은 원초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인과에 성공하면서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인과에 실패하거나 혹은 충분히 성공하지는 않는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이중 가닥 해석은 설명적인 면에서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의 인과적 역할이 지나치게 작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석재는 이에 대해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간접적인 인과력을 갖는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나는 이 욕구가 과연 간접적으로나마 인과력을 갖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에 계열의 법칙에 따라  $t_2$  시점에서 70의 좋을 지닌 사태가 발생했는데,  $t_1$  시점에서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90 이상의 좋을 욕구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단자의 사태 계열은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t_1$ 에서 이 욕구가 욕구한 것은 불가

능한 것을 욕구한 것이 된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욕구하는 것은 인과력을 가질 수 없다. 익스박스를 갈구하는 욕구는 내가 익스박스를 갖게 되는 사태에 대해 인과력을 가질 수도 있을 테지만, 둥근 삼각형을 갈구하는 욕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둥근 삼각형을 갖게 되는 사태를 야기시킬 수 없다. 따라서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간접적인 인과력이라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이 욕구는 존재론적으로 잉여적이다.

이에 대해 <더 좋은 상태를 갈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다>라는 전제를 추가함으로써 나의 반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갈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 좋다는 것은 라이프니츠가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전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나는 다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그 욕구를 가진 개체에게 더 좋은 사태를 갈구한다. 그러나 개별 개체에게 좋은 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개별 개체들의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갈구하는 사태가 꼭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만약 그렇다면, 위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나의 반론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 나의 반론을 저지하기 위해 정말로 받아들여야 하는 전제는 <그 개체에게 더 좋은 상태를 갈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다>인데, 이는 위 전제보다 훨씬 정당화하기 힘든 전제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나의 반론은 이중 가닥 해석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이를 완전히 반박하기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나는 논문에서 반론을 좀 더 강화시키기보다는 나만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이 해석을 옹호하는 방식을 택한다. 내가 제시하는 새로운 해석은 단자 내부의 복수의 욕구들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다음 사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나의 해석을 “**욕구의 역학 모델**”이라고 부른다. 가령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나에게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와 살을 빼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나는 나의 욕구들을 모두 고려해서 카스 라이트를 마셨다. 이 경우, 각각의 욕구들은 자신이 야기

하고자 한 것을 ‘완전히’ 야기시키지는 못했다. 만약 내가 후자의 욕구가 없었더라면 나는 좀 더 맛있는 맥주를 마셨을 것이고, 만약 전자의 욕구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예 맥주를 마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두 욕구는 상호 간의 인과적 관계를 통해 다음 지각, 즉 카스 라이트를 마시는 것을 야기시킨 것이다. 욕구의 역학은 이러한 방식으로 (1)~(3)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석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헌적 증거들도 다수 존재한다.

욕구들은 지구의 중심을 향한 가장 짧은, 그러나 항상 최선인 것은 아닌 길을 따르는 돌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그것은 그것이 바위들과 부딪혀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다. 반면 만약 그것이 자신이 향하는 방향을 바꿀 채치와 수단을 가졌다면 그것은 그것의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때때로 현재의 기쁨 [pleasure]을 향해 곧바로 돌진하다가 비참함의 나락에 빠지곤 한다. (NE 189)

다양한 지각들과 경향성들(inclinations)은 하나의 완전한 의지(volition)를 생산하기 위해 결합한다. 이것은 그들 사이의 충돌의 결과이다. 거기에는 어떤 감지될 수 없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를 추동하는 불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NE 192)

이처럼 욕구의 역학은 직관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지지할 문헌적 증거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 해석을 좀 더 옹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물음에 더 답해야한다. 첫째, 단자 내부의 욕구가 이 해석이 상정하는 것처럼 복수로 존재하는가? 그렇다. 라이프니츠는 단자 내부의 특정 한 상태에서라도 단자의 욕구는 복수일 뿐만 아니라 무한하다고 말한다.(AG 217/논고 268) 뿐만 아니라 칼린, 켈스터드, 페마이스터 등은 단자의 지각이 미세지각, 감각지각, 통각 등으로 나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자의 욕구 역시 미세욕구, 감각욕구, 의지적 욕구 등으로 나뉠 수 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욕구의 역학은 설명하고자하는 사태를 일으키게 한 욕구들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이 해석에서는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의 관계는 어떻게 상정되는가? 살펴본 것처럼, 욕구에 관한 논의에서 이 관계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나의 해석도 이에 대한 논의를 피해갈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는 이 관계를 존재론적 의존 관계로 이해한다. 즉, 파생적 힘(들)은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이를 의존 관계로 파악할만한 문헌적 증거는 상당히 많으며, 또한 맥더너 등 많은 해석자들이 이미 이를 널리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나는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에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석자들과 의견을 달리한다. 기존의 해석자들은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에 순간적(momentary) 부분으로써 의존한다고 해석한다. 즉, 원초적 힘인 사태 계열들 중 특정 한 순간적 사태가 파생적 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앞에서 살펴본 표준적 해석에 대한 이석재의 반론을 피하지 못하며, 욕구가 어떠한 한 시점에서든 무한하다는 것과는 정합적이지 않으며, 직관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입장을 거부하고, 한 순간적 부분 내에서도 복수의 무한한 파생적 힘들이 존재하며, 이 힘들이 모두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하나의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복수의 힘들, 즉 복수의 욕구들이 충돌함으로써 다음 사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 내 해석의 골자이다.

이에 대해 인과항들이 존재론적으로 의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욕구의 역학에서 상정하는 욕구들의 충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충돌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라이프니츠가 <어떤 것의 실재성의 정도는 그것의 존재론적 근본성의 정도와 비례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록 파생적 힘들이 존재론적으로 의존적이더라도 그에 걸맞는 실재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간의 충돌도 어떠한 의미에서는 충분히 실재성을 갖는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 해석은 정말로 (3), 즉 베일의 개 문제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가? t1에서 강아지가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t2에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t1에서 이 강아지가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 이외에 다른 욕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고 욕구의 역학에 따라 이 욕구들이 충돌한 총합이 다음 사태를 야기시킨 것이라면, 고기 욕구가 아닌 다른 욕구는 고기 욕구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그 개체에게 나쁜 것을 욕구했기에 두들겨 맞는 사태가 야기된 것이라고 말해야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욕구의 역학 모델은 베일의 개 문제를 오히려 더 반직관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 보인다.

나는 이러한 반직관성은 모든 것이 단자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라이프니츠의 자발성 논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프니츠는 어떤 것이 자발적[spontaneous]인 것과 수의적[voluntary]인 것을 구분함으로써 이에 답하고자한 바 있다.(WF 81)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답변을 욕구의 역학 모델에 따라 재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베일의 개 사례에서 고기 욕구와 또 다른 욕구 모두 그 개의 지배단자에게는 자발적인 욕구이다. 그리고 이 복수의 욕구들이 충돌하여 개가 두들겨 맞는 사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때 인과항 중 하나인 고기 욕구는 자발적일 뿐만 아니라 수의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인과항은 오직 자발적일 뿐 수의적이지는 않다. 즉, 그 다른 욕구는 개의 지배단자의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개가 특별히 그 욕구를 원하거나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은 여전히 반직관적인 면이 있으며, “욕구”라는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단자의 욕구”는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라이프니츠는 이를 통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욕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라이프니츠가 생각하는 단자의 욕구 개념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욕구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라이프니츠가 베일의 문제제기

에 대해 자발성과 수의성을 나눔으로써 대답하려고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욕구의 역학을 통한 설명은 반직관적인 면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라이프니츠의 의도를 잘 포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라이프니츠, 욕구, 인과, 존재론적 의존, 단자론  
학 번 : 2013-20046

# 목 차

서 론 .....	1
-----------	---

## 제 1 부. 기존의 욕구 해석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I. 예비적 논의 : 라이프니츠의 단자론 .....	4
1. 기회원인론, 단순보존론, 공동작용론 .....	4
2. 단자와 세계 .....	6
3. 현상으로서의 물체와 집적체로서의 물체 .....	11
II. 표준적 해석과 이중 가닥 해석 .....	14
1. 욕구에 대한 표준적 해석 .....	14
2. 이석재의 문제제기 .....	16
3. 이석재의 해석 : 이중 가닥 해석 .....	21
III. 이중 가닥 해석에 대한 반론과 새로운 대안적 해석 .....	27
1. 이중 가닥 해석에 대한 반론들 .....	27
1) 최선의 세계 선택 논제와 충돌 반론 .....	27
2) 존재론적 잉여 반론 .....	29
2. 가능한 답변들 .....	31
1) 불가능성의 유비 실패 답변 .....	32
2) 라이프니츠적 좋음 답변 .....	36
3. 대안적 해석 : 욕구의 역학 모델 .....	39

## 제 2 부. 라이프니츠의 욕구의 역학을 향하여

IV. 욕구의 무한성과 그 구조 .....	47
1. 욕구의 무한함 .....	47
2. 지각의 종류와 구조 .....	51
3. 의식적, 무의식적, 그리고 외부 욕구들 .....	58
V. 단자 내 세계 구성 :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의 관계 .....	66
1. 존재론적 의존 .....	66
2. 파생적 힘은 순간적 부분인가? .....	71
3. 파생적 힘을 통한 단자 내부의 세계 구성 .....	78
VI. 욕구의 역학과 가능한 반론들 .....	85
1. 논제 정립 .....	85
2. 욕구의 역학을 통한 심리현상 설명 .....	89
1) 의식적 욕구들 간의 상호작용 : 의사결정 .....	90
2) 무의식적 욕구들의 상호작용 : 무의식적 현상들 .....	91
3)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 욕구들의 상호작용 : 심리학적 설명, 그리고 충동적 행위 .....	92
4) 외부 욕구들과의 상호작용 : 베일의 개 사례 .....	95
3. 가능한 반론과 그에 대한 답변 .....	99
1) 목적인 결여 반론 .....	99
2) 지배단자와의 친밀성 반론 .....	102
3) 과다결정[over-determination] 반론 .....	104
4) 또 다른 대안적 해석 반론 .....	106

결 론 .....	112
참 고 문 헌 .....	114
Abstract .....	118

## 일러두기

본 논문에서는 라이프니츠의, 그리고 오직 라이프니츠의 저작에 대해서만 약어로 표시하고 내주로 처리하기로 한다.

- 논고** 『형이상학 논고』, 윤선구 역, 아카넷, 2010.
- 변신론** 『변신론』, 이근세 역, 아카넷, 2014.
- AG** Roger Ariew and Daniel Garber, *Philosophical Essays*, Indianapolis: Hackett, 1989.
- DM** *Discourse on Metaphysics* (Translation from AG)
- Dut** *Opera Omnia*, ed. L. Dutens (Geneva: Fratres De Tournes, 1768)
- G** Gerhardt, C. I. *Die philosophischen Schriften von Gottfried Wilhelm Leibniz*. In 7 volumes. Weidman, Berlin, 1875–1890.
- L** Loemker, L.E. (ed. and trans.) *Gottfried Wilhelm Leibniz: Philosophical Papers and Letters*. D. Reidel, Dordrecht, 1969.
- LA** The correspondence between Leibniz and Antoine Arnauld, in *The Leibniz–Arnauld Correspondence*, ed. and trans. by H. T. Mason,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67.
- LDV** The Leibniz–De Volder Correspondence
- Mon** *Monadology* (Translation from AG)
- NE** *New Essays on Human understanding (translation from Remnant and Bennett)*, Cambridge, 1996.
- PNG** *Principles of Nature and Grace* (Translation from AG)
- WF** Woolhouse and Francks, *Leibniz’s ‘New System’ and Associated Contemporary Texts*, Oxford: Clarendon Press, 1997.
- VE** Vorausedition zur Reihe VI (Philosophische Schriften) in der Ausgabe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der DDR. Ed. Leibniz-Forschungsstelle der Universität Münster, 1982

## 서론

본 논문은 라이프니츠의 욕구[appetite] 개념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적 해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이프니츠가 단자[monad] 안에는 오직 지각들[perceptions]과 욕구들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중 지각이 무엇이며 또한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라이프니츠의 저작들 안에 어느 정도 분명히 나타나 있으며, 덕분에 라이프니츠 학자들은 지각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욕구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담스[R. Adams]의 말처럼 라이프니츠가 “욕구에 대해서는 지각에 대해서만큼 많이 말하지 않았기”<sup>1)</sup>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 학자들은 매우 한정된 텍스트 안에서 라이프니츠의 욕구를 파악해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라이프니츠의 욕구가 단순 실체 내에서 다음 지각을 갈구함으로써 한 지각 상태에서 다른 지각 상태로의 전환을 야기[cause]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치를 이루었다. 이것이 이른바 “표준적 해석[standard view]”이다. 그러나 이석재(2014)는 이러한 표준적 해석은 라이프니츠의 욕구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때문에 라이프니츠의 체계 내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자신만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의 해석은 라이프니츠의 욕구가 일반적인 표준적 해석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히 처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줌으로써, 라이프니츠의 욕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해석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의 해석에 따르

---

1) Adams (1994, 318)

면 각각의 단자들은 두 가지의 구분되는 욕구들을 가지고 있게 된다. 하나는 다음 사태를 반드시 일으키는 원초적 힘[primitive force]으로서의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개체의 종음을 갈구하는 파생적 힘[derivative force]으로서의 욕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 있다. 다음 사태를 일으키는 힘으로서의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욕구가 왜 필요한가? 이에 대해 이석재는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그 갈구하고 요청하는 고유한 인과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인 인과력을 갖게 된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나는 그가 말하는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라는 것이 과연 간접적으로라도 인과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욕구에 대한 나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내 해석의 요지는 (복수의) 욕구들이 각각 그 스스로가 목적하는 바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충돌함으로써 다음 사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내가 한 특정 시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와 체중을 조절하고 싶은 욕구를, 그리고 오직 이 두 욕구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 두 욕구를 모두 고려해서 카스 라이트를 마시는 사태를 일으킬 것이다. 나는 이러한 나의 해석을 “**욕구의 역학[Dynamics of Appetites]**”이라고 부를 것이다. 나의 대안적 해석은 직관적으로 그럴듯한 행위 이론 모델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문헌적 증거도 많다. 그러나 나는 나의 해석을 좀 더 정교하게 고안하기 위해서, 욕구의 무한성 문제, 그리고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의 관계 문제에 각각 답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형태의 욕구의 역학 해석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1부에서는 욕구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 장에서는 전체 논문의 논의를 끌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들을 소개한다. 여기서 나는 라이프니츠 철학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설명할 것이지만, 이러한 설명은 라이프니츠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나는 오직 나의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만을 서술했으며, 독자



들도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I 장을 읽어주기 바란다. 이어지는 II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욕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II 장에서는 욕구에 대한 표준적 해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이석재의 반론과 그의 대안적 해석을 소개한다. 그리고 III 장에서는 이러한 그의 대안적 해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반론에 대한 가능한 재반박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다시 답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대안적 해석인 욕구의 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개진할 것이다.

그런데 III 장에서 제시한 나의 해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욕구의 역학이 상정하는 것처럼 단자의 욕구가 무한히 많은가? 둘째, 욕구의 역학에서는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셋째, 욕구의 역학을 통해 설명된 베일[P. Bayle]의 개 문제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반직관적이지 않은가? 논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2부에서는 이 각각의 물음에 답함으로써 나의 해석을 옹호할 것이다. 우선 IV 장에서는 욕구의 무한성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많은 해석자들에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라이프니츠가 한 시점에서 단자의 욕구가 무한히 많다고 상정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분명하다. 나는 기존 해석자들의 논의를 통해 이를 보일 것이다. V 장에서는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의 관계 문제를 다룰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이 두 힘의 관계를 존재론적 의존[ontological dependence] 관계로 해석한다. 파생적 힘은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많은 해석자들에 의해 주목을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기존의 해석자들은 파생적 힘이 오직 “순간적 부분”으로만 원초적 힘에 의존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해석을 반대하고 나의 전체 해석과 정합적인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VI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모두 반영한 욕구의 역학의 최종적 형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심리 현상들을 설명해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해석에 대한 가능한 반론들을 살펴보고 이에 답함으로써 나의 해석을 최종적으로 옹호할 것이다.

# 제 1 부. 기존의 욕구 해석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I. 예비적 논의 : 라이프니츠의 단자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들어갈 라이프니츠의 논제들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우선 이 논문은 일반적으로 라이프니츠의 ‘성숙한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시기, 즉 그가 「형이상학 논고」(*Discourse on Metaphysics*, 이하 DM)를 쓴 1686년 이후의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다룬다. 물론 이 시기 내에서도 좀 더 시기를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글의 논의에서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 세분화된 구분은 따르지 않도록 한다. 사실 성숙한 형이상학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의 철학 체계는 잘 정돈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며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내가 여기서 소개할 내용들 역시 해석의 여지가 많으며, 실제로 해석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때문에 이 I 장을 라이프니츠 철학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한 작업은 나의 능력을 넘어선다. 나는 단지 이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할 논제들을 아주 기본적이고 다소간 비형식적인 형태로 언급할 것이다. 이 논제들은 라이프니츠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sup>2)</sup> 다만 나의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아둔 것일 뿐이다. 독자들은 이를 유념하고, 단지 필자가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파악하는 차원에서만 이 I 장을 읽어주기 바란다.

### 1. 기회원인론, 단순보존론, 공동작용론

---

2) 물론 몇몇 논제들은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굳이 부정할 이유는 없다.

우선 17세기 무렵 근대 철학자들이 신과 피조물의 인과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유신론적 전통에서 신이 자연의 인과 작용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피조물들은 자연의 인과 작용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피조물들도 인과력을 갖는가 혹은 갖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sup>3)</sup>

첫 번째 입장은 기회원인론[*Occasionalism*]이다. 기회원인론은 자연의 인과 작용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직 신뿐이라는 입장이다. 즉, 일상적인 자연의 개체들은 인과 작용에 어떠한 진정한 인과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인다고 해보자. 이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이 물을 끓인다고 생각한다. 즉, 불이 물이 끓는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회원인론에 따르면 불은 물이 끓는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혹은 진정한 원인이 될 수 없다. 오직 신만이 모든 사태의 진정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불은 단지 원인처럼 보이는 기회 원인[*occasional cause*]에 불과하다. 정리하자면, 어떠한 피조물도 인과력을 갖지 못하는 반면, 신은 모든 사태에 대한 진정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은 단순보존론[*Mere Conservationism*]이다. 단순보존론에 따르면, 자연적 세계에 신이 기여하는 바는 오직 창조와 보존 행위뿐이다. 다른 부분들은 모두 피조물 자신들이 가진 인과력을 통해 결과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가령, 냄비의 물이 끓는 예에서 물이 끓는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불이다. 불이 물을 끓이는 것이다. 이때 신의 역할은 불, 냄비, 물 등의 피조물들이 다음 사태에도 보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직 간접적인 혹은 원격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할 뿐이다. 정리하자면, 신은 피조물들을 창조하고 보존시킴으로써 피조물들이 직접적인 인과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피조물들은 이러한 인과력을 통해 관련 사태들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

3) 나의 설명은 Freddoso(1994, 132-135)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세 번째 입장은 공동작용론[*Concurrentism*]이다. 공동작용론은 기회 원인론과 단순보존론의 중간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신은 피조물을 창조하고 보존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관련된 피조물들도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위의 예를 통해 말하자면, 물이 끓는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불과 신이다. 즉, 자연 세계에서 발생하는 (기적이 아닌)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신 그리고 관련된 피조물이 모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중도적 입장이 그러하듯이, 공동작용론도 얼핏 보기에 매우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입장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시 대부분의 중도적 입장이 그러하듯이, 공동작용론 역시 이를 정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라이프니츠는 공동작용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때문에 라이프니츠 체계 내에서 신의 인과와 피조물의 인과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sup>4)</sup>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며 본 논문의 주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지점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라이프니츠가 공동작용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부터 이끌어내려는 것은, 이를 통해 라이프니츠가 피조물들이 직접적인 인과력, 즉 힘을 지닌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뿐이다. 즉, 라이프니츠는 피조물들이 인과력을 갖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 체계에서 이러한 인과력을 갖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즉 가장 근본적인 실체가 바로 모나드, 즉 단자이다.

## 2. 단자와 세계

앞서 살펴봤듯이, 라이프니츠는 공동작용론을 받아들이고, 따라서 피

---

4) 이러한 논쟁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Lee(2004), Rutherford(2005), McDonough(2007)등을 참고할 수 있다.

조물의 인과 실재론 역시 받아들인다. 즉, 피조물은 고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을 갖는 피조물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는 바로 단자이다.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에서 모든 피조물은 단순 실체인 단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오직 단자만이 참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가 처음부터 이러한 근본적인 단순 실체를 ‘단자’라고 불렀던 것은 아니다. 그는 DM에서는 ‘개별적 실체[individual substance]’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근본적인 실체 개념을 ‘단자’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과연 ‘단자’와 ‘개별적 실체’로 라이프니츠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단자에 관한 논의는 개별적 실체에 대한 논의로부터 발전된 것이라는, 즉 연속성을 갖는 개념이라는 다소 온건한 입장을 받아들일 것이다.<sup>5)</sup>

이러한 단자는 말 그대로 단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그 자체로 하나이기 때문에 분할되지 않는다.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무한히 분할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라이프니츠의 단자는 그 정의상 분할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단자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것, 영혼과 같은 어떤 것으로 상정한다.<sup>6)</sup> 단자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지각[perception]과 욕구[appetite]이다. “단순 실체 안에는 지각들과 욕구들만이 존재한다.”(LDV June 30, 1704, AG 181) ‘지각’이라고 불리는 개념들이 보통 그러하듯, 라이프니츠의 지각도 표상적 역

5) 그렇다면 라이프니츠는 왜 ‘단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는가? 박삼열(2002, 111-2)과 Hacking(1976, 138-9)은 라이프니츠의 주된 관심사와 학문적 방법이 논리학에서 역학으로 전환되었던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처음에는 술어-함축-진리론[conceptual containment theory of truth]이나 완전개체개념[complete individual concept]과 개념들을 통해 실체를 분석하려고 했다가, 곧 ‘힘’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단자에 관한 논의로 넘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의 논거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이들의 해석이 단자의 욕구를 역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나의 시도와 매우 잘 부합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6) 이 때 ‘영혼과 같은 것’이라는 용어로부터 단자를 영혼이라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 단자의 정신적 상태는 그 단자의 지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 IV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것이다.

할을 한다. 말하자면, 단자의 지각은 외부 세계를 표상, 혹은 표현한다. 그러나 단자의 지각은 일상적인 지각과 중요한 점에서 다르다. 일상적인 지각은 보통 지각하는 주체와 지각 대상 간의 관계를 통해 이해되는 반면, 단자의 지각은 단자 안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다. 외부 대상은 단자의 지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단자의 지각은 단자 내부의 계열의 법칙[*law of the series*]를 통해 자발적으로 발생한다. “이것이 모나드는 창이 없다는 말의 의미이다.”<sup>7)</sup>

여기서 라이프니츠 철학의 두 중요한 특징이 잘 드러난다. 나는 위에서 라이프니츠가 피조물에게 인과력이 있다는 인과 실재론을 주장했다고 말했고, 이러한 인과력을 단자들이 갖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단자들 간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주고받을 수 없고, 오직 각각의 단자 내부의 자발적인 지각의 계열들의 발생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라이프니츠의 인과 실재론은 오직 단자 내부의 인과 작용만 있는 단자 내적 실재론이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지각들의 계열을 추동하는 힘, 즉 하나의 지각에서 다른 지각으로 이행하게 해주는 힘이 바로 욕구이다. 욕구에 대해서는 II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초본질주의[*super-essentialism*]와 결정론[*determinism*]이다. 간단히 말해서, 초본질주의는 모든 개체는 그 개체가 갖는 모든 속성을 본질적으로 갖는다는 입장이다. 즉, 만약 한 개체가 그가 가진 어떠한 한 속성이라도 결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 개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 당연히 단자에도 이러한 초본질주의가 적용된다. 그리고 단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연속되는 지각들의 나열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우리는 단자의 연속된 지각의 계열은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적 성격을 강하게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라이프니츠가 받아들이는 충족이유율[*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 이하 PSR]<sup>8)</sup>에 따르면, 모든 결과는 결국 그 결과를 일으킨 이

7) 박제철(2013, 51)

8) PSR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PSR에 대한 특정한 이해가 본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거칠고 단순한 형태의 PSR을 전제한다 : 모든 사태에는 충분한 이유 혹은 원인이 존재한다.

유를 통해 완전히 설명되며, 단자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의 인과만 가능하기 때문에, 단자의 어떠한 한 사태에 대해서도 그 사태를 일으킨 원인은 오직 그 전 사태이고, 결국 한 단자의 어떠한 지각도 과거의 지각과 미래의 지각을 모두 포함하고 있게 된다. 즉, 어떠한 하나의 지각도 단자의 계열의 법칙을 포함하고 있다.

살펴본 것처럼 단자는 외부 물체와의 인과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어있는 계열의 법칙에 따라 한 지각에서 다음 지각으로 자발적으로 이행되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자의 지각이 외부 세계를 표상 혹은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자는 여전히 외부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가령 한 지역과 그 지역에 대한 지도와는 어떠한 인과 관계도 맺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지도는 그 지역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각각의 단자는 그 단자가 속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계 전체를 표현한다. 라이프니츠가 각각의 단자가 세계의 모든 모습을 표현한다는 *보편 반영 논제*[*universal expression thesis*]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한한 피조물은 세계의 모든 모습이 반영되어 있더라도, 제한된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모습을 분명히 파악할 수 없다. 오직 혼동된 상태로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신은 이를 분명한 상태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은 한 단자의 한 지각 상태만 보더라도 그 단자가 속한 세계의 모든 모습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그런데 단자들이 서로 인과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단자가 어떻게 외부세계를 제대로 표현하는가? 라이프니츠는 이를 *예정조화*[*pre-established harmony*]를 통해 설명한다. 단자들의 지각은 각각의 계열을 따라 이행될 뿐이지만, 선한 신이 이 각각의 단자들의 지각의 계열들이 모두 조화롭도록 예정지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정말로 피조물들 간에 인과 작용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일 뿐이다. 만약 그렇다면, 단자들이 서로서로 어긋나는, 즉 단자들이 서로 조화롭지 않은 것도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다. 신의 지성은 가능한 모든 세계들

의 무한한 조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중 그다지 좋지 않은 *가능세계* [possible world]<sup>9)</sup>에서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충분히 좋은 가능세계들에서는 항상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한 가능세계에 속한 단자들이 모두 엄청나게 좋지만 서로 간의 조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즉 충분히 좋으면서 조화는 깨진 가능세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라이프니츠는 세계의 좋음[*perfection*]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거의 결정적인 요소는 *조화*와 *다양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다른 요소들이 아무리 좋더라도 조화가 깨진 가능세계는 충분히 좋은 가능세계일 수 없다. 조금 거칠게 이야기 하자면, ‘충분히 좋은 가능세계’의 외연에는 다양성과 조화가 성립되는 가능세계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신은 이러한 충분히 좋은 가능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를 선택하여 현실화한다. 이것이 이른바 *최선의 세계 선택* 논제이다.

라이프니츠의 최선의 세계 선택 논제는 단지 가장 좋은 세계를 선택한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한 그러한 선택을 받은 가능세계는 우리가 속한 현실세계라는 것까지를 포함한 주장이다.<sup>10)</sup>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세계에 살고 있고, 현실세

9) 현대 분석철학에서 필수불가결한 개념인 ‘가능세계’를 라이프니츠가 가장 먼저 사용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라이프니츠가 현대적 이론인 가능세계 의미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라이프니츠가 양상 개념을 가능세계를 통해 분석하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본 논문에서 다음의 쌍조건문을 받아들인다.

(SPW)  $p$ 가 가능하다 iff  $p$ 가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있다.

말했듯이, 나는 이를 분석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쌍조건이 성립한다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 $p$ 가 가능하다’라는 문장의 의미는 ‘ $p$ 가 어떤 세계  $w$ 에서 참이다’로 분석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라이프니츠의 철학에 표준적인 가능세계 의미론이나 혹은 David Lewis의 상대역이론[counterpart theory]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자들이 모두 최소한 (SPW)와 같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Adams(1994), Mondadori(1975), Mates(1986) 등 대부분의 영미권 라이프니츠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10) 라이프니츠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정말로 현실세계



계는 신의 선택을 받은 세계이고, 따라서 가능한 모든 가능세계들 중 현실세계가 가장 좋은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세계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세계, 즉 최선의 세계라는 것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것이 라이프니츠가 『변신론』을 통해 보이하고자 했던 바의 요지이다.

### 3. 현상으로서의 물체와 집적체로서의 물체

마지막으로 물체[body]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말했듯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단자들뿐이다. 따라서 어떠한 의미에서 물체라는 것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이프니츠에게 물체란 오직 근본 실체인 단자들에 의존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체는 어떠한 방식으로 단자들에 의존해 있는가? 이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대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체라는 것이 단지 현상[phenomena]일뿐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체가 단자들의 집적체[aggregates]라는 것이다.

일단 물체가 현상이라는 주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주지하다시피 단자는 창이 없고, 오직 자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각 상태들의 계열들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 역시 단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세계란 결국 우리의 단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불과하다. 즉, 물체, 그리고 이러한 물체들로 이루어진 시공간적 세계는 우리의 단자 내부에 주어진 현상일 뿐이다. 그러나 물체, 시공간, 세계가 결국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잘 고안된 현상이다. 단자 내부의 지각은 외부세계를 보편 반영하여 외부세계를 표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자 내부의 표상과 외부세계는 예정조화를 통해서 조화롭

---

에 속해 있다고 한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냐는 의문은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특별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대에서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꽤 흥미롭게 다루어진 바 있는데, 이중 가장 흥미로운 논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는 Adams(1979), Lewis(1986, 97-101) 등을 들 수 있다.

게 어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자는 외부세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가?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나는 여기서 Anapolitanos(1999)의 표상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인다. 일단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세계에는 많은 단자들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단자들은 다 그 각각의 단자 내에 세계의 모든 모습을 반영하여 표상하고 있다. 물론 당연히 각각의 단자는 다 그 각각의 관점에서, 그리고 각각의 뚜렷함[distinctness]과 혼동된[confusedness] 정도에 따라 세계를 표상한다. 즉, 가령 세계에 오직 두 개의 단자 A와 B만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A는 A의 관점에서 자기 안에 A와 B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B는 B의 관점에서 자기 안에 A와 B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입장을 좀 더 형식적으로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R) 임의의 세계  $w$ 에 대해서, 만약  $w$ 가 조화로운 세계라면,  $w$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단자  $x$ 에 대해서도,  $x$ 는  $w$  안에 존재하는 모든 단자(의 표상)를 자신의 지각 안에 가지고 있다.<sup>11)</sup>

말 그대로 “단순한 것 안에 다수의 표상”(G, III, 574-575)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세계를 표상한다는 것은 단자가 2개인 세계에서조차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 만약 이 세계가 조화로운 세계라면 A는 단지 A와 B를 표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B가 A를 표상하는 것 또한 표상해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도 A가 B를 표상하는 것을 또한 표상할 것이므로, A는 또한 A가 B를 표상하는 것을 B가 표상하는 것 또한 표상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당연히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물론 피조물인 단자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오직 혼동된 형태로 밖에 표상할 수밖에 없다.<sup>12)</sup>

---

11) (R)은 조화로운 세계에 거주하는 임의의 단자  $x$ 에 대해서도  $x$ 의 지각 안에 자기 자신, 즉  $x$ 의 표상도 갖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러한 함축은 나의 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2부에서 좀 더 다루게 될 것이다.

1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Anapolitanos(1999, 20-25) 참조.

즉, 단자 내부의 세계는 그 단자 고유의 관점에서 외부세계 전체를 표상함으로써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세계 안에 있는 무한히 많은 단자들을 모두 지각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야말로 단자 그 자체를 지각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참이 아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일상적인 물체들에 불과한데,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이러한 물체에 대한 지각은 사실은 단자들의 특정한 집적체들을 혼동되게 지각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외부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단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모여 있는 것이고, 단자는 예정 조화를 통해서 이러한 외부세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인데, 피조물의 한계에 의한 혼동된 지각 능력이 이러한 집적체들을 물체로 간주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체는 실체들의 집적체이다.”(LA 135)<sup>13)</sup>

단자 내부에 외부세계와 그 안에 있는 물체들에 대한 표상을 갖는다는 논제는 본 논문의 2부에 해당하는 IV,V,VI장의 논의와 매우 밀접히 연관된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물체나 현상에 관한 논의는 독립적으로 다룰만한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짧은 설명에 만족하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 짧은 설명이 2부에서의 나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라이프니츠의 욕구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

13) 물론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물체는 사실 단자들의 집적체가 아니라, 단자들의 집적체의 표상, 혹은 단자들의 표상들의 집적체가 된다. 따라서 물체가 “단자들의 집적체”라는 구절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은 아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해석해서 물체가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단자들의 집적체, 즉 어떠한 의미에서 단자의 지각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별로 달라지는 바는 없다. 이 경우에도 단자 내부에 주어지는 물체들은 단자들의 집적체의 표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단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 II. 표준적 해석과 이중 가닥 해석

II장에서는 욕구에 대한 표준적 해석을 살펴보고, 이 해석에 대해 이석재가 어떠한 문제들을 제기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표준적 해석은 단자의 욕구를 다음 사태를 야기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해석은 매우 자연스럽고 또한 직관적이다. 따라서 많은 해석자들이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석재(2014)는 이렇게 비교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에 대해 상당히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는 표준적 해석에 대한 이석재의 반론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문제제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단지 반론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한 대안적 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해석 역시 살펴볼 것이다. 나는 표준적 해석에 대한 이석재의 반론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지만, 그의 대안적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III장에서는 II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석재의 해석에 대한 나의 반론과 나의 또 다른 대안적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 1. 욕구에 대한 표준적 해석

앞서 간단히 말했듯이, 표준적 해석에서는 욕구를 단자 내에서 다음 지각을 갈구함으로써 한 지각 상태에서 다른 지각 상태로의 전환을 야기[cause]하는 것으로 본다. 즉, 욕구가 단자 내에서 지각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인과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해석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도 상식에 매우 부합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석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문헌적 증거들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 ‘자연과 은총의 원칙들’(Principles of Nature and Grace)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살펴보자.

한 단자는 단지, 그의 지각들(즉 단순한 것 안에 있는 복합적인 것 또는 그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의 표현들)과 변화의 원리인 그의 욕구들(즉 한 지각으로부터 다른 지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들) 외에 다른 것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그의 내적 특성들과 활동들을 통해서만 다른 단자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 (AG 207; 논고 227)

이 구절에서 라이프니츠는 욕구를 “변화의 원칙”, “한 지각에서 다른 지각으로 가는 경향성”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표준적 해석과 매우 잘 부합한다.

이석재가 잘 지적했듯이, ‘파생적 힘’[derivative forces]에 대한 데 볼더[De Volder]와의 서신 교환 역시 욕구에 대한 표준적 해석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1704년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파생적 힘은 현재 상태 그 자체로서, 다음 상태를 향하는 것, 즉 현재의 모든 것이 미래의 것들을 모두 잉태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상태를 미리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January 21 1704 Letter to De Volder, LDV 287)

그렇다면, 단순실체 안에는 지각과 욕구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상태를 향하는 것이 욕구와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헌적 증거들이 욕구에 대한 표준적 해석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며, 아담스, 러더포드 등의 학자들은 이러한 문헌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표준적 해석을 지지하고 있다.<sup>14)</sup> 물론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이른바 ‘표준적 해석’은 이러한 해석자들 중 특정한 한 명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을 취합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많은 해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욕구를 다음 지각을 갈구함으로써 한 지각 상태에서 다른 지각 상태로의 전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것은 이러한 표준적 해석이 욕구에 대한 상당히 자연스럽고

---

14) Adams(1994, 289), Rutherford(2005, 161-166), Carlin(2006, 366)

직관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또한 지지해주는 듯하다.

## 2. 이석재의 문제제기

그러나 이석재는 이러한 표준적 해석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가 제기하는 첫 번째 문제점은 이러한 표준적 해석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이다. 즉, 표준적 해석은 욕구를 다음 상태를 야기하는 ‘파생적 힘’의 성격에만 지나치게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단순 실체의 더 근본적인 힘인 ‘원초적 힘’과 욕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sup>15)</sup> 이석재의 말처럼, 라이프니츠는 코나투스[conatus] 혹은 니수스[nisus]를 포함한 단순 실체의 원초적 힘을 미래 상태들에 대한 갈구 혹은 노력이라고 묘사하곤 했다. 역시 데 볼더와의 서신에서 나타난 다음의 구절을 살펴보자.

나는 원초적 힘이 단순 실체의 내적 갈구[strivings] 혹은 경향성[tendentia]에 다름 아니며, 그들의 본성의 특정한 법칙에 따라 한 지각에서 다른 지각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 갈구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To De Volder 1704 or 1705, AG 181)

이 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원초적 힘 역시 단순 실체 내에서 미래의 상태 갈구하고 다음 상태를 야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표준적 해석에서 욕구의 역할로 간주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욕구를 파생적 힘과 대응시켰기 때문에, 이 원초적 힘과 욕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라이프니츠가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의 관계에 대해 논한 중요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파생적 힘은 현재 상태 그 자체로서, 다음 상태를 향하는 것, 즉 현재의

---

15) Lee (2014, 129)

모든 것이 미래의 것들을 모두 잉태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상태를 미리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하는 것 그 자체는, 그것이 모든 경우들을 포함하는 한에서, 원초적 힘을 가지며, 이 원초적 힘은 계열의 법칙과 같으며, 파생적 힘은 이 계열 안에 어떤 단계를 지시하는[designates] 결정[determination]과 같은 것이다. (LDV 287)

이 구절에 대해 아담스는 “파생적 힘은, 현재 맥락에 대한 원초적 힘의 값으로써, 원초적 힘 그 자체이며, 이것은 ”계열의 법칙“[law of the series]이 그 실체의 특정 시점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해석한다.<sup>16)</sup> 이에 대해 이석재는 아담스의 이러한 제안은 결국 파생적 힘을 원초적 힘과 최대한 가까이 위치시키는 것이며, 즉 욕구의 힘을 단순실체 내에 있는 계열의 법칙과 동일시시키는 것이라고 본다.<sup>17)</sup> 만약 그렇다면, 표준적 해석은 상당히 큰 문제를 안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라이프니츠의 철학 체계 내에서 계열의 법칙에는 결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욕구는 그것이 갈구하는 것을 완전히 얻지는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라이프니츠 역시 이러한 상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즈음에서 앞으로 논의에서 자주 언급이 될 라이프니츠의 단자론[Monadology] 15절을 살펴보자.

변화 혹은 한 지각으로부터 다른 지각으로의 이행을 야기시키는 내부 원리의 작용은 욕구라고 불릴 수 있다. 여기서 욕구[the appetite]는 그것이 얻고자 하는 전체 지각[whole perception]에 항상 완전하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그것의 부분[something of it]은 성취되며, 그리하여 새로운 지각[new perception]에 이르게 된다.(AG 215/ 논고 258; 국역 다소 수정)

이제 문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보인다. 만약 욕구의 힘이 계열의 법칙과 같은 원초적 힘이라면, 어떻게 욕구가 그것이 향하는 전체 지각[whole perception]에 도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즉, 만약 욕구

---

16) Adams (1994, 379)

17) Lee (2014, 131)

가 원초적 힘이라면 욕구는 그것이 갈구하는 것에 항상 도달해야만 하지만, 단자론 15절은 욕구가 항상 그것이 갈구하는 것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단지 이 이유만으로도 표준적 해석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sup>18)</sup>

이석재가 제기하는 표준적 해석의 두 번째 문제 역시 단자론 15절과 관련되어 있다. 단자론 15절에 따르면, 욕구는 항상 “전체 지각”이라는 것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 지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지각”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 때 라이프니츠의 말을 잘 살펴보면 이 새로운 지각은 욕구가 바라고 갈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라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얻게 된 지각이라는 뉘앙스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sup>19)</sup> 만약 그렇다면, 표준적 해석은 욕구를 원초적 힘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비교적 명백해 보인다. 지금까지 이석재가 제기한 표준적 해석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단자론 15절은 (1) 욕구가 갈구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 그리고 (2) 욕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에 도달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준적 해석은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전혀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석재는 추가적으로 베일[Pierre Bayle]의 개 문제 역시 언급한다.<sup>20)</sup> 이 문제는 베일이 “Rorarius”에서 제기한 것으로, 단자의 모든 사태가 그 단자 자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라이프니츠의 주장이 지나치게 반직관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나는 개의 영혼이, 심지어 그것이 우주에 혼자 있을 경우에도, 기쁨을 느낀 직후에 즉시 고통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자발적인 내적

---

18)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나 역시 이러한 표준적 해석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석재의 위와 같은 논증 자체는 타당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이다. 그러나 이 논증의 결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표준적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욕구가 단순히 원초적 힘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

19) Lee (2014, 134)

20) *Ibid.*, 135



행위의 계열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왜 한 개가 매우 배고파 빵 한 조각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몽둥이로 두들겨 맞을 때 그 개가 기쁨에서 즉시 고통으로 전환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의 영혼이 그것이 두들겨 맞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계속 빵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고통을 느끼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또한 이 영혼의 자발성이 그것의 고통의 느낌,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쾌하지 않은 모든 느낌과 완전히 양립불가능하다고 여긴다.(1696, WF 73-74)

가령 어떤 개가 시점  $t_1$ 에서 배가 고파서 고기를 먹고 싶어 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t_2$ 에서 개는 고기를 먹는 대신 주인에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다. 이 경우,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이 개가 두들겨 맞는 사태는 결국 개의 영혼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것이 된다. 그러나 한 개체가 스스로에게 유쾌하지 않은 사태를 야기시키는 것이 과연 그럴듯한가? 결국 베일은 라이프니츠의 자발성 논제가 반직관적이라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베일이 명시적으로 욕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의 “마지막 문장에서 그러한 함축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sup>21)</sup> 따라서 이석재는 이 문제 역시 욕구에 대한 해석이 다루어야 할 또 다른 문제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에 대한 라이프니츠 자신의 대답이나, 이에 대한 아담스의 해석은 모두 불만족스러우며, 자신의 해석만이 좀 더 나은 대답을 제공할 수 있음을 피력한다. 우선 라이프니츠와 아담스의 대답을 차례로 살펴보자.

만약 자발성[spontaneity]과 수의성隨意性[voluntariness]<sup>22)</sup>이 같은 것이라면, 분명히 양립불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수의적인 모든 것은

---

21) Lee(2014, 135)

22) ‘voluntariness’의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어는 아마도 ‘자발성’이겠지만, 이미 ‘자발성’을 ‘spontaneity’의 번역어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의성’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고 한자를 병기하였다.

자발적이지만, 반면에 선택되지 않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의적이지 않은 자발적 행위들이 존재한다. 영혼은, 그것이 가진 느낌들이 그것이 가져 왔던 느낌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언제나 좋은 느낌들을 제공할 수는 없다.(July 1698, WF 81)

이석재는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대답이 불쾌한 느낌들이 이른바 “계열의 법칙”에 따라 이미 규정된 상태의 나열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sup>23)</sup> 아담스 역시 이 구절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명을 제시한 바 있다.

“욕구” 그리고 “목적과 수단”이라는 언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른다. 이것은 갈구된 미래 사태의 추구를 제안하지만, 라이프니츠적 실체적 형상의 행위는 때때로 “원칙에 의한 행동”이라고 불리는 것에 더 가깝다. 라이프니츠의 관점에서 “한 지각에서 다른 지각으로의 전환”을 일으키는 “내적 원칙”은 이후 사태 그 자체의 갈구할 만함에 기초를 둔다기 보다는, 어떤 자연의 법칙들을 따르는 것에 기초를 둔다. 만약 영혼 혹은 형상적 실체가 일반적으로 “좋은”을 위해서 작용한다면, 라이프니츠의 체계에서 그 좋은이란 자연의 법칙들에 따름으로써 유지되는 세계의 조화이어야만 한다.<sup>24)25)</sup>

이석재에 따르면 이러한 아담스의 답변은 다소 고루하다. 아담스에 따르면, 그 개가 얻어맞는 것이 세계의 조화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 개의 내적 원리는 자신이 얻어맞는 것을 욕구한다는 것이다. 이석재는 이러한 아담스의 해석이 라이프니츠의 전체 체계와 어긋나지는 않기 때문에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지만, 이 해석에 따르면 이 개체로서의 개는 자신의

---

23) 만약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경우, 이석재의 말 그대로 라이프니츠의 대답은 실망스럽다. 라이프니츠의 대답은 그냥 자신의 원래 입장을 다시 기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구절에 대해 이석재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이는 VI장 2절에서 좀 더 다루게 될 것이다.

24) Adams (1994, 318)

25) 이러한 아담스의 말은 내가 이후에 제시할 대안적 해석과 표준적 해석이 중요한 지점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VI장 3절의 첫 번째 반론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안위보다는 전체 세계의 조화를 더 욕구한다는 다소 비상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한다.<sup>26)</sup> 욕구에 대한 좀 더 나은 해석은 베일의 개 문제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설명해줄 수 있어야하고, 자신의 해석은 그러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석재가 제기하는 표준적 해석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욕구가 갈구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욕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에 도달할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셋째, 베일의 개 문제를 직관적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욕구에 대한 더 나은 해석은 이러한 세 가지 쟁점에서 표준적 해석보다 더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해야한다. 이제 다음 절에서 이석재의 해석을 살펴보고, 그의 해석이 이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 고려해보자.

### 3. 이석재의 해석 : 이중 가닥 해석[double strands account]

욕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기 위해 이석재가 주목하는 것은 라이프니츠의 *New Essays on Human Understanding*이다. 이석재에 따르면, 라이프니츠는 NE에서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 로크식의 개념인 “동요”[uneasiness]를 끌어들이고 있다.<sup>27)</sup> NE에 따르면, 동요는 우리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를 갈구하는 것으로써, 항상 영혼 내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요로서의 욕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의식되어야할 필요도 없다. 즉,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욕구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구절에서 이석재가 말하는 동요로서의 욕구의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기 때문에, 다소 긴 이 구절을 살펴보는 것이 이석재의 해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6) Lee (2014, 136-137)

27) *Ibid.*, 137

만약 당신이 동요 혹은 불안[disquiet]으로 진정한 불쾌[genuine displeasure]를 말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박차를 가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만약 고난[sufferings]이라는 개념이 의식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고난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러한 미세한, 느껴지지 않는 지각들이다. 이러한 미세한 충동[impulse]들은 우리가 처한 작은 장애물들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극복 안에 존재하며,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간다.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지각[sense]하는 이러한 불안의 진정한 성격이다. 불안은 우리가 걱정적일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차분할 때에도 우리를 작용하게 한다. 우리는 결코 어떤 작용이나 움직임 없이 있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지속적으로 더 완전한 나음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가장 무관심한[indifferent] 상태에 있을 경우에도 우리를 규정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완전한 평형상태[equilibrium]에 있을 수 없고,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르게 균형을 맞추는 상황이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만약 고난의 이러한 부분들이 진정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종음을 끊임없고 열성적으로 추구하는 한에서 지속적으로 비참해질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와는 정반대이다. . . . 본성은, 자신을 좀 더 편안한 상태에 가깝게 하거나, 종음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종음의 이미지를 향유하고, 또는 고난의 감정을 줄이는 등의 지속적인 작은 승리들을 축적함으로써, 그 스스로를 상당히 즐겁게 하는데, 이것은 때에 따라 실제 종음의 향유[enjoyment]보다 더 좋기도 하다. 이러한 불안은 행복과 비정합적인 것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나는 불안이 피조물의 행복에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피조물들의 행복은 결코 완전한 달성, 즉 그들을 무감각하고 흐리멍덩하게 하는 이러한 완전한 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종음을 향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진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보는 피치못하게 욕망[desire] 혹은 적어도 지속적인 불안은 수반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불안은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러한 종류의 것이다. 이것은 불쾌[discomfort]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성분 혹은 재료로 제한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은 박차로서 우리를 작용하게 하기에 충분하며 그 의지

[will]를 자극한다. (NE 188-190)

위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불안 혹은 동요로서의 욕구는 우리의 영혼 내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며, 끊임없이 우리를 더 좋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내에서 욕구가 이렇게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욕구가 바라는 더 좋은 상태에 반드시 도달하리라는 것을 필함하지는 않는다. 이석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 라이프니츠가 욕구가 실패하는 경우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욕구들은 지구의 중심을 향한 가장 짧은, 그러나 항상 최선인 것은 아닌 길을 따르는 돌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그것은 그것이 바위들과 부딪혀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다. 반면 만약 그것이 자신이 향하는 방향을 바꿀 재치와 수단을 가졌다면 그것은 그것의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때때로 현재의 기쁨 [pleasure]을 향해 곧바로 돌진하다가 비참함의 나락에 빠지곤 한다. (NE 189)<sup>28)</sup>

단자론 15절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 역시 욕구가 “자신의 방향을 바꾸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욕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이렇게 욕구가 그 욕구가 갈구하는 상태를 야기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포착해야만 한다.

이제 이석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일단 단자론 15절에서 “전체 지각”이 나타내는 것이 현재의 지각 상태보다 동요의 정도가 덜한, 즉 비교적 더 나은 상태라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욕구는 항상 그러한 상태를 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더 나은 상태를 향한 욕구가 항상 더 나은 사태를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요로서의 욕구가 갈구하는

---

28) 나는 이 구절이 이석재의 해석보다는 나의 해석을 좀 더 결정적으로 지지해 준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III장 3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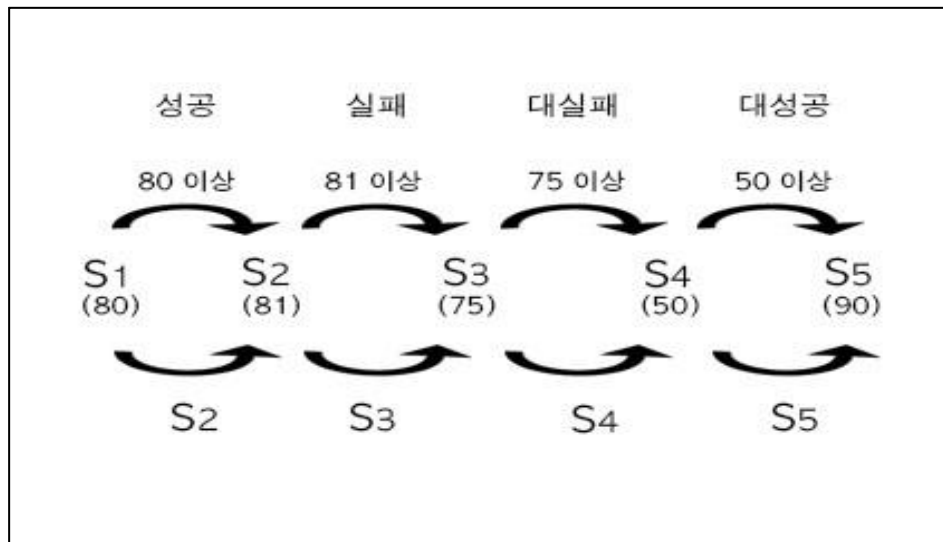
전체 지각의 전체가 아니라, 그 전체의 일부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가능한 것이다. 즉, 동요로서의 욕구는 항상 더 좋은 사태를 갈구하지만, 그 사태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석재의 해석은 단자론 15절에서 욕구가 “항상 전체지각의 일부를 얻는다”(AG 215)는 구절을 잘 해석해 낼 수 있다. 동요로서의 욕구가 갈구하는 더 나은 다음 상태는 완전히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의 일부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이석재의 해석이 욕구가 갈구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그의 해석이 욕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에 도달할 가능성을 어떻게 포착하는지 살펴보자. 이석재는 이러한 가능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중 가닥* [double strands] 해석을 제시한다. 단순 실체 내에 두 개의 구분되는, 그러나 상호 양립가능한 두 개의 욕구의 활동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원초적 힘으로서, 계열의 법칙에 따르며 이 법칙의 조화를 지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파생적 힘으로서, 끊임없이 더 나은 상태를 갈구하는 것,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동요로서의 욕구이다.<sup>29)</sup> 만약 그렇다면, 욕구하는 것과 별개의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쉽게 설명될 수 있다.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더 나은 상태를 욕구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원초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계열의 법칙에 따라 항상 다음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 따라서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욕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초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새로운 지각 사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면 더욱 직관적으로 이중 가닥 해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9) Lee (2014, 142-143)



이 그림에서 아래 부분에 있는 화살표는 원초적 힘으로서의 욕구를, 위 부분에 있는 화살표는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를 뜻한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S1에서 원초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욕구하는 내용은 다음 사태인 S2이다. 마찬가지로 S2에서는 S3, S3에서는 S4, S4에서는 S5를 욕구하고 있다. 즉, 원초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다음 시점에서 그 단자가 갖는 바로 그 사태를 욕구한다. 따라서 정의상 욕구가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 반면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를 살펴보자. 맨 밑의 숫자는 그 시점에서 단자가 가지고 있는 좋음을 의미한다. 보시다시피 S1의 좋음은 80이다. 때문에 S1에서 이 단자의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욕구하는 내용은 80이상의 좋음이다. 그리고 S2는 81의 goodness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80이상의 goodness가 달성되었다. 그러나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S1에서의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인과에 아주 조금 성공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S2에서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81이상의 goodness를 욕구한다. 그런데 S3는 75의 goodness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인과에 실패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S3에서의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그리고 S4에서의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 가닥 해석을 받아들이면 또한 베일의 개 사례 역시 손쉽게

게 설명될 수 있다. 그 개는 더 나은 다음 사태를 욕구했지만, 그것은 단지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음 사태를 항상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반면 개의 원초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계열의 법칙에 따라 그 개가 맞는 사태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어쨌든 그 개의 동요로서의 욕구는 더 나은 상태를 갈구하였기 때문에, 표준적 해석의 설명보다 훨씬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석재의 해석은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그 개체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또한 원초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전체 세계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직관적일 뿐만 아니라 라이프니츠의 단순 실체가 가져야 하는 목적론적 원칙 역시 충분히 잘 포착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상의 장점을 지닌 이석재의 해석에서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그의 해석에 따르면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 즉 동요로서의 욕구는 다음 지각 상태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인과적 힘을 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석재는 아담스의 해석이 파생적 힘을 지나치게 원초적 힘과 비슷한 위치에 놓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제 이석재는 파생적 힘의 인과적 고리를 끊음으로써, 표준적 해석이 갖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이석재의 해석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잘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



### Ⅲ. 이중 가닥 해석에 대한 반론과 새로운 대안적 해석

Ⅱ장에서 우리는 욕구에 대한 표준적 해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이석재의 반론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의 대안적 해석, 즉 이중 가닥 해석을 살펴보았다. 이석재의 새로운 해석은 표준적 해석의 문제들을 피할 수 있으며 베일의 개 문제에 대한 더 직관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뚜렷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나는 이중 가닥 해석 역시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다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역시 살펴볼 것이다. 나는 내가 제시할 반론이 이중 가닥 해석에 중대한 어려움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 해석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때문에 나는 단지 이중 가닥 해석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안적 해석을 제시하고 이 해석이 갖는 장점들을 강조할 것이다.

#### 1. 이중 가닥 해석에 대한 반론들

나는 여기서 두 가지 반론을 제시할 것이다. 이 반론들 각각은 이석재가 자신의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가능한 반론들을 더욱 강화한 형태를 띠고 있다. 나는 여기서 이 반론들이 이석재 스스로 고려했던 것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피력할 것이다.

##### 1) 최선의 세계 선택 논제와 충돌 반론

이석재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그의 해석은 우리가 언제나 더 나은 상태를 갈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만족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음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함축은 지나치게

반직관적이지 않은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석재는 라이프니츠가 피조물의 좋음에 상계[upper bound]가 없다고 말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반론을 해결한다.<sup>30)</sup>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나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나는 그것이 무한히 증가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우리 앞에 놓여진 영원성의 항로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관들이 얼마나 더 많이 발전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행복이 영속적인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새로운 기쁨들로의 끊임없는 진보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NE 194)

이석재는 이 구절을 바탕으로 피조물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으며 따라서 피조물에게는 가장 큰 좋음이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라이프니츠는 우리의 상태의 좋음에 상계 없이 (가능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음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석재의 설명에 따르면, 아무리 좋은 상태에 있는 단자도 더 나은 상태를 끊임없이 갈구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 단자가 갈구하는 것이 가능한 사태라면, 이 단자가 갈구하는 사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그렇다면, 신이 단 하나의 최선의 세계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논의를 편의를 위해 모든 가능 세계 각각에 단 하나의 단자만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신은 이러한 모든 세계 중 단 하나의 최선의 세계를 선택하려 할 것이다. 이제 한 특정한 세계 Wb가 신이 보기에 모든 세계 중에 가장 최선의 세계라고 해보자. 이제 신은 이 Wb를 선택하고 현실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은 이 Wb를 현실화할 수 없다. 이 세계 Wb 안에 있는 단자의 욕구는 더 나은 사태를 갈구할 것이고, 그 사태가 가능하다면, 그것과 비슷하면서 더 나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단자를 포함한 세계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더 나움에 대한 상계가 없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의 가장

---

30) Lee (2014, 144-145)

좋은 세계보다 더 좋은 세계는 무한히 많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신은 최선의 세계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내가 제기한 반론은 이석재의 해석이 신이 최선의 세계를 선택한다는 논제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최선의 세계 선택 논제가 라이프니츠의 철학 체계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만약 나의 반론이 타당하다면, 이석재의 해석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다시 다음과 같이 답변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에서 나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세계에 단자가 오직 하나씩만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 자체가 부당한 것일 수 있다. 다시 우리 세계들처럼 단자들로 가득찬 세계를 상상해보자. 그리고 그 세계에서 하나의 단자가 더 나은 가능한 다음 사태를 갈구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러나 이렇게 단자들로 가득 찬 세계에서는 그 특정 단자가 갈구하는 더 나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세계 전체의 좋음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즉, 개체 차원에서의 좋음과 세계 차원에서의 좋음의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단자가 바라는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은 더 나은 사태가 구현되는 가능 세계가 꼭 더 나은 세계라고 말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 반면 내가 제시한 반론에서는 세계에 오직 단 하나의 단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의 좋음과 개별 단자의 좋음의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결코 라이프니츠가 고려할만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이러한 가정 하에서만 작동하는 위의 반론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원초적 힘인 계열의 법칙은 세계 전체의 goodness를 향해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개별 단자의 동요로서의 욕구가 바라는 다음 사태가 계열의 법칙과 어긋날 경우 그 개별 단자가 갈구하는 다음 사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가능하지도 않은 사태를 갈구하는 욕구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물음은 우리를 다음 반론으로 자연스럽게 안내한다.

## 2) 존재론적 잉여 반론

나의 다음 반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좀 더 일반적인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해보자. 이석재의 해석은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직접적인 인과력을 갖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럼 당연히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원초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인과력도 가지지 않는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존재론적으로 잉여적이지 않은가? 이러한 물음은 이석재 스스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석재의 답변은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끊임없는 갈구를 통해 신에게 존재를 요청함으로써 간접적인 인과력을 갖는다는 것이다.<sup>31)</sup> 다시 말해서,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직접적인 인과력은 없더라도 간접적인 인과력이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잉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나의 반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 위의 주장에 따르면,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직접적인 인과력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인과력은 가져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존재론적으로 잉여적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다. 그러나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과연 간접적으로라도 인과적인가? 한 단자가 특정 시점  $t_1$ 에 가지고 있는 지각이 90의 좋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이제 이 단자의 욕구는 90 이상의 좋음을 갈구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다음 시점에서 90 이상의 좋음을 가진 지각이 나타난다면 이 단자의 욕구가 갈구한 바는 어느 정도 충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다. 다음 시점인  $t_2$ 에서 이 단자의 지각은 좋음의 정도가 낮아져서 87의 좋음을 지니고 있다고 해보자. 이러한 상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지각의 계열은 원초적 힘에 의해서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자가  $t_2$  시점에 87의 좋음을 지닌 지각을 갖는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만약 그렇다면,  $t_1$  시점에서 이 단자의 욕구는 불가능한 것을 갈구한 셈이다.  $t_1$  시점에서 욕구는 90 이상의 좋음을 갈구했지만, 그 단자는  $t_2$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87의 좋음을 지닌 지각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석재의 해석은

---

31) 이석재는 논문에서 말브랑슈의 기회원인론과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Lee (2014, 145-148) 참조.

개별 단자들의 욕구가 매우 빈번히 불가능한 미래 상태를 갈구한다는 것을 함축한다.<sup>32)</sup>

위와 같이 단자의 욕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갈구한다면, 이러한 단자의 욕구는 과연 간접적으로라도 인과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만약 어떤 어린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슈퍼마리오 게임을 받고 싶다고 갈구하고, 자신의 부모에게 그러한 자신의 욕구를 간접하게 요청한다면, 그 아이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슈퍼마리오 게임이나 혹은 그보다는 조금 저렴한 게임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슈퍼마리오 게임을 갈구하는 아이의 욕구는 간접적으로라도 인과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어린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둥근 사각형을 받기를 갈구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 이 어린이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어린이의 욕구가 간접적으로라도 인과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의 반론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간접적으로나마 인과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그 욕구가 갈구하는 상태가 가능하기라도 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욕구가 갈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러한 욕구는 간접적인 인과력도 갖지 못한다. 그리고 만약 욕구가 간접적인 인과력도 갖지 못한다면, 이러한 욕구는 존재론적으로 잉여적이다. 이석재 해석에서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자신의 계열의 법칙 하에 있지 않은 불가능한 사태를 욕구한다. 따라서,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존재론적으로 잉여적이다. 그리고 PSR에 따르면, 존재론적으로 잉여적인 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 2. 가능한 답변들

---

32) 혹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이기를 갈구함을 함축한다. 라이프니츠의 본질주의에 따르면, t2 시점에서 87의 총음을 지닌 지각을 갖지 않는 단자는 바로 그 단자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 자신이 아님을 갈구하는 것 혹은 불가능한 것을 갈구하는 것 모두 이석재 해석에서 기꺼이 받아들일만한 선택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는 앞 절에서 제시한 나의 반론이 이중 가닥 해석에 근본적인 어려움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리 말했듯이, 이것이 이중 가닥 해석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의 반론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매력적인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1) 불가능성의 유비 실패 답변 : 다음 사태는 그 자체로 불가능한가?<sup>33)</sup>

우선 다음과 같은 답변이 가능하다: 당신이 제기한 반론의 요지는 불가능한 것을 욕구하는 것이 인과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논의에 여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반론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둥근 삼각형을 욕구하는 것이 전혀 인과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반론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둥근 삼각형을 욕구하는 것과 불가능한 미래 사태를 욕구하는 것에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 다 불가능한 것을 욕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전자는 그 자체로, 즉 **진정으로** 불가능한 것을 욕구하는 것인 반면, 후자는 라이프니츠의 다른 전제들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을 욕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 인과력이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후자의 경우에도 인과력이 없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당신이 제시한 둥근 삼각형을 욕구하는 것의 비유는 실패한다.

이러한 답변은 진정한 불가능성과 그렇지 않은 불가능성을 나누어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그러나 나는 인과력을 갖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따지는 것에 있어서 이 구분이 얼마나 유효한지 의심스럽다. 즉, 나에게서는 ‘진정하지 않은’ 불가능성을 욕구하는 것도 인과력을

---

33) 이 답변은 한성일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것이다. 날카로운 비평을 해주신 한성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결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답변은 나와 입장을 달리하는 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방식으로 이에 대답해보고자 한다. 나의 기본적인 전략은 진정한 불가능성과 그렇지 않은 불가능성을 뚜렷이 구분할 근거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즉, 진정한 불가능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둥근 사각형은 진정한 불가능성으로, 그리고 불가능한 다음 사태는 ‘진정하지 않은’ 불가능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후보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형이상학적 불가능성이다. 진정한 불가능성은 형이상학적 불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른다. 가령, 크립키(S. Kripke)식의 기원 본질주의를 받아들이는 경우, 내가 나의 실제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진정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진정한 불가능성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둥근 삼각형과 다음 사태의 경우를 구분할 수 없다. 기원 본질주의 하에서 내가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라이프니츠의 결정론 하에서 내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태가 아닌) 다른 다음 사태를 갖는 것은 진정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불가능성은 형이상학적 불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없다.

두 번째는 인식적 불가능성이다. 라이프니츠 체계 내에서 어떠한 피조물도 자신이 어떠한 다음 사태를 맞닥뜨리게 될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식적 불가능성은 둥근 삼각형과 불가능한 다음 사태를 구분시켜줄 수 있는 좋은 후보인 것처럼 보인다. 즉,  $t_1$  시점에서 임의의 (피조물) 주체 S에게 어떠한 다음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인식적으로 가능하므로,  $t_1$  시점에서 불가능한 다음 사태를 욕구하는 것은 진정으로 불가능한 것을 욕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단지 인식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불가능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없다. 가령, 골드바흐의 추측이 참일 경우 작동하는 기계 A와 거짓일 경우 작동하는 기계 B를 만들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골드바흐의 추측이 참인 것과 거짓인 것 모두 각각 인식적으로 가

능하므로, A가 작동하는 것과 B가 작동하는 것 모두 인식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골드바흐의 추측은 필연적으로 참이거나 거짓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둘 중 하나는 진정으로 작동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인식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그것이 진정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가려주기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진정한 불가능성은 인식적 불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없다.

세 번째는 논리적 불가능성이다. 진정한 불가능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적어도 논리적 모순을 *내적으로* 포함한 것이 진정으로 불가능한 것의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라이프니츠 자신이 어떤 것의 본성상 그 내적으로 모순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진정한 가능성으로 간주했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 본성상 가능하다는 것(possible in its own nature)을, 설령 신과 그것의 공존이 어떠한 의미에서 모순을 함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어떠한 모순도 함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의해왔다.(AG 21)

주지하다시피 라이프니츠는 각 개체가 완전개체개념을 갖는다고 상정하기 때문에, 완전개체개념에 포함된 어떠한 것에 대한 부정도 모순을 함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 라이프니츠는 설령 모순을 함축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그 개체 자체로 모순을 함축하는 경우와 그 개체와 신과의 공존, 혹은 신의 의지 때문에 모순을 함축하는 경우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 정의에 따르면, 전자는 진정한 불가능성이지만 후자는 진정한 불가능성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둥근 삼각형의 사례와 불가능한 미래 사태의 사례가 이 기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면, 이 반론은 성공하게 된다.

일단 둥근 삼각형의 경우, 라이프니츠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진정한 불가능성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둥근 삼각형은 각이 있으면서 동시에 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순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언뜻 보기에 불가능한 미래 사태의 경우는 그 자체로는 어떠한 모순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라이프니츠는 어떠한 개체에 대해서도 그 개체에 해당하는 완전개체개념이 존재하며 이 완전개체개념에는 그 개체의 각 시점에서의 사태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그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래 사태는 모순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즉, 만약 개체개념 안에  $t_1$  시점에서  $p$ 인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t_1$  시점에서  $p$ 가 아닌 것은 모순을 함축한다. 따라서 불가능한 미래 사태도 이 기준에 따르면 진정한 불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다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라이프니츠의 완전개체개념은 보통 신과 다른 가능세계들, 그리고 다른 개체들에 대한 모든 참인 명제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본성상 가능함에 대한 위의 라이프니츠의 정의는 별다른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담스는 개체의 본성, 혹은 그 개체의 개체개념을 좀 더 좁은 의미로 이해함으로써 위의 정의를 살리려고 시도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한 개체의 좁은 개체 개념에는 다른 실체들에 대한 정보나 신에 대한 정보, 다른 가능세계들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sup>34)</sup> 그러나 아담스가 제안한 좁은 개체 개념에 따르면, 그 개체가 처하는 지각 사태들은 그 좁은 개체 개념 안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여전히 불가능한 미래 사태는 모순을 함축하게 되고, 따라서 이 제안에 따르면 불가능한 미래 사태 역시 진정한 불가능성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그 개체의 지각 사태들을 포함하지 않을 정도로 개체 개념을 더 좁게 잡으면 되지 않느냐고 다시 반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럴 경우 불가능한 미래 사태는 진정한 불가능성은 아니게 된다. 그러나 그 정도로 좁은 개체 개념은 라이프니츠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일단 이러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완전개체개념을 통한 라이프니츠의 진리 이론 자체의 실효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 세계

---

34) Adams(1994, 13)

가 진정으로 가능한 세계 중에 최선의 세계라는 라이프니츠의 변신론적 주장이 실효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 만약 우리가 속한 현실 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가 그 본성상으로는 가능한데 단지 신의 의지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러한 신을 충분히 선한 신이라고 변호해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라이프니츠에게는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그 본성상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변신론적 작업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라이프니츠에게 불가능한 미래 사태가 그 자체로는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나의 답변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둥근 삼각형의 경우는 그 사태 자체가 본성상 불가능한 것이고, 일어나지 않을 미래 사태의 경우 그 사태 자체가 본성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그 미래 사태를 갖는 것이 본성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유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지적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과연 이러한 차이가 과연 나의 논증을 위협할 만큼 유의미한 차이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것이 나의 논증을 위협하는 유의미한 차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 반론은 충분히 성공적이지는 못한 듯하다.

## 2) 라이프니츠적 좋음 답변 : 좋은 것을 욕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 않은가?<sup>35)</sup>

두 번째 답변은 나의 반론에 좀 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욕구가 간접적인 인과력을 갖기 위해서 그 욕구가 갈구하는 상태가 반드시 가능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즉, 이 답변은 나의 반론의 첫 번째 전제를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귀결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욕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갈구하는 것 역시 간접적으로 인과력을 가질 수 있다면,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존재론적으로 잉여적일 이유가 없다.

---

35) 이 답변과 여기서 제시된 예시는 2014년 라이프니츠 세미나 시간에 이석재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것이다. 예리한 답변과 흥미로운 예시를 제공해주신 이석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생각해보자. 두 개의 축구팀 A와 B가 있다고 해보자. 이 두 축구팀은 나가는 경기마다 참패를 한다. 게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패를 할 예정이라고 해보자. 즉, 이 두 축구팀의 지속적인 참패는 그들의 계열의 법칙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다. 이 두 팀의 유일한 차이는 A팀의 경우 계속해서 참패를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1승을 바라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반면, B팀의 경우 그들의 팀의 모든 것들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도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당신이 만수르와 같은 석유 재벌이고, 이 두 팀 중 한 팀을 인수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해보자. 당신은 A팀을 선택할 것인가, B팀을 선택할 것인가? 이석재의 직관은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A팀을 선택하리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 역시 불가능한 상태일지라도 더 나은 상태를 갈구하는 단자들이 있는 세계를 선택하리라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직관이 설득력이 있다면, 나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이석재는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간접적인 인과력을 갖는다는 것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석재는 다음의 논제를 자신의 해석에 추가함으로써 나의 반론을 무마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SGG) 더 좋은 상태를 갈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다.

(SGG)에 따르면, 계열의 법칙에 따르면 정확히 같은 좋음을 가지고 있는 두 세계라도 더 나은 상태를 갈구하고 있는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있는 세계가 신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그것이 갈구하는 상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와 상관없이 간접적인 인과력을 갖는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즉, (SGG)는 나의 반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SGG)는 정말로 나의 반론을 무력화시키는가? 우선 (SGG)를 추가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다. 언뜻 보기에 (SGG)는 라이프니츠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전제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를 정말로 문헌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약간의 수고를 동반하겠지만, 라이프

니츠가 (SGG)와 비스무리한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은 대부분의 라이프니츠 학자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지 보기위해서 우리는 (SGG)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SGG)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SGG1) 객관적인 관점에서 더 좋은 상태를 갈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다.

(SGG2) 그것을 욕구하는 주체에게 더 좋은 상태를 갈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다.

일단 (SGG1)부터 살펴보자. (SGG1)는 라이프니츠가 정말로 받아들일 만한 논제이다. 정말로 절대적으로 좋은 것을 갈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 좋다는 것은 라이프니츠의 체계 내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주장이다. 즉, (SGG1)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SGG1)로는 나의 반론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SGG1)이 말하는 바는 욕구의 주체의 욕구가 객관적으로 좋은 것을 욕구하는 사태가 그 자체로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이중 가닥 해석에서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갈구하는 것은 절대적인 좋음이 아니라 그것을 욕구하는 개체에게 해당되는 좋음이다. 오히려 절대적인 goodness를 갈구하는 것은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아니라 원초적 힘으로서의 욕구이다. 따라서 (SGG1)은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인과력을 갖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는 나의 반론을 무마시킬 수 없다.

다음으로 (SGG2)를 살펴보자. 쉽게 알 수 있듯이, 만약 (SGG2)를 받아들인다면 나의 반론을 무마시킬 수 있다. (SGG2)는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간접적 인과력을 가질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에는 (SGG2)의 정당화가 문제가 된다. (SGG2)는 임의의 한 개체에게 좋은 것을 욕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라이프니츠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만한 주장이 아

니다. 즉, (SGG1)과 달리 (SGG2)는 라이프니츠가 결코 받아들일만한 논제가 아니다. 따라서 (SGG2)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반론에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3. 대안적 해석 : 욕구의 역학 모델

앞에서 우리는 욕구에 대한 이석재의 해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나의 반론을 제시했다. 반론의 핵심은 결국 이석재의 해석은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간접적인 인과력조차 결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잉여적이지 않은가하는 것이다. 물론 이석재는 이에 대해 (SGG) 논제를 추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테지만, 나는 다시 (SGG)에 대해서 일종의 딜레마를 제시했다. 만약 (SGG)가 의미하는 바가 (SGG1)이라면 이것은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논제이지만, 나의 반론을 무마시키는 데에는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 반면 (SGG)가 의미하는 바가 (SGG2)라면 이것은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에 간접적 인과력을 부여할 수 있게 해줌으로 나의 반론을 무마시킬 수 있지만, 이 논제 자체가 받아들일만한 논제가 아니다. 따라서 결국 이중 가닥 해석에 (SGG)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반론에 적절히 대답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라이프니츠의 욕구에 직접적인 인과력을 부여하는 표준적 해석은 주로 단자론 15절과 관련하여 이석재가 제기한 (1) 욕구가 갈구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 (2) 욕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에 도달할 가능성, (3) 베일의 개 문제를 직관적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할 가능성을 모두 결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이중 가닥 해석은 내가 제시한 반론에 적절히 대답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라이프니츠의 욕구 개념에 대한 설명적으로 적절하면서도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어떠한 해석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앞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모두 피할 수 있으면서 설명적으로 적절한 또 다른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나의 해석을 제시하기에 앞서 우선 단자론 15절을 다시 살펴보자.

변화 혹은 한 지각으로부터 다른 지각으로의 이행을 야기시키는 내부 원리의 작용은 욕구라고 불릴 수 있다. 여기서 욕구는 그것이 얻고자 하는 전체 지각[whole perception]에 항상 완전하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그것의 부분[something of it]은 성취되며, 그리하여 새로운 지각[new perception]에 이르게 된다.(AG 215 / 논고 258; 강조는 글쓴이의 것)

나의 해석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단자론 15절을 완전히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나에게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고, 살을 빼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나는 나의 욕구들을 모두 고려해서 카스 라이트를 마셨다. 이 경우, 각각의 욕구들은 자신이 야기하고자 한 것을 ‘완전히’ 야기시키지는 못했다. 만약 내가 후자의 욕구가 없었더라면 나는 좀 더 맛있는 맥주를 마셨을 것이고, 만약 전자의 욕구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예 맥주를 마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두 욕구는 상호 간의 인과적 관계를 통해 다음 지각, 즉 카스 라이트를 마시는 것을 야기시킨 것이다.

이 그림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자. 이 시나리오에서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야기시키고자 한 이른바 ‘전체 지각’은 맛있는 맥주, 즉 카스를 마시는 것이다.<sup>36)</sup> 그리고 살을 빼고 싶은 욕구가 야기시키고자 한 전체 지각은 아무것도 먹지 않음으로써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두 욕구가 다 있었기 때문에 두 욕구를 모두 고려해서 카스 라이트를 마셨다. 이 때 내가 카스 라이트를 마시는 상황이 바로 단자론 15절에서 말하는 “새로운 지각”[new perceptio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지각은 각 욕구가 바라던 전체 지각의 일부들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는 충분히 맛있는 맥주를 마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카스 라이트를 마심으로써 이 욕구의 일부가 이루어졌고, 살을 빼고 싶은 욕구 역시 아무것도

---

36) 카스가 맛있다고 가정하자.

먹지 않음으로써 충분히 살을 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칼로리가 33% 낮은 카스 라이트를 마심으로써 이 욕구의 일부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나의 모델이 단자론 15절에서 말하는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 졌을 것이다. 만약 나의 현 상태에서 다른 욕구는 없고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만 있었다면, 나는 카스를 마심으로써 전체 지각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개별 욕구는 경우에 따라 전체 지각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위의 예시가 잘 보여주듯이, 복수의 욕구들이 인과작용을 하는 경우를 통해서 개별 욕구의 전체 지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즉 이석재가 제기한 (1)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수의 욕구들이 충돌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지각이 일어날 가능성, 즉 (2) 역시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제 나는 이러한 나의 설명을 **욕구의 역학 모델**이라고 부를 것이다.<sup>37)</sup>

이제 욕구의 역학 모델이 베일의 개 사례, 즉 (3) 역시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3)에 대해서 나의 설명은 이석재의 해석과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석재의 해석은 개의 욕구는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다음 상태를 야기한 것은 원초적 힘으로서의 욕구라고 설명함으로써, 개가 두들겨 맞는 욕구가 아니라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직관을 설명해낼 수 있었다. 나의 해석에서도 역시 개가 두들겨 맞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직관을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개의 욕구는 욕구의 역학적 작용 과정에서 완전히 무용해졌을 뿐이다. 즉, 그 개의 단자 안에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욕구들이 있었는데, 이 욕구들의 역학적 인과 작용 과정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

37) 라이프니츠의 욕구를 역학적으로, 혹은 역학과 비유를 통해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cRae(1976, 56-60)는 라이프니츠의 욕구가 역학과 비유를 통해서만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Carlin(2006) 역시 욕구를 역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물론 이들은 이석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역학적 설명 모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욕구는 완전히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개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나의 설명 모델 역시 충분히 상식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3)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별 욕구가 완전히 인과력을 잃을 수도 있음을 보였다. 위에서 살펴본 카스 라이트 사례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잘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고 실험을 통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설명하도록 하겠다. 위에서처럼 나에게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와 살을 빼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일 새벽기도에 가고 싶은 욕구와 내일 오전에 있을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욕구, 내일 모레까지 제출해야하는 기말 페이퍼를 잘 쓰고 싶은 욕구도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나의 모든 욕구들을 고려해볼 때, 맥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 맥주를 마시고 싶어 했던 욕구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치 베일의 개가 가진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했던 욕구가 완전히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나의 전체 욕구들은 집합적으로 다음 상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개별 욕구가 완전히 인과적으로 무용해지는 경우에도 욕구가 가진 인과력 자체가 의심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적어도 맥주를 마시고 싶은 바로 그 욕구는 인과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반론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보자. 진공상태에 있는 어떤 물체가 왼쪽으로 5의 힘으로 당겨지고 있고, 오른쪽으로도 5의 힘으로 당겨지고 있다고 해보자. 이 때 이 물체가 받고 있는 알짜힘 [net force]은 0일 것이다. 그러나 알짜힘이 0이라고 해서 이 물체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즉, 어떠한 힘이 특정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힘 자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위의 사례에서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sup>38)</sup>

38) 물론 이러한 경우에 그 물체에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으로는 Cartwright(1980) 참조.



위와 같이 나의 욕구의 역학 모델은 이석재가 제기한 (1), (2), (3)의 경우를 모두 잘 설명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설명 모델은 욕구가 직접적인 인과력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석재 해석처럼 (SGG)와 같은 추가적인 논제를 받아들여야 할 어떠한 부담도 없다. 만약 지금까지 내가 제시한 설명이 모두 타당하다면, 나의 해석이 기존의 해석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나의 해석이 과연 문헌적 증거를 통해 지지받을 수 있을지 살펴볼도록 하겠다. 일단, 나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욕구가 다음 지각 상태를 야기한다는 표준적 해석의 기본적인 입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적 해석을 지지하는 문헌적 증거들은 거의 모두 나의 해석을 지지하는 증거로써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이며, 이는 나의 해석의 뚜렷한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히 나의 전체론적 인과 모델을 지지하는 문헌적 증거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구절은 나의 해석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욕구들은 지구의 중심을 향한 가장 짧은, 그러나 항상 최선인 것은 아닌 길을 따르는 돌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그것은 그것이 바위들과 부딪혀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다. 반면 만약 그것이 자신이 향하는 방향을 바꿀 재치와 수단을 가졌다면 그것은 그것의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때때로 현재의 기쁨 [pleasure]을 향해 곧바로 돌진하다가 비참함의 나락에 빠지곤 한다. (NE 189)

주지하다시피 이 구절은 이석재가 자신의 해석을 지지하기 위해 인용한 구절 중 하나이다. 이석재는 이 구절을 라이프니츠의 욕구가 실패하는 경우를 라이프니츠가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으며, 이 점에서 나 역시 완전히 동의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단지 욕구가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실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역시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의 돌이 다른 바위에 부딪힘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욕구의 실패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날 것임을 암시

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나의 욕구의 역학 모델과 매우 유사하다. 만약 내가 맥주를 마시고자 하는 욕구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맥주를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욕구 이외에 다른 많은 욕구들도 가지고 있다면, 이 욕구들이 서로 “충돌”하여 맥주를 마시고자 하는 욕구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방법 모두 내가 제시하는 욕구의 역학 모델과 매우 잘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의 구절 역시 나의 해석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지각들과 경향성들(inclinations)은 하나의 완전한 의지(volition)를 생산하기 위해 결합한다. 이것은 그들 사이의 충돌의 결과이다. 거기에는 어떤 감지될 수 없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를 추동하는 불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또한 우리를 어떤 개체로 향하거나 멀어지게 하는 힘들을 종합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것은 각각의 경우 욕망 혹은 공포이며, 또한 언제나 꽤나 불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닌 불안을 수반한다. (NE 192)

이 구절 역시 다양한 지각들과 욕구들이 충돌함으로써, 그 충돌의 결과가 결국 우리를 다음 상태로 나아가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역시 욕구 간의 역학적 결과로 다음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나의 해석과 정확히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그것들이 서로 서로 경중을 달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나는 가장 긴급한[pressing] 불안이 우세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긴급한 불안이 대조된 불안들 각각을 하나씩 고려했을 때에는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안들 전체를 취했을 때는 그 하나의 긴급한 불안보다 우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NE 193)

이 구절은 내가 하나의 개별적 욕구가 자신이 갈구하는 바를 성취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설명했던 부분과 정확히 일치한

다. 내가 가진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내가 가진 욕구들 중 가장 긴급하다고 하더라도, 즉, 살을 빼고 싶은 욕구, 새벽 기도에 가고 싶은 욕구, 시험을 잘보고 싶은 욕구, 페이퍼를 잘 쓰고 싶은 욕구 하나하나와 견주었을 때는 가장 긴급하고 지배적인 욕구라고 하더라도, 이 욕구들 전체를 취할 경우에는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를 압도할 수 있고, 따라서 맥주를 마시지 않는 다음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NE에서 라이프니츠를 대변하는 테오피루스(Theophilus)가 생각하는 욕구의 그림은 욕구의 역학 모델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때문에 이러한 테오피루스의 말들은 나의 해석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해석에 대해서 여전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욕구의 역학 모델에 따르면 한 시점에 복수의, 혹은 무한한 욕구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는 한 시점에서 그렇게 많은 욕구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과연 라이프니츠에게 한 시점에서 욕구는 무한히 많은가? 둘째, 이미 언급되었듯이, 욕구에 대한 논의는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표준적 해석과 이중 가닥 해석은 각기 그 나름대로 이 두 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욕구의 역학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셋째, 욕구의 역학 모델이 형식적으로는 베일의 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t_1$ 에서 강아지가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t_2$ 에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t_1$ 에서 이 강아지가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 이외에 다른 욕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고 욕구의 역학에 따라 이 욕구들이 충돌한 총합이 다음 사태를 야기시킨 것이라면, 고기 욕구가 아닌 다른 욕구는 도대체 얼마나 나쁜 것을 욕구했기에 두들겨 맞는 사태가 야기된 것인가? 이 강아지가 죽기를 욕구하기라도 했던 말인가? 혹은 두들겨 맞고 싶어 하는 욕구가 고기 욕구의 값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컸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욕구의 역학 모델은 베일의 개 문제

를 오히려 더 반직관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 보인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이어지는 IV, V, VI장에서 이 각각의 문제들을 차례대로 다루도록 할 것이다. 나는 이 질문들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마지막 장에서 내 해석의 최종적인 형태를 개진할 것이다.

## 제 2 부.라이프니츠의 욕구의 역학을 향하여

### IV. 욕구의 무한성과 그 구조

지금까지 나는 욕구에 대한 표준적 해석과 이중 가닥 해석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나의 새로운 해석을 간략히 제시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나의 해석을 정당화하고 이러한 정당화를 바탕으로 좀 더 정교하고 세련된 욕구의 역학 해석을 개진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나의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물음들에 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IV장에서는 그 중 ‘단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무한히) 많은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나의 해석 모델에서는 한 시점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욕구가 존재해야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 우선 나는 라이프니츠가 명시적으로 단자 내에 욕구가 다수로 존재한다고 말한 몇몇 구절들을 제시할 것이다. 사실 나는 단자의 욕구가 무한히 많다는 점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라이프니츠 자신이 욕구의 무한함에 대해서 말한 구절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나는 욕구의 무한함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힌 구절들 이외에도, 라이프니츠의 체계 내에서 욕구의 무한함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페마이스터(P. Phemister)의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라이프니츠의 지각의 종류와 구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욕구의 종류와 구조에 대한 논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자의 욕구가 의식적, 무의식적, 외부 욕구라는 세 가지 다른 종류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1. 욕구의 무한함

그럼 우선 단자 내에 욕구가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라이프니츠의 구절들을 살펴보자. 이를 가장 명시적으로 밝힌 구절은 단자론

36절이다.

여기서는 자연 사물들이 매우 다양하고 물체는 무한히 분할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근거로의 분해가 제한 없이 계속될 수 있다. 현재 나의 저술 행위에 대한 작용인을 이루는 현재와 과거의 상황들과 운동들은 무한히 많이 존재하며, 그의 목적인들을 이루는 **내 영혼의 현재와 과거의 작은 경향[inclinations]들과 성향[dispositions]들도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 (AG 217/논고 267-8; 강조는 나의 것)

앞서 우리는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경향이나 성향을 욕구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구절은 그가 욕구가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구절로 해석될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그가 글을 쓰는 행위가 과거의 무한한 작용들을 통해, 그리고 또한 과거의 무한한 욕구들을 통해 발생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sup>39)</sup> 뿐만 아니라 다음의 구절 역시 나의 해석을 정당화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다양한 지각들과 경향들은** 합쳐져 완벽한 의지를 생성한다: 이것은 그것들 사이의 충돌의 결과이다. 그들 중 몇몇은 지각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합쳐져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추동하는 불안(disquiet)이 된다. (NE 192; 강조는 나의 것)

이 구절은 단지 욕구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욕구들의 충돌의 결과로 의지, 혹은 불안을 생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III장에서 내가 제시한 욕구의 역학 모델과도 매우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sup>40)</sup>

그러나 불행히도 라이프니츠가 욕구의 무한함을 명시적으로 밝힌 구절이 그리 많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

39) 여기서 라이프니츠가 목적인과 작용인을 완전히 구분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해석에 반대한다. 이에 대해서는 VI장 3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40) 물론 욕구들 사이의 충돌의 결과로 의지가 생성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한 바가 없다. 나는 이에 대해서는 IV장 후반부에 비교적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좀 더 우회적인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 우선 위에서 살펴본 NE의 구절을 주목해보자.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단지 경향, 즉 욕구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지각 역시 다양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라이프니츠는 욕구뿐만 아니라 지각 역시 무한히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그렇다. 다음의 구절을 살펴보자.

매 순간 우리 안에는 의식과 반성을 동반하지 않은 지각들의 무한함이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수많은 표식들이 존재한다; 즉, 영혼 자체 안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변화의 무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수많은 표식들이 존재한다. (NE 53)

위 구절에서 라이프니츠는 모든 순간에 단자 안에 지각들이 무한히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다음의 구절들 역시 이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미세 지각들[petite perceptions]의 무한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큰 고향 소리는 개별적 사람들의 미세한 중얼거림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미세한 중얼거림들을 우리는 그 중 몇몇은 감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완전히 알아채지는 못한다.(L 557; G, VI, 534)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파악되지 않는 미세한 지각들의 무한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각들 없이 결코 있을 수 없지만, 우리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종종 통각들[apperceptions] 없이는 있을 수 있다. (NE 161-162)

위 구절들에서도 라이프니츠가 단자 내에 지각이 무한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라이프니츠는 이외에도 여러 문헌에서 지각이 무한히 많다는 점을 거듭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때문에 지각이 무한하다는 점을 거부하는 해석자는 아마도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지각의 무한성은 사실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

분이다.

반면에 욕구의 무한성은 많은 해석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앞서 말했듯이 라이프니츠 자신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힌 구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의 해석에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제시한 구절들에서 라이프니츠가 욕구가 무한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해석을 지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겨우 한 두 구절만으로 라이프니츠가 욕구의 무한성을 진지하게 믿었다는 주장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우리는 당신이 제시한 구절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의 주장은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반론이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욕구의 무한함을 정당화해줄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따라서 나는 나의 주장을 지지해줄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각각의 지각은 그것을 낳을 욕구적 힘을 필요로 한다. 각각의 지각적 상태마다 지각들의 무한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지각적 상태의 원인은 반드시 셀 수 없이 많은 욕구들을 포함해야한다. 이에 따라, 라이프니츠는 지각적 상태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욕구들 똑같이 구분한다.<sup>41)</sup>

이 구절은 나와 마찬가지로 라이프니츠가 욕구의 무한함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페마이스터의 책에서 가져온 것이다. 페마이스터에 따르면, 지각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의 원인이 되는 욕구들 역시 무한해야 한다. 나는 이러한 페마이스터의 논증이 결정적으로 욕구의 무한함을 지지해준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각각의 순간에 지각이 무한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욕구는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를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다음 상태에서 무한한 지각을 불러일

---

41) Phemister(2005, 247)



으키기 위해 욕구 역시 무한해야 한다, 우리는 페마이스터의 논증을 귀류법 논증으로 재구성해볼 수 있다. 가령, 결과가 되는 지각은 무한한데 원인이 되는 욕구는 유한하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결과가 되는 지각의 무한함은 충분한 원인으로부터 이끌어내진 것이 아니게 된다. 즉, PSR을 어긴다. 따라서 결과가 되는 지각이 무한하다면, 원인이 되는 욕구 역시 무한해야한다. 이는 라이프니츠가 지각과 욕구에 대해 평행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쿨스타드(M. Kulstad)와 칼린(L. Carlin)의 설명과도 아주 잘 부합한다.<sup>42)</sup>

이제 우리는 욕구의 역학 모델이 요구하는 욕구의 무한성을 주장할 정당한 근거를 찾은 듯하다. 그런데 정말로 욕구가 그와 상응하는 지각과 마찬가지로 평행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욕구에 대해 좀 더 정교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해석자들이 지적했듯이, 라이프니츠의 지각은 미세 지각, 감각[sensation], 통각[apperception] 등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욕구 역시 그와 상응하는 다양한 형식으로써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욕구의 종류와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욕구의 역학 모델을 좀 더 정교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우선 지각의 종류와 구조에 대한 기존 해석자들의 설명을 살펴보고, 이를 욕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도록 할 것이다.

## 2. 지각의 종류와 구조

그럼 일단 지각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보자. 우리는 앞에서 지각이 단자 내에서 표상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다소 느슨하게 설명해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위해서는 그 정도로 충분했지만, 지각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우선 라이프니츠가 지각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라이프니츠는 지각을 “하나의 것 안에서 많은 것들을 표상 혹은 표현(expression)<sup>43)</sup>하는 것”(letter to Des Bosses, 11 July

---

42) Kulstad&Carlin(2013)

1706), 혹은 “단순한 것 안에 있는 다수의 표상”(G, III, 574-575)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sup>44)</sup> 이 두 정의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단순 실체인 단자가 세계의 여러 존재자들, 즉 다른 단자들을 표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I 장에서 살펴본 (R)<sup>45)</sup>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단자는 다 그 각각의 단자 내에 세계의 모든 모습을 반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물론 당연히 각각의 단자는 다 그 각각의 관점에서, 그리고 각각의 뚜렷함[distinctness]과 혼돈된[confusedness] 정도에 따라 세계를 표상한다.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뚜렷함과 혼돈된 정도에 따라 단자의 종류를 구별한다. 그의 구분에 따르면 단자는 단순 단자[bare monad], 영혼[soul], 그리고 정신[mind]으로 나뉜다. 이중 단순 단자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단자로서, “그 안에서 어떤 것도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AG 216/논고 261) 것이다. 즉, 지각의 뚜렷함의 정도가 매우 낮아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것도 뚜렷히 표상하지 못하는 종류의 단자이다. 물론 그렇다고 단순 단자가 어떠한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들은 분명 자신만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세계를 표상하고 있지만, 그것이 “기절이나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수면”(Mon 20 AG 215/논고 261)과 같이 전혀 의식(conscious)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즉 단순 단자의 지각 상태는 그 자체로는 어떠한 의식도 없는 무의식적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단순 단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적 상태, 예컨대 데카르트적 정신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라이프니츠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다.<sup>46)</sup> 라이프니츠는 이런 상태의 지각을 보통 “미세 지각”[petite perception]이라고 부른다.

43) 라이프니츠는 ‘표상’과 ‘표현’을 상호 치환 가능한 용어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서는 Kulstad&Carlin(2013) 4절 참조.

44) 이 이외에도 지각에 대한 정의는 G, II, 121; G, III, 69; G, VI, 598, 60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45) (R) 임의의 세계 w에 대해서, 만약 w가 조화로운 세계라면, w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단자 x에 대해서도, x는 w 안에 존재하는 모든 단자(의 표상)를 자신의 지각 안에 가지고 있다.

46) A. Simmons(2001)는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의 심적 상태에 관한 견해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반면 영혼과 정신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적 상태와 비슷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아래의 구절을 살펴보자.

이에 따라 도처에 지체 또는 기관들과 결합된 생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모나드들은 많은 적든 다른 단자들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단자들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등급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마치 광선들이 수정체의 형태를 통하여 집중됨으로써 보다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단자가, 그가 수용하는 인상들과 이 인상들을 재현하는 지각들 안에 두드러진 차이가 존재하도록 하는 합목적적인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모나드의 지각은 감각, 즉 경우에 따라 후에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일종의 메아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억을 동반하는 지각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의 모나드가 영혼이라고 불리듯이 이러한 감각을 가진 생명체를 우리들은 동물이라고 부른다. 만일 이러한 영혼이 이성을 갖기까지 고양된다면, 그것은 더욱 뛰어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정신으로 간주한다.(*PNG 4*, AG 208; 논고 231-232)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우선 동물의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몇몇 기관들을 통해 그것들을 이루는 단자의 지각들이 충분히 합목적적으로 모일 경우, 기억을 동반하는 영혼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 상태의 단자는 보통 기억과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된다. 라이프니츠는 일반적인 동물들이 이러한 상태에 해당된다고 본다. 가령, 파블로프의 개가 종이 울리면 침을 흘리는 것은 이 개가 고기 맛, 종소리 등에 대한 감각과 그것들을 기억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물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동물이 감각, 기억 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이 단지 잘 만들어진 기계일 뿐이라는 데카르트의 입장<sup>47)</sup>과 분명히 다르다. 이러한 상태의 단자가 갖는 지각은 감각이라고 칭할 수 있다.

---

47) Descartes(1993, 2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혼의 상태 역시 데카르트적 정신과는 분명 다르다. 왜냐하면 동물의 영혼은 세계를 어느 정도 뚜렷하게 지각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의식이나 자의식[self-consciousness]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각 또는 외부 사물들을 표현하는 단자의 내적 상태와 의식 또는 이 내적 상태에 대한 반성적 인식인 통각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후자는 결코 모든 영혼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영혼에게서라도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PNG 4 AG 208/논고 232)

위 구절에서 라이프니츠는 ‘통각’이라는 지각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기서 통각은 의식 또는 내적 상태에 대한 반성적 인식과 동일시되고 있다. 즉, 통각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단지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적 인식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통각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데카르트적 정신과 비슷한 것에 도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각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 상태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기에 무리가 없으며, 또한 라이프니츠 역시 현실세계의 피조물 중 인간만이 이러한 통각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몇몇 구절에서 라이프니츠가 동물도 통각을 갖는다고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sup>48)</sup> 통각이 동물의 상태에서부터 발생하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중요한 해석적 문제이지만, 본 논문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나는 통각이 인간에게만 주어지며, 인간만이 의식, 자의식, 반성적 인식 등을 가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를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구분되는 종류의 지각 상태가 있다는 점을 살

---

48) 가령, Belaval(1975, 213-4)와 Naërt(1961, 78)은 동물들이 일종의 비반성적인 통각을 갖는다고 말한 바 있다. Kulstad(1991)은 이러한 동물의 통각 문제를 책 한 권에 걸쳐 자세히 다룬다.

펴봤다.<sup>49)</sup> 그런데 어떻게 단자들 중 몇몇 단자만이 동물이나 정신의 지각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대답은 동물이나 인간과 같은 경우, 그것을 이루는 단자들 중 하나의 단자가 그 개체의 지배 단자[dominant monad]가 되며, 이 지배 단자가 동물, 혹은 인간의 정신 상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I 장에서 살펴봤듯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단자들로 이루어져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단자들의 집합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집합체 중 인간이나 동물과 같은 개체들의 경우 그 집합체 중 한 단자가 지배 단자가 되어, 이러한 지배 단자는 피지배 단자들의 지각들과 특별히 친밀한 접근성을 갖는다.

이로부터 우리는 모든 살아 있는 육체는 하나의 지배적인 엔텔레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지배적인 엔텔레키는 동물에게서는 영혼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살아 있는 육체의 지체들은 다시 다른 생명체들, 식물, 동물들로 가득 차 있고, 이들 각각은 다시금 그 엔텔레키 또는 지배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다. (Mon 70 AG 222/논고 287)

즉, 한 개체의 지배 단자는 그 개체를 이루는 모든 단자들의 (무한한) 지각을 좀 더 뚜렷하게, 그리고 단일한 형태로 지각한다. 거칠게 말하자면, 지배 단자의 지각은 피지배 단자들의 무한한 미세 지각들을 모두 합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맥래[R. McRae]는 이에 대해 “의식이 있는 혹은 통각을 하는 지각들 혹은 욕구들은 이러한 감각되지 않는 지각들과

---

49) 라이프니츠가 단자의 종류가 오직 세 가지 뿐이라고 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PNG 4절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듯이, 라이프니츠는 단자가 무한히 많은 등급으로 나뉘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령, 식물을 이루는 지배 단자의 상태는 분명 동물의 지배 단자 상태와는 다를 것이다. 그리고 피조물의 좋음의 정도에 상계가 없다는 라이프니츠의 말을 생각해볼 때, 인간적인 정신보다 좀 더 뚜렷한 형태의 정신을 갖는 피조물 역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immons(2001, 25)는 뚜렷함의 정도가 무한하다는 것으로부터 종류의 무한함이 따라 나오지는 않는다고 해석한다. 본 논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단지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세 가지 등급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육구들의 적분”<sup>50)</sup>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51)</sup> 고차 지각 혹은 육구가 저차 지각들 혹은 육구들의 충돌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sup>52)</sup> 또한 페마이스터는 “어떠한 한 지각도 무한한 수의 그보다 작은 지각들로 구성된다 [composed]”<sup>53)</sup>고 말했다.

연속적인 지각들이 존재하지만, 또한 동시적인 지각들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전체에 대한 하나의 지각이 있을 때, 그와 동시에 그것의 실제 부분들에 대한 지각들도 존재하며, 심지어 각각의 부분들 역시 하나 이상의 변용[modification]을 갖는다. 각각의 변용들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분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갖는 하나의 지각이 존재한다. 비록 우리의 주의[attention]가 언제나 이러한 지각들을 완전히 분간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각들은, 그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든지 간에, 각각이 모두 다르다. 그리고 이것이 혼동된 지각들을 만드는 것이며, 각각의 구분되는 지각들은 그것들이 외부의 모든 것들과 맺는 관계 때문에 무한함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외부의 부분들의 구성물인 것은 오직 단자 내의 변용들의 구성물로써만 표상된다. (To Samuel Masson (on Body) AG 228-229)

이 구절은 어떠한 하나의 지각도 그보다 작은 무한한 지각들로부터 구성된다는 페마이스터의 주장을 확실히 뒷받침해준다. 이를 통해 어떠한 감각적 지각도 무한한 미세 지각들로부터 구성되며, 또한 어떠한 통각적 지각도 무한한 감각적 지각들로부터 구성된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통각적 지각도 무한한 미세 지각들로부터 구성된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낮은 차원의 지각이 높은 차원의 지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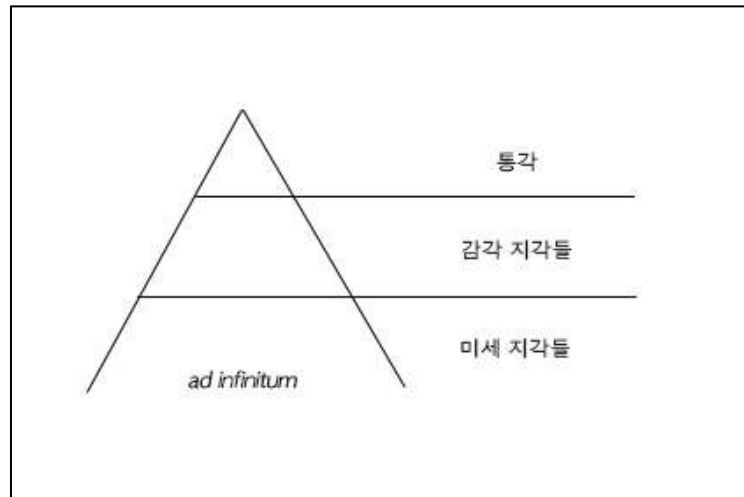
50) McRae(1978,60)

51) 여기서 맥래 역시 지각뿐만 아니라 육구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52) 물론 피지배단자들의 지각들이 정말로 충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자 간의 인과가 불가능하다는 라이프니츠의 기본적인 입장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피지배단자들을 지배하는 지배단자의 지각이 각각의 무한한 피지배단자들의 지각들을 표상하고, 이러한 지각들의 표상들끼리 충돌한다는 것이 옳은 입장이다. 즉, 고차원적인 지각은 저차원적인 지각들로부터 결과, 혹은 근거하여 발생한다.

53) Phemister(2005, 246)

에 대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모든 각각의 지각은 그보다 낮은 차원에 의존한다.<sup>54)</sup> 페마이스터는 이를 다음과 같은 피라미드 모형으로 표현했다.



(Phemister 2005, 247)

나는 페마이스터의 피라미드 모형이 상이한 지각들 간의 의존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은 사실도 아주 잘 보여준다. 이 전체 피라미드는 한 단자가 가지고 있는 지각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지배 단자라고 해보자. 그리고 나는 많은 통각적 지각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각각의 통각적 지각들은 많은 감각적 지각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통각적 지각들을 모두 모은다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감각적 지각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가령, 나는 나의 3번 갈비뼈의 감각적 지각들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이는 감각적 지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감각적 지각을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내 단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54) 나는 본 논문에서 여기서의 의존관계와 존재론적 의존 관계를 구분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한한 욕구들은 모두 파생적 욕구로써, 존재론적으로 선행하는 단일한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대해서는 V장 2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미세 지각을 감각할 수는 없다. 이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이다. 나의 지각의 총체는 세계를 보편 반영하고 있는데, 만약 내가 이를 모두 파악하거나 감각할 수 있다면, 나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거나 감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 따라서 나는 내 지배단자의 모든 미세 지각(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적 지각)을 파악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은 본 논문의 주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 이는 욕구에 대한 논의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다.

### 3. 의식적, 무의식적, 그리고 외부 욕구들

이제 우리의 원래 목적이었던 욕구의 종류와 구조를 살펴볼 차례이다. 앞서 말했듯이, 라이프니츠의 욕구 개념은 지각 개념과 상응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학자들은 욕구 역시 지각과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55)</sup>

우선 미세 지각과 상응하는 무한히 많은 미세 욕구들이 있을 것이다. 영혼이나 정신이 아닌 단순 단자들은 오직 이러한 미세 욕구들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자체로는 결코 감각될 수 없다. 이제 이러한 미세 욕구들이 충분히, 그리고 합목적적으로 모일 경우 우리가 ‘욕망(desire)’, 혹은 ‘감각적 욕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에 도달하게 된다. 감각적 지각과 마찬가지로 감각적 욕구 역시 개와 고양이 같이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지배 단자가 가질 수 있는 욕구이다. 동물의 지배 단자가 갖는 음식에 대한 욕구, 따뜻함에 대한 욕구 등이 이러한 감각적 욕구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감각적 욕구들이 충분히 모이면 이번에는 ‘의지적 욕구’ 혹은 단순히 ‘의지’라고 불릴만한 것에 도달하게 된다. 당연히 (적어도 현실세계에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지배 단자만이 이러한 의지적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의지적 욕구로는 카스 라이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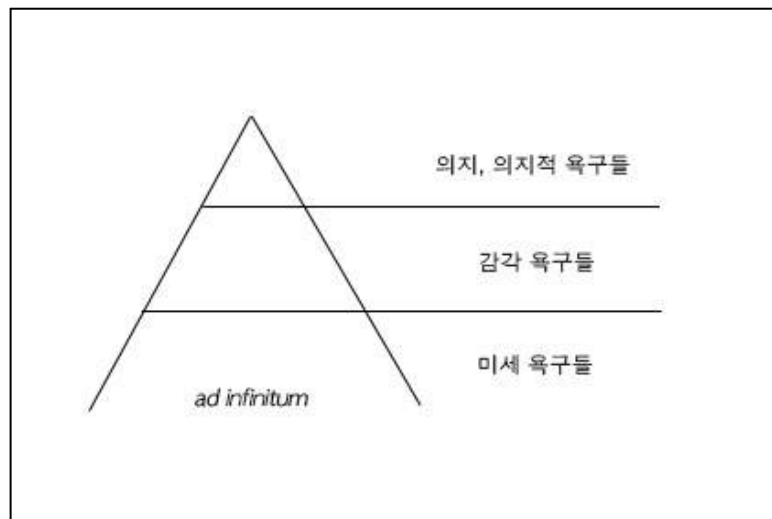
---

55) Phemister(2005, 247-251), Kulstad&Carlin(2013), McRae(1978, 56-63).



마시기로 하는 의사 결정이나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등 인간이 갖는 고차적인 욕구들이 해당될 것이다.<sup>56)</sup>

이제 욕구에 대해서도 지각과 마찬가지로 피라미드 모형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친절하게도 페마이스터는 이미 욕구에 대한 피라미드 모형 역시 제공해준 바 있다.



(Phemister 2005, 248)

이 그림 역시 상이한 욕구들 간의 의존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지각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욕구도 그보다 작은 무한히 많은 욕구들로부터 구성된다. 즉, 어떠한 감각적 욕구도 무한히 많은 미세 욕구들로부터 구성되고, 어떠한 의지적 욕구도 무한히 많은 의지적 욕구로부터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은 사실도 아주 잘 보여준다. 이 전체 피라미드는 한 단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지배 단자라고 해보자. 그리고 나는 많은 의지적 욕구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각각의 의지적 욕구들은 많은 감각적 욕구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의지적 욕구들을 모두 모은다고 해도 내가

56) 물론 지각과 마찬가지로 욕구 역시 단지 이 세 가지 등급이 아닌 무한한 등급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마찬가지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갖고 있는 모든 감각적 욕구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욕구는 한정되어 있다. 가령, 나는 나를 구성하는 합목적적인 기관 중 하나인 간이 가진 감각적 욕구를 뚜렷하게 파악할 수 없다.<sup>57)</sup> 이는 감각적 욕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나의 지배 단자가 가진 감각적 욕구들을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내 단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세 욕구를 감각할 수는 없다. 이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이다. 나의 욕구의 총체는 세계를 보편 반영하고 있는데, 만약 내가 이를 모두 파악하거나 감각할 수 있다면, 나는 세계의 모든 욕구들을 파악하거나 감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 따라서 나는 내 지배단자의 모든 미세 욕구(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적 욕구)를 파악할 수는 없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사실은 나의 해석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지배 단자 안에 의식적 욕구들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욕구들, 더 나아가 ‘나’라는 개체(혹은 그러한 표상)의 외부에 존재하는(혹은 그렇게 간주되는) 외부 세계의 욕구들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나의 지배 단자의 예를 들어보자. 나는 지금 석사 논문을 잘 쓰고 싶은 욕구, 어서 빨리 논문을 제출하고 싶은 욕구,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욕구 등의 고차원적인 의식적 욕구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욕구들은 이러한 의식적 욕구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러한 고차원적인 의식적 욕구로 취합되지 않는, 즉 의지적 욕구를 구성하지 않는 감각적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절에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의식, 혹은 자의식은 감각적 차원이 아니라 통각적, 의지적 차원에서만 발생한다. 따라서 나는 ‘나’라는 개체가 갖고는 있지만, 나에게 의식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무의식적 욕구들을 갖게 된다. 즉, 나에게는 무의식적 욕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라이프니츠가 프로이트보다 훨씬 먼저 무의식적 차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해석자들의 지적은 옳다. 그러나 라이프니츠가 파악한 무의식적 욕구가 정신분석학적 개념인 에로스나 타나토스로 파악될 필요는 없다. 물론 라

---

57) 물론 우리는 육체 피로, 시력 저하, 가슴 통증 등을 통해 간의 욕구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이프니츠 체계 내에서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설명 역시 충분히 수용될 수는 있겠지만, 라이프니츠의 무의식적 욕구는 오히려 우리가 뚜렷이 파악할 수는 없는 간이나 채장 같은 신체 기관의 욕구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나의 지배 단자는 나의 의식적 욕구들과 나의 무의식적 욕구들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나의 단자는 ‘나’라는 개체의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나 외부의 세계에 귀속되는 욕구들도 갖는다. 이는 보편 반영 논제를 욕구에도 적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존재하는 어떠한 단자도 세계의 모든 표상을 지각하듯이, 존재하는 어떠한 단자도 세계의 모든 욕구를(혹은 그러한 욕구의 표상을) 욕구한다.<sup>58)</sup> 다만 그것이 나의 의지나

---

58) 여기서 나는 보편 반영 논제를 지각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욕구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나 앞서 우리는 지각이 욕구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해석된다는, 혹은 되어야 한다는 페마이스터, 켈스터드&칼린, 맥래 등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만약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지각이 보편 반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욕구도 보편 반영된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아니며, 어느 정도의 논리적, 그리고 해석적 비약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내가 “외부 욕구”라고 부르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욕구의 보편 반영 논제’에 대해서 많은 반론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반론이 충분히 이해할만하고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욕구의 보편 반영 논제’를 충분히 정당화되지는 않았더라도, 고려해볼만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적 장치로 삼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만약 ‘욕구의 보편 반영 논제’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논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이를 대체할 다른 논제를 취해야 할 것이다. Bennett(2005, 150-3)과 Lawrenz(2010, 107-121)는 단자 내부에 행위자(agent)의 욕구와 그와 구별되는 또 다른 욕구, 즉 세계의 좋음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들의 입장이 가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위에서 내가 설명한 의식적 욕구와 무의식적 욕구는 행위자의 욕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외부욕구’라고 칭하는 것은 세계의 좋음을 추구하는 욕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기존의 해석적 분류를 따라간다는 점에서 안전한 노선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고 해도 욕구의 역학 해석의 기본적인 취지와 직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따라서 ‘욕구의 보편 반영 논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들은 이 논제를 이러한 기존의 해석적 입장으로 치환해서 읽더라도 나의 전체 논지를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기존의 입장을 취할 경우, 내가 VI장에서 설명할 욕구의 역학 해석을 통한 배일의 개 문제에 대한 해명은 아담스 식의 표준적 해석 해명과 궁극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질 것이다. 즉, 개가 두들겨 맞는 사태가 세계의 좋음에 대한 욕구 때문에 생겨났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표준적 해석이 말하는 바와 정확히 같다. 물론 나는

통각을 통해서도 결코 나라는 유기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뿐이다. 즉, 나의 단자는 나의 외부 세계의 것들로 여겨지는 욕구들도 욕구한다. 나는 이러한 욕구들을 “외부 욕구”라고 칭할 것이다.<sup>59)</sup> 단순 단자나 동물의 단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러한 단자들도 당연히 욕구를 하지만, 그들은 자의식이라는 것을 전혀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자들에게는 애초에 스스로의 욕구와 외부의 욕구 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단자 내에 외부의 욕구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다.<sup>60)</sup> 따라서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꿈에 비유해보자. 내가 꿈을 꿀 때, 나의 꿈속에는 나와 타인들, 그리고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안에서 꿈속의 나는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욕구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꿈속에서 나로 간주되는 대상이 나의 모든 지각과 욕구를 표상하지는 않는다. 꿈을 꾸는 주체인 나는 이 꿈 안에 있는 모든 대상들, 그리고 전체 세계의 지각과 욕구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우리는 그 꿈 안에서 나로 간주되는 대상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단순한 지각 혹은 경험으로부터 내가 의식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고 어떠한 증명도 없이 판단한다. 첫째로, 이것들은 다양한 것들에 대한 **나 자신의 생각**이고, 그리고 또한 존재하는 다양한 현상 혹은 외향들은 **나의 정신 안에 존재**한

---

이 경우에도 세계의 좋음에 대한 욕구와 그 개라는 행위자의 욕구가 충돌했지만, 세계의 좋음에 대한 욕구의 값이 훨씬 컸기 때문에 개가 두들겨 맞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좀 더 이 사태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설명은 카스라이트 등의 사례와 같은 설명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VI장에서의 관련 논의를 읽고 다시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9) 물론 이러한 외부 욕구들도 나의 의식을 통해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의식적인 욕구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를 개체 내부의 무의식적 욕구와 구분하기 위해 그냥 ‘외부 욕구’라고만 부를 것이다.

60) Bennett(2005, 150-3)과 Lawrenz(2010, 107-121)도 단자 내부에 행위자(agent)의 욕구와 그와 구별되는 또 다른 욕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들의 의견 역시 단자 내부에 주체의 욕구와 세계의 욕구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Distinguishing Real from Imaginary Phenomena, G, VII 319/L  
603; 강조는 나의 것)

이 구절은 나의 꿈 비유에 잘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라이프니츠에게 실제 현상과 상상적 현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의 내재적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른 장소와 시간들의 다른 현상들과의 정합성이라는 외재적 특징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sup>61)</sup> 따라서 만약 예정 조화를 통해 다른 단자들과의 일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단자 내부의 상태는 “잘 정돈된 꿈”<sup>62)</sup>과 다를 바 없으며, 각 단자는 그 단자 안에 주어진 것, 즉 자신의 힘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다.<sup>63)</sup>

또한 꿈과의 비유는 (R)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일치한다. 나의 지배 단자 a의 예를 들어보자. 내 지배 단자 a는 (R)에 따라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단자들을 표상한다. 그러나 물론 나는 단자 자체를 지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자들의 집적체들의 혼돈된 표상, 즉 물체들을 지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체들 가운데는 당연히 나 자신에 대한 표상, 즉 a와 a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단자들의 집적체의 표상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a는 자신의 지각 안에 나의 표상을 갖는다. 그리고 a와 a가 갖는 나의 표상 간에는 긴밀한 연결관계가 성립한다. 우리가 예시에서 a는 인간의 지배단자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a는 자의식과 의지적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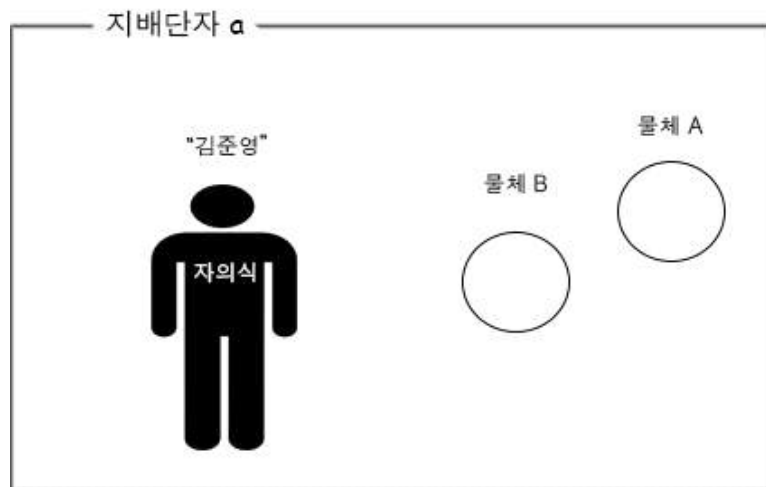
---

61) McRae(1978, 25)

62) *loc. cit.*

63) 나의 입장은 또한 Garber(2009, 364)가 “무한한 단자들의 공통된 꿈”이라고 칭하는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그에 따르면 라이프니츠는 단자를 통해 물체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가능한 설명방식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한한 단자들의 공통된 꿈 설명이다. 즉, 세계에 존재하는 무한한 단자들 각각이 자신의 내부에서 일종의 꿈과 같은 지각상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물체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라이프니츠의 물체 설명 중 가장 정합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어지는 V장을 통해 이 입장이 설명적으로 상당히 유용하다는 점을 최대한 피력할 것이다. 지금은 일단 이러한 입장이 라이프니츠가 정말로 고려하고 있었던 입장 중 하나이며, Garber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에 대한 Garber의 설명은 Garber(2009)의 9장 참조.

등을 갖는다. 그런데 a는 (R)에 따라 세계 전체를 표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a는 세계 전체에 대해서 자의식을 갖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페마이스터의 피라미드 모형이 보여주듯이, 내가 자의식과 의지를 갖는 부분은 전체 지각과 욕구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즉, 자의식과 의지가 있는 단자의 경우에도 의식이 단자의 지각과 욕구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단자들의 자의식과 의지는 그 자신의 표상이 그 물체의 표상 안에 포함된 그러한 부분, 그리고 오직 그 부분에만 적용된다. 즉, 위 예에서 a의 자의식과 의지는 오직 “김준영”이란 개체에게만 적용된다.



물론 “김준영”이라는 개체에게 귀속되지만, a의 의식을 통해서는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는 그러한 욕구도 존재한다. 앞에서 내가 말한 무의식적 욕구가 이러한 욕구들이다. 그리고 (R)에 따라 a는 “김준영”이라는 개체 말고도 다른 많은 물체들을 표상하고 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모든 것은 단자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단자는 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들 역시 욕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a는 “김준영”이라는 개체 이외의 다른 물체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자신의 의지적 욕구나 감각적 욕구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때 이러한 “김준영” 이외의 물체들이 갖는 욕구들을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외부 욕구라

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IV장의 결론을 염두에 두고 V장의 논의로 넘어가보도록 하자.

## V. 단자 내 세계 구성 :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의 관계

앞선 IV장에서 우리는 욕구의 무한함과 그 구조에 대해서 살펴왔다. 이번에는 나의 해석에 제기되는 또 다른 중요한 물음, 즉 “욕구의 역학 해석에서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차례이다. 아담스, 이석재 등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단자의 욕구를 곧 단자의 힘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나는 우선 나의 해석에서 이 두 힘이 존재론적 의존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 두 힘의 관계에 대한 라이프니츠 자신의 기록을 고려할 때, 이들이 존재론적 의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명료한 해석인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꽤 많은 수의 유력한 해석자들도 이들을 존재론적 의존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나의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의 해석은 중요한 지점에서 기존의 해석자들과 크게 갈라진다. 기존의 학자들은 파생적 힘을 원초적 힘, 즉 계열의 법칙의 한 순간적[momentary] 부분으로 파악한다. 연속하는 상태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원초적 힘이라면, 그 순간순간의 상태들이 곧 파생적 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기존의 해석은 라이프니츠의 생각을 올바르게 포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II장에서 살펴본 이석재의 반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파생적 힘이 단지 원초적 힘의 순간적 부분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변용들으로써 원초적 힘에 의존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동적 힘에 대한 논의도 고려함으로써, 한 단자 내부의 세계, 즉 한 단자의 세계 표상이 그 단자의 수동적/능동적 힘으로 구성된다는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 1. 존재론적 의존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의 관계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라이프니츠가 이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라이프니츠는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에 대해서 비교적 여러번 언급을 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파생적 힘은 ...(중략)...사물이 아니라 현상이다”(LDV, AG 184 fn.). 그리고 이것은 또한 “원초적 힘의 제한 [limitation]으로부터 결과 되는 것이다.”(*A Specimen of Dynamics*, AG 119) 이러한 언급들은 파생적 힘이 원초적인, 즉 근본적인 무언가라기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즉 그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어떤 것이라는 점을 암시해준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무언가는 다름 아닌 바로 원초적 힘이다. 실제로 라이프니츠는 파생적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할 때, 주로 원초적 힘과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이를 설명한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파생적 힘은 원초적 힘의 “변용들 [modifications]”(LDV, AG 176)이며, “사라지는[vanishing] 변용들”(LDV, AG 176)이며, “제한”(LDV, AG 180)이며, “결과물[resultants]”(LDV, AG 176)이며, “결과 되는[result from] 것”(A Specimen of Dynamics, AG 119; LDV, AG 176)이다. 나는 이러한 언급들이 모두 라이프니츠가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선 존재론적 의존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존재론적 의존 관계는 형이상학적인 관계 중 하나으로써, 최근의 영미권 형이상학 연구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개념 중 하나이다. 그러나 물론 이 개념이 최근에서야 생겨난 것은 아니라 서양 철학 전통에서 줄곧 사용되어 왔으며, 따라서 우리도 어느 정도의 직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규범적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에 의존한다,” “심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에 의존한다,” “전체는 부분에 의존한다”와 같은 문장을 들었을 때 이 문장들이 대충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존재론적 의존 관계는 우리가 이러한 문장들을 통해 이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다. 거칠게 이야기해서, ‘A가 B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만약 B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A도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sup>64)</sup> 즉, 존재론적으로 우선하는 것에 의존적으로 그것의 존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존재론적 결정[ontological determination] 관계,” “비인과적 연결[Noncausal Connections]”<sup>65)</sup>관계 등으로 불리다가 최근에는 ‘존재론적 의존’ 혹은 ‘형이상학적 근거[metaphysical grounding]’ 관계로 명칭이 어느 정도 굳어진 상태이다. 트로고돈[K. Trogon]은 여러 학자들의 용법을 비교한 뒤, 형이상학적 근거 관계는 사실과 사실이 맺는 관계, 존재론적 의존 관계는 대상과 대상이 맺는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sup>66)</sup> 나는 이러한 용법에 따라 원초적 힘과 파생적 힘의 관계를 일관적으로 ‘존재론적 의존 관계’라고 부를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 체계 내에서도 존재론적 의존 개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몇몇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다. IV장에서 말한 것처럼 라이프니츠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각이나 욕구는 모두 무한한 지각 혹은 욕구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결과”로써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I 장에서는 라이프니츠가 관찰 가능한 일상적인 사물들이 모두 가장 근본적인 실체인 단자들로부터 구성된다는 것을 살펴봤다. 파생적 힘, 통각, 일상적인 사물들이 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하는 점을 주목해보자. 라이프니츠는 ‘결과’라는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64) 이러한 규정은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K. Fine(1995) 같은 철학자는 이러한 정식화를 완전히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목적은 존재론적 의존 관계에 대한 올바른 정식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다. 존재론적 의존 관계를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한 관련된 개념들, 즉 수반, 양상, 진리확정자[truth-maker] 등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 많은 철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된 논문모음집으로는 Correia&Schnieder(2014)를 참조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존재론적 의존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만을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65) Kim(1974)

66) Trogon(2013, 103)

나는 무언가가 결과된다는 것을, 그것을 결과하는 것들이 상정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VE 415)

이에 대해 러더포드는 “이 정의를 통해 볼 때 결과하는 것이 물리적 혹은 인과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대신 존재론적 결정의 관계로 잘 이해될 수 있다. 주어진 존재자가 특정한 다른 존재자로부터 ‘결과’된다는 것은 그것의 존재가 그보다 우선적인 존재자들의 존재로부터 즉각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sup>67)</sup>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러더포드의 해석은 라이프니츠가 ‘결과’를 통해 의미하는 바가 결국 존재론적 결정, 즉 존재론적 의존 관계로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그렇다면,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라이프니츠의 언급은 곧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변용에 대한 다음의 구절도 살펴보자.

모든 변용들은 영속적인[permanent] 어떤 것을 선제한다. 그래서 당신이 “물체들 안에 파생적 힘들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러한 가정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한다.(L 530)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변용이 그 자체로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오직 그보다 근본적인 존재자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변용의 한 사례인 파생적 힘 역시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변용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존재론적 의존 관계로 아주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실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이 존재론적 의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이다. 맥더너는 최근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67) Rutherford(1995b, 149)

라이프니츠의 원초적 힘이 물리학에 관계된 힘에 대한 가지적인 형이상학적 근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능동적인 파생적 힘들은 능동적인 원초적 힘들로부터 근거되고 수동적인 파생적 힘들은 수동적인 원초적 힘들로부터 근거된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sup>68)</sup>

러더포드의 말처럼 파생적 힘과 능동적 힘이 존재론적 의존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 해석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페마이스터 역시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파생적 힘들은 원초적인 힘들로부터 형이상학적으로 근거된다고 말했으며,<sup>69)</sup> 칼린 같은 경우 이 두 힘들의 관계는 본질적인[essential] 것과 우연적인[accidental] 것 간의 전통적인 구분에 상응한다고 말했다.<sup>70)71)</sup>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 모두 우리가 존재론적 의존 관계라고 부르는 개념을 말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살펴본 것처럼 양자를 존재론적 의존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인 해석이며, 여러 철학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 견해가 라이프니츠 자신의 옳은 견해일 확률은 높아 보인다.

---

68) McDonough(2014)

69) Phemister(2005,189)

70) Carlin(2004, 369)

71) 여기서 “전통적인 구분”이라고 칼린이 칭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구분인 것으로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하게 여긴 개념 중 하나인 ‘우선성[priority]’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존재론적 의존 관계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선성 개념은 또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M. Peramatzis(2008, 189)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선성, 혹은 존재론적 우선성 개념이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IB) A는 B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선한다 iff A는 B가 무엇인지와 독립적으로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러한 것일 수 있으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A is ontologically prior to B iff A can be what it essentially is independently of B being what it is, but not vice versa.]

이러한 (PIB)로 비추어볼 때, 전통적인 본질/우연 구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존재론적 의존 관계로 이해될 여지는 충분히 보인다.

## 2. 파생적 힘은 순간적 부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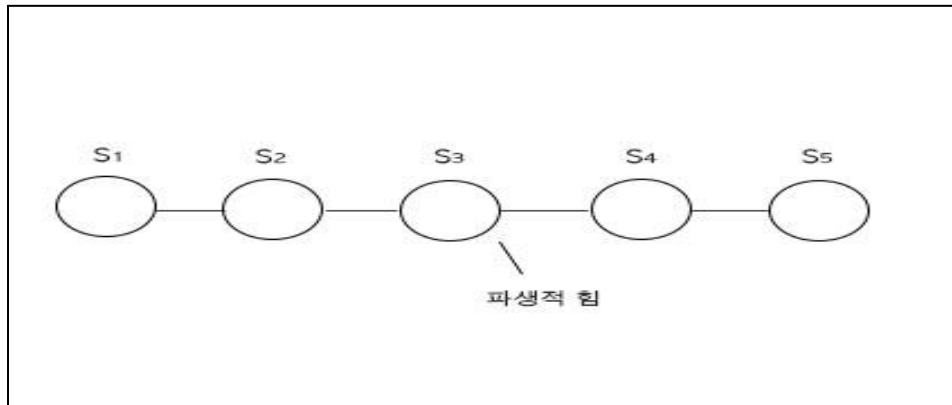
우리는 앞에서 파생적 힘을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으로 우리는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의 관계를 해명해낸 것인가? 아니다. 이것은 해석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석을 이제 막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에 *어떠한 방식으로* 의존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살펴본 바가 없기 때문이다. 2절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변용’이라는 용어가 뜻하는 바를 살펴보자. 위에서 살펴봤듯이 라이프니츠는 파생적 힘이 일종의 변용, 혹은 제한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변용’과 ‘제한’을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모양이 외연에 대하여 그러하듯이, 파생적 힘들을 그들의 토대에 대한 변용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중략].... 모양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제한이다. (AG 180)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라이프니츠는 파생적 힘과 그것의 토대, 즉 원초적 힘의 관계가 모양과 외연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모양과 외연의 관계는 변용, 혹은 제한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때 모양이 외연의 제한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외연 그 자체는 수없이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때 특정한 모양이 그려지면, 이제 그 수많은 가능성 중 몇몇은 제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에 어떻게 의존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견해를 살펴보자. 이들의 관계에 대한 가장 유력한 의견은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에 순간적[momentary] 부분으로 의존해 있다는 것이다. 즉, 계열의 법칙 그 자체인 원초적 힘 중에서 각각의 계열 상태들이 파생적 힘이라는 것이다.



II장에서 살펴본 바 있는 다음의 구절은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의 순간적 부분으로 의존한다는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파생적 힘은 현재 상태 그 자체로서, 다음 상태를 향하는 것, 즉 현재의 모든 것이 미래의 것들을 모두 잉태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상태를 미리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속하는 것 그 자체는, 그것이 모든 경우들을 포함하는 한에서, 원초적 힘을 가지며, 이 원초적 힘은 계열의 법칙과 같으며, 파생적 힘은 이 계열 안에 어떤 단계를 지시하는[designates] 결정[determination]과 같은 것이다. (LDV 287)

이 구절을 아담스가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 즉 계열의 법칙의 특정 시점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의 구절도 살펴보자.

운동 안에는, 변화를 향해 충동하는 힘 안에 존재해야 하는 순간적인 상태 외에는 어떤 실재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AG 118/논고 170)

러더포드는 이 구절에서 ‘순간적인 상태’가 지칭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파생적 힘이라고 해석한다.<sup>72)</sup> 동역학 시범에서 라이프니츠가 물리학에서

<sup>72)</sup> Rutherford(1995, 245)

다루는 힘은 원초적 힘이 아니라 파생적 힘이라고 한 점, 그리고 파생적 힘이 그보다 실재적인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러더포드의 해석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우리는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의 순간적 부분, 혹은 순간적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들을 바탕으로 아담스, 러더포드, 페마이스터 등은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의 순간적 부분이라는 해석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다.<sup>73)74)</sup>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러한 이해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만약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의 계열 안의 한 순간적 부분이라면, 그리고 욕구가 곧 힘이라면, 어떻게 욕구가 실패하는 것이 가능한가? 계열 안의 한 순간적 부분은 반드시 다음 사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것이 다음 사태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태일 수 없다. 따라서 원초적 힘의 순간적 부분인 파생적 힘은 다음 사태를 반드시 야기할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해석은 II장에서 살펴본 표준적 해석에 대한 이석재의 반론을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먼저 나열해보자. 우리는 단자의 욕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이는 너무나 당연하고 라이프니츠가 이를 직접 언급한 구절도 너무나 많다. 또한 우리는 단자의 욕구가 곧 단자의 힘이라는 것도 양보할 수 없다. 적어도 단자론적 현상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는 것 역시 양보할 수 없다. 1절의 논의는 라이프니츠가 양자를 존재론적 의존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지지해주는 것 같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남는가? 그렇다. 우리는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에 *순간적 부분으로서* 의존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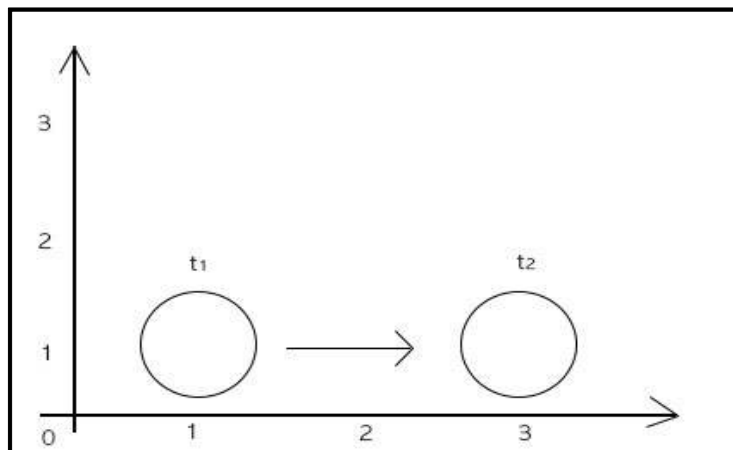
73) Adams(1994, 289), Bennett(2005,138-9), Rutherford(1995, 245;2005, 161-166), Carlin(2004, 370), Phemister(2005, 194-196).

74) 이 중 아담스의 경우 다른 학자들과 달리,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의 순간적 부분과 같다는 입장을 취하기는 하지만, 양자가 존재론적 의존 관계라고 파악하지는 않는다. 아담스가 이들의 형이상학적 관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아 보인다.

것을 거부해야 한다.

눈치가 빠른 독자라면 이미 나의 전략을 눈치 챘을 것이다. 그렇다. 파생적 힘은 단지 원초적 힘의 순간적 부분인 것이 아니라, 같은 순간적 부분 내에서도 다양한 복수의 파생적 힘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IV장에서 살펴봤듯이, 단자의 욕구는 한 시점 내에서도 무한히 다양하고 무한히 많다. 그렇다면, 단자의 욕구는 즉 단자의 힘이기에 때문에 단자의 힘 역시 무한히 많아야 한다. 그런데 당연히 단자 그 자체와 동일시되는 원초적 힘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파생적 힘들이 무한히 많을 것이다. 파생적 힘을 단지 순간적 부분으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IV장을 통해 충분히 살펴본 욕구, 즉 힘의 무한성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담스 등의 방식으로 파생적 힘을 해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색하다. 예컨대, 한 단자 a가 어떤 물체 O를, 그리고 오직 O만을 표상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물체 O가 시점 t1에서 시점 t2로 전환될 때 오른쪽으로 2만큼 움직였다고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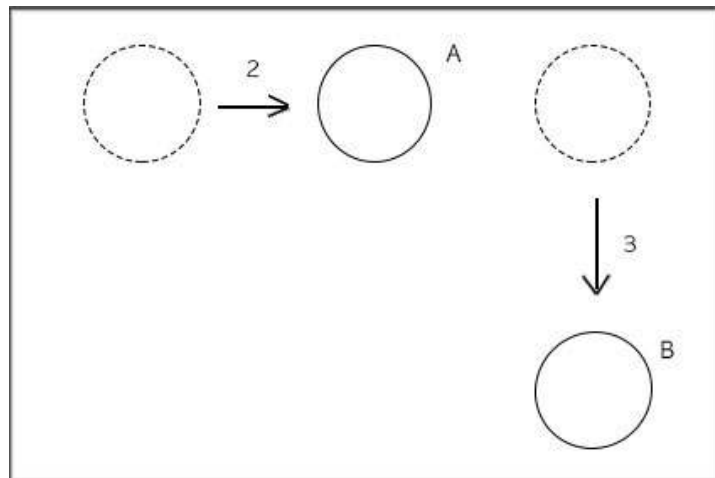


이 경우 아담스 등의 해석에 따르면 t1 시점에서 t2 시점으로 전환될 때 단자 a가 파악하는 O의 파생적 힘은 단지 “오른쪽으로 2만큼의 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오른쪽으로 4힘과 왼쪽으로 2의 힘”, 혹은 “오른쪽으로 2의 힘, 위로 2의 힘, 아래로 2



의 힘” 등등... 무한히 많은 파생적 힘으로 나뉠 수 있다. 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파생적 힘을 단지 특정 시점의 단일 상태로 보는 것은 전혀 직관적이지 않다. 물체가 오른쪽으로 2만큼 이동하는 상태는 다양한 힘들의 역학적 관계를 통해 야기된 것이고, 이 역학적 관계의 가능한 수는 무한히 많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어떤 단자 a의 지각 안에 두 물체 A,B가, 그리고 오직 A,B만이 있다고 해보자. t1에서 t2로 전환될 때 A는 오른쪽으로 2만큼 움직이고 B는 아래로 3만큼 움직였다.



그렇다면 t1 시점에서 t2 시점으로 전환될 때 a의 파생적 힘은 “A가 오른쪽으로 2만큼 그리고 B가 아래로 3만큼의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파생적 힘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어색하지 않은가? 만약 우리가 동일한 시점에서 복수의 파생적 힘들을 상정한다면 이러한 어색함을 해소할 수 있다. 즉, a 안에 있는 A의 표상이 가진 파생적 힘과 B의 표상이 가진 파생적 힘을 구분한다면 어떠한 설명적 어려움도 제기되지 않는다. 물론 이때 A의 표상이 가진 파생적 힘과 B의 표상이 가진 파생적 힘은 모두 a의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단자 a의 하나의 단일한 원초적 힘으로부터 복수의 파생적 힘들이 말 그대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파생된 힘들을 통해 하나의 단자 내에서

도 충분히 역학적인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만 우리는 말 그대로 “물리학이 역학을 통해 형이상학에 귀속된다”(AG 255)<sup>75)</sup>고 말할 수 있다. 아담스는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의 관계에 대한 해명이 라이프니츠의 역학과 형이상학 간의 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sup>76)</sup> 그러나 아담스 등의 해석이 어떠한 방식으로 물리학-역학-형이상학의 설명적 정초 관계를 해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는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도 단자 내 복수의 파생적 힘을 상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아래의 구절 역시 나의 해석을 지지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전체에 대한 하나의 지각이 있을 때, 그와 동시의 그것의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각들도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지각들이 있지만, 또한 동시적인 지각들도 있다. 심지어 그 부분들 각각들 역시 하나 이상의 변용을 갖는다.(letter to Masson, AG 229)

이 구절은 지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IV장에서 지각에 대한 설명이 욕구에 대한 설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을 욕구, 즉 힘에 대한 설명으로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 즉, 각각의 단자는 세계 전체에 해당하는 하나의 힘을 갖는다. 이것은 당연히 원초적 힘이다. 그리고 각각의 단자는 그것, 즉 세계의 부분들에 대한 힘들도 갖는다. 이때 세계의 부분들의 힘들은 바로 파생적 힘들이다. 위의 예를 적용해본다면, A(의 표상)의 힘과 B(의 표상)의 힘이 곧 파생적 힘인 것이다. 물론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 A와 B 같은 물체는 부분이 없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의 부분을 이루는 것들도 모두 그에 해당하는 파생적 힘을 가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

75) 라이프니츠가 물리학과 역학을 구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 라이프니츠는 형이상학적으로 힘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반면, 물리학 등 개별 과학에 대해서는 도구주의(instrumentalism)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 두 주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할 수 있을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 다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

76) Adams(1994, 378)

부분들 각각 역시 하나 이상의 파생적 힘들을 가질 수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위에서 살펴본 O가 부분이 없는 실체라고 해보자. 그런 경우에도 O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파생적 힘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즈음에서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IV장에서 나는 감각적 욕구나 의지적 욕구들이 무한한 미세 욕구들로부터 결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감각적 욕구나 의지적 욕구들은 미세 욕구들로부터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V장에서는 다시 파생적 힘, 즉 파생적 욕구들이 모두 하나의 원초적 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의존 관계는 정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일단 한 단자가 가지고 있는 힘 중 가장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원초적 힘이다. 계속 강조하듯이 파생적 힘들은 모두 이러한 원초적 힘들의 변용이다. 그렇다면, 미세 욕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단 다음을 생각해보자. 라이프니츠 철학에서 모든 단자들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R)에 따라 조화로운 세계에서 각각의 단자는 세계의 다른 단자들을 모두 자신의 내부에 표상한다. 그렇다면, 각각의 단자들은 자신의 내부에, 다른 단자들의 힘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미세 욕구들, 즉 미세한 힘들이 이 각각의 단자들의 힘들을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77)</sup> 즉, 이들은 외부세계의 다른 단자들의 힘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자의 내부적 차원에서 이 표상들은 모두 원초적 힘에 대한 변용, 즉 그 단자의 파생적 힘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들은 우리에게 감각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유의미한 파생적 힘들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생할

---

77)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페마이스터의 피라미드 모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각각의 미세 욕구들은 다 그보다 작은 미세 욕구들로 무한히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존재론적 차원에서 단자는 더 이상 나뉘질 수 없는 힘의 최소 단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양자가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즉, 어떠한 미세 힘도 개별 단자가 아닌 무한히 많은 단자들의 집적체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각각의 단자가 자신의 내부에서 세계의 모든 단자들의 힘들을 표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해석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A나 B와 같이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정도의 물체의 수준에 도달하면, 우리는 이 각각에 대해 파생적 힘들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단순히 감각되는 수준의 파생적 힘들이 충분히 모이면 좀 더 상위의 파생적 힘이 구성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즉, 지각과 욕구와 마찬가지로 파생적 힘 역시 무한히 많으며, 또한 다양한 등급으로 나뉠 수 있다.<sup>78)</sup>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모두 하나의 단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잊지 말아야 한다. 무한히 많고 다양한 파생적 힘들은 모두 단자 a가 갖고 있는, 혹은 a 그 자체와 동일시되는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해 있는 것이다.

### 3. 파생적 힘을 통한 단자 내부의 세계 구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자의 파생적 힘은 단지 순간적 부분이 아니다. 순간적 부분 안에서도 무한히 많은 파생적 힘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파생적 힘들은 역학적 관계를 통해 다음 사태를 유발시킨다. 그러나 이 파생적 힘들은 결국 모두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즉, 원초적 힘없이 파생적 힘들만 존재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단자의 힘은 하나(원초적 힘)이면서 동시에 다수(파생적 힘들)인 것이다. 이제 단자의 힘은 곧 단자의 욕구라는 명제를 다시 도입하면 우리는 다음의 명제를 얻을 수 있다: 단자의 욕구는 하나(원초적 힘으로서의 욕구)이면서 동시에 다수(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들)이다. 따라서 단자에게 두 가지 상이한 종류의 힘이 있다는 이석재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옳다.<sup>79)</sup> 그러나 양자의 존재론적 관계는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후자가 전자에 존재론적으로 의존적

78) Phemister(2005, 253) 역시 욕구, 지각과 마찬가지로 물체에 대해서도 ‘감각할 수 없는 부분들의 움직임’, ‘감각할 수 있는 부분의 움직임’, ‘자율적 움직임’ 등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나의 설명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페마이스터는 단자 이외에도 물질적 실체[corporeal substance]라는 독립적 실체를 인정하는 물질적 실체론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설명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79) 물론 2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파생적 힘들 역시 다양한 등급으로 나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인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인 욕구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만으로도 거의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라이프니츠 형이상학 전체에 대한 좀 더 나은 조망을 위해서, 특히 IV장에서 언급한 단자 내부의 세계 구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동적 힘[passive force]에 대해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상 수동적 힘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해왔지만, 사실 라이프니츠 형이상학에서 수동적 힘은 능동적 힘만큼이나 중요하다.<sup>80)</sup>

*마찬가지* 방식으로 수동적 힘도 두 가지 종류이다, 즉 원초적이거나 파생적이다. 그리고 수동적 또는 저항의 원초적 힘은, 우리가 그 표현을 올바르게 해석하기만 한다면, 스콜라 철학에서 흔히 제1질료라 불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동적인 원초적 힘을 통하여 한 물체는 다른 물체에 의하여 침투당하지 않게 되고, 그에게 억제력이 부여되며, 동시에, 말하자면 일종의 관성, 즉 운동에 대한 저항을 가져서, 그것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작용하는 물체의 힘이 어느 정도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로부터 나중에 다양한 방식으로 수동의 파생적 힘이 제2질료 안에서 나타난다. (AG 119-120/논고 175; 강조는 나의 것.)

위 인용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수동적 힘 역시 능동적 힘과 마찬가지로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에서 힘은 능동적 원초적 힘/능동적 파생적 힘과 수동적 원초적 힘/수동적 파생적 힘의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둘째, 능동적 힘과 달리 수동적 힘은 물체에 외연, 불가침투성, 저항성, 관성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물체에게 일종의 물체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용어를 따르자면, 능동적 힘은 실체적 형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수동적 힘은 질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

80) 우리는 사실상 지금까지 ‘힘’으로 능동적 힘을 의미해왔다.

이제 이러한 수동적 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자. 우선 위 구절에서 라이프니츠가 수동적 힘이 능동적 힘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수동적 힘의 경우에도 수동적 파생적 힘이 수동적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81)</sup> 뿐만 아니라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에 대한 변용, 혹은 제한으로서 의존한다는 점 역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순간적 부분 내에서도 다양한 변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파생적 수동적 힘은 그래서 물체의 불가침투성과 관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힘이다. 이것은 다른 물체들의 파생적 능동적 힘과 균형을 맞추는 저항적 힘이다. 파생적 능동적 힘과 파생적 수동적 힘은 함께 ‘그것을 통해 물체들이 실제로 서로서로 작용하는 혹은 서로서로 작용받는’(AG 120) 그러한 힘을 구성한다. 능동적 힘과 수동적 힘 모두 요구된다. 더욱이, 모든 물체들은 움직이거나 저항하는 것으로 가정되며, 어떠한 것도 절대적인 정지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힘은 계속 동일하게 가정된다.<sup>82)</sup>

위 구절에서 페마이스터 역시 능동적 파생적 힘에 균형을 맞추는 수동적 파생적 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수동적 파생적 힘도 능동적 파생적 힘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동적 힘의 변용은 정확히 어떻게 설명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나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어떤 단자 a가 두 물체 A와 B를 지각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단자 a의 지각 안에는 A와 B의 표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표상들은 당연히 불가침투성, 저항성, 관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단자 a의 수동적 원초적 힘을 이 단자가 지각하고 있는 전체, 즉 전체 지각의 외연으로 놓자.<sup>83)84)</sup>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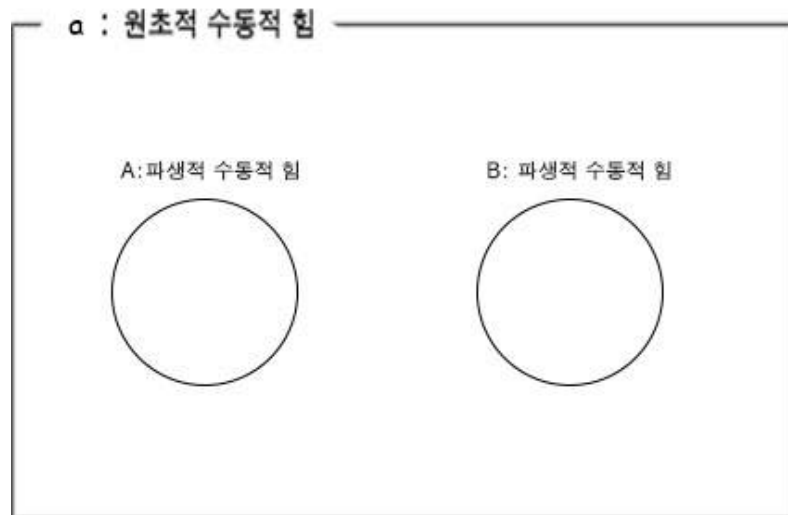
81) 이러한 사실은 이미 V장 1절의 러더포드의 인용문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

82) Phemister(2005, 203)

83) 물론 수동적 힘은 단지 외연인 것이 아니라 불가침투성, 관성, 저항성 등을 모두 제공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니츠에게 단자란 지각과 욕구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단자는 곧 그 단자의 원초적 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가정은 상당히 자연스럽다. 이제 우리는 단자의 지각 전체 외연으로부터 A와 B의 외연을 말 그대로 “제한”해낼 수 있다. 이는 라이프니츠가 외연의 예를 통해 변용을 설명한 것과 완전히 마찬가지로의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자 a가 가진 원초적 힘들을 변용한 파생적 수동적 힘과 파생적 능동적 힘들을 통해 단자 a 내부에 외부 세계의 표상, 즉 우리가 속한 세계를 완전히 구성해내는 것이다.

즉, 내가 제안한 그림에 따르면 단자는 그 단자의 파생적 힘들을 통해 구성된 자신의 내부에 세계를 완전히 구성해낸다. 수동적 파생적 힘들이 세계의 물체성을 구현하고 나면, 그 각각의 물체들은 능동적 파생적 힘들을 통해 힘들을 부여 받는 것이다. 즉 아래의 그림과 같은 구성이 가능하다.



수동적 파생적 힘들이 A와 B와 A,B 이외의 다른 세계의 모습을 구현해 내면, 능동적 파생적 힘들은 A와 B와 A,B 이외의 다른 세계 각각에 대

---

84)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은 원초적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원초적 힘에 대한 순간적 변용, 즉 파생적 힘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를 원초적 힘으로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 파생적 힘들은 모두 원초적 힘의 변용이므로, 파생적 힘들의 총합은 원초적 힘과 정확히 같다. 즉, A와 B와 A,B 이외의 다른 세계의 모양을 합친 것이 전체 외연과 정확히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각각에 부여된 능동적 파생적 힘들의 총합도 단자 a의 능동적 원초적 힘의 값과 정확히 같아야 한다. 나는 이러한 제안을 따를 경우,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과 역학, 혹은 물리학 간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sup>85)</sup>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우리는 IV장 말미에서 단자가 의식적 욕구와 무의식적 욕구뿐만 아니라 외부 욕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단자가 외부의 욕구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그리 쉬운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단자가 힘을 통해 자신의 내부에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좀 더 나은 설명을 제시할 수

---

85) 본 논문은 어디까지나 욕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통해 어떠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자. 라이프니츠가 데카르트적 운동학을 반박하고 자신의 역학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Gale(1988)은 나의 논의 주제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힘의 보존 법칙을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 체계 내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러한 그의 역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힘의 총량 보존 법칙이다. 위에서 페마이스터도 이야기하듯이, 라이프니츠는 세계에 있는 힘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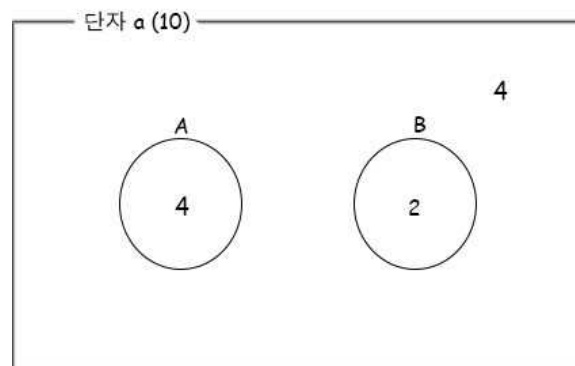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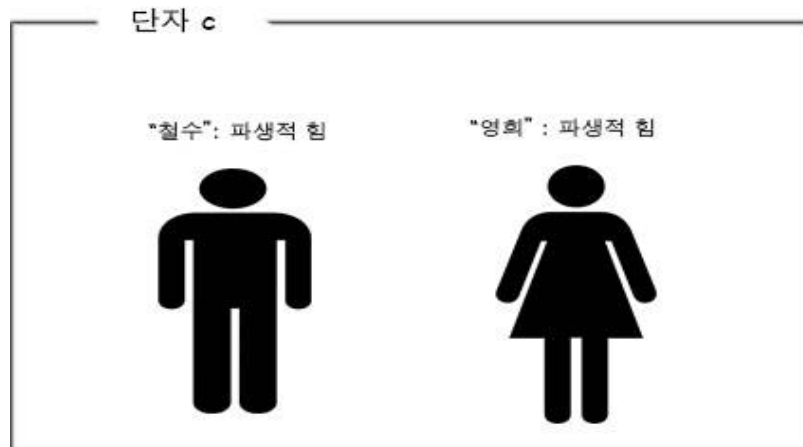
주어진 한 물체 내의 파생적 힘이 같은 양으로 보존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많은 것들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간에 그 총량은 그대로 남아 있다.(AG 253)

이러한 주장이 형이상학적 맥락이 아니라 물리 과학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 즉 단자론과 힘 보존 법칙은 도대체 어떻게 연관되는가? 나는 단자론이 세계의 힘의 총량이 보존되는 반면 개별 물체들의 힘들은 보존되지 않는다는 주장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이유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단자 내부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자는 자신의 원초적 힘을 변용한 파생적 힘들을 통해서 세계를 구성한다. 이때 원초적 힘의 양이 10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아래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파생적 힘들의 양이 나뉘질 수 있을 것이다.



있다. 철수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철수의 지배 단자 c는 자신의 원초적 힘을 통해서 철수가 관찰하는 세계를 구성할 것이다. 즉, 다음의 그림과 같은 상황이 구성된다.



파생적 힘들은 결국 원초적 힘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파생적 힘들의 총량이 원초적 힘을 넘어설 수 없다. 즉, 원초적 힘이 10이므로 파생적 힘들의 총합 역시 10이어야 한다. 물론 이때 파생적 힘들의 양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A의 힘은 5가 될 수도 있고, B의 힘도 1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총합이 원초적 힘의 값과 같아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 원초적 힘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만약 다음 시점에서 원초적 힘의 값이 13으로 늘어난다면, 원인을 갖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따라서 PSR을 어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힘의 보존 법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 어떠한 단자도 세계의 모습을 보편 반영하고 있고, 또한 원초적 힘은 변용을 통해서 세계의 모습을 단자 내부에서 구현하고 있고, 또한 원초적 힘은 보존될 수밖에 없고, 또한 파생적 힘들은 모두 결국 원초적 힘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생적 힘의 총합은 원초적 힘과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물체들이 갖는 힘들은 보존되지 않는 반면 세계의 힘의 총량은 보존된다. Q.E.D.

파생적 수동적 힘과 파생적 능동적 힘을 통해 자신의 내부에 철수뿐만 아니라 영희도 구성해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영희(혹은 그녀의 표상)은 그 나름대로의 욕구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영희(혹은 그녀의 표상)의 욕구는 결국 철수 지배단자  $c$ 의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c$ 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단자의 내부에 구성된 세계의 여러 욕구들, 그리고 힘들의 작용은 결국 나 자신의 원초적 힘에 의해 모두 의존해 있다는 것이다.<sup>86)</sup>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시 되짚어보자. 나는 이 V장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말해왔다. 일단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해 있음을 주장했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바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 다음으로 나는 이 파생적 힘이 순간적 부분으로 원초적 힘에 의존한다는 기존의 해석에 반하여, 같은 순간적 부분 내에서도 다양한 파생적 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은 III, IV장에서 내가 펼친 주장과 정합적이며, 사실상 V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나는 파생적 힘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단자가 지각하는 세계가 그 단자의 수동적 힘과 능동적 힘을 통해 구성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이제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욕구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VI장에서는 이를 통해 라이프니츠의 욕구 이론을 구성하고, 이 이론이 다양한 심리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

86) 물론 이 설명을 통해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영희(혹은 영희의 표상)의 욕구가 철수의 지배단자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해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반직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면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그나마 직관적인 설명을 제공하려고 했다는 것이 라이프니츠의 의도였다는 것을 VI장의 자발성/수의성 논의를 통해 좀 더 설명할 것이다.

## VI. 욕구의 역학과 가능한 반론들

나는 III장에서 라이프니츠의 욕구에 대한 이석재의 해석에 반론을 제기하고, “욕구의 역학”이라는 대안적 해석을 제시했다. 나의 대안적 해석은 단자론 15절은 물론 NE의 여러 구절들도 직관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III장에서 제시한 욕구의 역학은 몇 가지 중요한 물음들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불충분했다. 따라서 나는 IV장과 V장을 통해 단자의 욕구가 무한히 많은지, 그리고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각각 답하였다. 이제 내가 이 VI장에서 의도하는 바는 IV, V장을 통해 설명한 내용들을 취합하고 반영한 “욕구의 역학”의 최종적인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는 우선 욕구의 역학의 중심 논제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물론 각각의 논제가 어떠한 정당화 과정을 통해 제시된 것인지 자세히 알고자 하는 독자들은 III, IV, V장의 관련 논의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욕구의 역학을 통해 다양한 심리현상들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베일의 개 문제 역시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욕구의 역학 모델에 제기될 수 있는 철학적, 그리고 철학사적 반론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답함으로써 나의 해석을 정당화할 것이다.

### 1. 논제 정립

1절에서 나는 욕구의 역학의 중심 논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사실 내 해석의 중심 논제들은 이미 III, IV, V장을 통해 모두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각 장에서는 관련된 주변 문제들도 함께 다뤘기 때문에, 라이프니츠의 욕구 개념 해석이라는 본 논문의 중심 주제에 입각하여 논제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내 해석 모델의 중심 논제들은 다음과 같다:

- DA1 : 모든 단자는 무한히 많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욕구들은 미세 욕구, 감각적 욕구, 의지적 욕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 DA2 : 개체를 구성하는 지배 단자는 “개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파생적 욕구들”과 “개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파생적 욕구들”을 갖는다.
- DA3 : “개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파생적 욕구들”은 또한 자각할 수 있는 “의식적 욕구”들과 자각할 수 없는 “무의식적 욕구들”로 나뉠 수 있다.
- DA4 : “개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파생적 욕구들” 역시 다른 각각의 개체들이 갖는다고 여겨지는 파생적 욕구들로 나뉠 수 있다.
- DA5 : 그러나 이러한 무한히 많은 파생적 욕구들은 하나의 원초적 욕구의 변용이며, 따라서 존재론적으로 원초적 욕구에 의존해 있다. 즉, 단자의 욕구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수이다.
- DA6 : 단자의 원초적 욕구는 반드시 다음 사태를 야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파생적 욕구들의 총합은 서로 간의 충돌을 통해 역학적으로 다음 사태를 반드시 야기한다. 그러나 개별 파생적 욕구들은 당연히 그것이 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야기하지는 못한다.

나의 해석은 위에서 제시된 여섯 개의 중심 논제들로 압축될 수 있다. 이제 각각의 논제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DA1은 단순실체인 단자들이 무한히 많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때 이 욕구들이 다양한 등급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IV장 1절에서 우리는 우선 단자의 욕구가 무한하다는 것을 보였다. 지각의 무한성과 달리 욕구의 무한성은 학자들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라이프니츠 자신이 욕구의 무한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한 구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각과 욕구가 평행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페마이스터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고려해볼 때, 라이프니츠에게 단자

의 욕구가 무한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욕구는 단지 무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등급의 종류로 나뉠 수 있다. 지각이 미세 지각, 감각 지각, 통각 등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는 IV장 3절에서 이러한 지각에 대한 설명이 욕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욕구 역시 다양한 등급의 종류로 나뉠 수 있으며, 각 등급에 속하는 욕구들은 그보다 하위 등급에 속하는 욕구들로부터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그런데 당연히 모든 단자들이 감각 욕구나 의지적 욕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동물이나 인간과 같은 상위 등급의 개체를 이루는 단자들 중 지배 단자만이 이러한 욕구들을 가질 수 있다. DA2는 이러한 개체의 지배 단자의 욕구가 “개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파생적 욕구들”과 “개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파생적 욕구들”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나의 지배 단자는 나의 내부의 욕구들뿐만 아니라 내 옆에 앉아 있는 영희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각각의 단자가 세계의 모든 모습을 반영한다는 보편 반영 논제를 욕구에도 적용함으로써 통해서 확보된다. 각각의 단자의 지각이 세계의 모습을 모두 반영하는 것처럼, 각 단자의 욕구 역시 세계의 모든 욕구들을 반영한다. 나는 IV장 3절 말미에서 꿈의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했으며, 이어지는 V장을 통해 이러한 해석을 정당화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DA2를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들은 자발성과 수의성의 구분에 관한 논의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란다.

라이프니츠가 프로이트 이전에 이미 무의식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으며, 나 역시 IV장 2,3절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한 바 있다. DA3이 말하는 바는 “개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파생적 욕구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의식적 욕구에, 또 어떤 것들은 무의식적 욕구에 속한다는 것이다. 나의 지배 단자는 깡뽕기를 먹고 싶다는 의식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개체로서의 내가 자각할 수 없는 수많은 무의식적 욕구들, 예를 들면 나의 간이나 췌장들

이 갖고 있는 자각할 수 없는 욕구들 역시 가지고 있다.<sup>87)</sup> 또한 나의 지배 단자가 가지고 있는 “개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파생적 욕구들”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파생이 가능하다. 가령 나의 지배 단자는 “영희가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파생적 욕구들,” “철수가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파생적 욕구들,” 영희의 애완견 “바둑이가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파생적 욕구들” 등등으로 나뉠 수 있다. 이것이 DA4가 주장하는 바이며, 이 역시 IV장 3절, V장 2,3절을 통해 정당화된다.

그런데 개별 단자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파생적 욕구들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DA5는 이 모든 파생적 욕구들, 즉 파생적 힘들이 단자 그 자체와 동일시될 수 있는 단자의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각각의 파생적 욕구들은, 각각의 모양이 모두 외연 그 자체의 변용이듯이, 원초적 힘에 변용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단자의 욕구는 사실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원초적 욕구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 하나의 근원적 욕구가 세계의 모든 모습을 반영하고, 이 세계를 단자 내부에 구성함으로써 여러 가지 파생적 욕구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단자의 욕구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수이다. 나는 능동적 파생적 힘뿐만 아니라 수동적 파생적 힘 역시 고려함으로써 단자 내부에 세계가 완전히 구성된다는 해석을 V장 전체를 통해 강조했으며, 이러한 해석이 궁극적으로 DA5뿐만 아니라 DA2,DA3,DA4에 대한 정당화 근거 역시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DA6을 살펴보자. DA6은 내가 III장에서 제시한 욕구의 역학의 요지를 담고 있다. 즉, 각각의 파생적 욕구들이 충돌하여 역학적으로 다음 사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나는 III장에서 카스 라이트의 예를 들었다. 만약 나에게 맛있는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와 살을 빼고 싶은 욕구가 동시에 있다면, 나는 이 욕구들을 모두 고려하여 카스 라이트를 마실 것이다. 이 경우, 맛있는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나 살을 빼

---

87) IV장 3절에서 말했듯이, 사실은 개체 외부의 것으로 간주되는 욕구들 역시 무의식적 욕구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강조한 것처럼, 나는 본 논문에서 ‘무의식적 욕구’로 오직 ‘개체 외부의 것으로 간주되는 무의식적 욕구’만을 의미하고 있다.

고 싶은 욕구와 같은 “파생적” 욕구들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완전히 얻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파생적 욕구들은 사실 하나의 원초적 욕구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즉, 원초적 욕구로부터 말 그대로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파생된 것들 전체의 총합은 파생한 것, 즉 원초적 욕구의 값과 완전히 같다. 카스 라이트 사례에서 내가 오직 이 두 파생적 욕구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sup>88)</sup> 이 두 욕구의 총합은 나의 원초적 욕구와 동일하다. 즉, 이 사례에서 나의 원초적 욕구는 카스 라이트를 마시는 것을 욕구했다. 따라서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을 수도 있는 파생적 욕구들의 존재론적 근거인 원초적 욕구는 원하는 바, 즉 다음 상태를 반드시 성취한다. III, IV, V 장에서 내가 주장한 모든 것들은 무엇보다도 이 DA6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2. 욕구의 역학을 통한 심리현상 설명

이제 이러한 욕구의 역학 모델을 통하여 인간의 다양한 심리현상들을 설명해보자. 욕구의 역학이 설명할 수 있는 심리현상은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salient)** 그리고 **유관한** 욕구들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즉 (1) 의사결정 (2) 무의식적 행위 (3) 충동적 행위 (4) 외부 욕구와의 충돌로 분류될 수 있다. 각 사례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두드러지는 그리고 유관한 욕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나는 “두드러지는”이라는 표현을 “각각의 현재 사태에서 다음 사태를 야기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과적 역할을 할 정도로 큰 값을 갖는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원초적 욕구로부터 무한한 파생적 욕구들이 파생된다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다. 그러나 다음 사태를 야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욕구들이 고려될 필요는 없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미세 욕구들을 통해서 상위 차원의 욕구들이 결과 되는데, 이 때 우리는 이 결

---

88) 이 가정은 사실 (라이프니츠에게)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떠한 파생적 욕구들도 그보다 낮은 차원의 무한한 파생적 욕구들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두드러지는(salient) 파생적 욕구가 오직 둘 뿐일 경우”라고 해야 한다. “두드러짐”에 대해서는 곧 설명할 것이다.

과된 상위 차원의 욕구들 중 그 값이 충분히 큰 것들만을 고려함으로써 어떤 다음 사태가 유발될지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심리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 사태와 유관하지 않은 욕구들은 고려될 필요가 없다. 라이프니츠는 보편 반영 논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단자는 세계의 모든 욕구들을 (나의 관점에서) 욕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단지 “나”라는 개체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의 욕구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욕구들, 즉 특정 심리현상을 해명하는데 설명적으로 유관한 국지적인 욕구들만을 고려하면 된다.

물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어떤 욕구들이 유관하고, 어떤 욕구들이 충분히 큰 값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결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복잡한 심리 현상에 대한 예측이나 설명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신을 “움직였을지도 모를 근거들을 상세하게 아는 것은, 특히 유한한 정신이 신의 시야를 향유하지 못하는 한, 유한한 정신의 능력을 넘어”(DM, AG 38/논고 40)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하며, 그랬을 때에만 근사적인 예측이나 설명이라고 가능해진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각 사례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 1) 의식적 욕구들 간의 상호작용 : 의사결정

욕구의 역학 모델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은 두드러지는 유관한 욕구들이 모두 의식적 욕구일 때, 이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다음 사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또한 모든 심리현상들 중 가장 쉽게 설명될 수 있고, 또한 가장 쉽게 예측될 수 있는 성격의 현상이다. 의사결정 사례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 수 있다. 일단 첫째는 나의 의지적 욕구가 완전히 실현되는 경우이다. 가령, 내가 t1에서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t2에서 물을 마셨다면, 이것은 물을 마시고 싶다는 나의 의지적 욕구가 완전히 실현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나의 많은 욕구들 중 관련 사태와 유관하면서 동시에 충분히



큰 값을 가진 욕구는 오직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물을 마시고 싶은 나의 욕구는 나의 신체 기관과 또한 그것들을 구성하는 무한한 단자들의 미세 욕구로부터 결과한 것이지만, 이때 나라는 개체 차원에서 두드러지는 욕구는 오직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는 복수의 의식적 욕구들이 충돌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카스 라이트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살펴본 바 있다. 한 시점에 나에게 맛있는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와 체중을 조절하고 싶은 욕구라는 두 개의 두드러지는 의식적 욕구가 있다면, 나는 다음 시점에서 카스 라이트를 마실 것이다. 이때 초점을 맛있는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나 체중을 조절하고 싶은 욕구와 같은 개별 파생적 욕구에 맞출 경우, 우리는 이 욕구들이 자신이 목적하고자 했던 바를 완전히 충실하게 이루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것들의 부분들은 성취를 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셋째는 의식적 욕구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한 욕구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다. 만약 나에게  $t_1$ 에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 살을 빼고 싶은 욕구, 내일 오전에 있을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욕구, 내일 모레 제출해야하는 석사 논문을 잘 쓰고 싶은 욕구,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를 가고 싶은 욕구가 두드러지면서 유관한 욕구의 전부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나는 이 모든 욕구들을 고려하여 다음 시점에서 결코 맥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때  $t_1$ 에서 내가 가졌던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는 인과적으로 완전히 무력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내가  $t_1$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모금의 맥주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t_1$ 에서 맥주를 마시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2) 무의식적 욕구들의 상호작용 : 무의식적 현상들

다음으로 무의식적 현상들에 대해 살펴보자. 라이프니츠가 무의식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욕구의 역학이 적절한 라이프니츠적 욕구 이론이라면 무의식적 현상들 역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욕구의 역학에서 무의식적 행위들은 두드러지고 유관한 욕구들이 모두 무의식적 욕구들일 때,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무의식을 설명할 때에는 “유관하다”는 개념이 좀 더 중요해진다. 가령, 내가 눈을 깜빡이는 것은 나의 합목적적인 기관인 눈과 그 주변,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는 부분들의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욕구들을 통해서 설명될 것이다. 이때 내가 간풍기를 먹고 싶다는 의식적 욕구는 눈의 깜빡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무관하다. 설령 내가 간풍기를 먹고 싶을 때, 그리고 오직 그 때에만 눈을 깜빡인다고 하더라도 간풍기를 먹고 싶은 욕구는 여전히 설명적으로 무관하다.<sup>89)</sup> 즉, 무의식적 현상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나”라는 개체의 전체의 욕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현상들로는 무엇보다도 내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내 신체 기관들의 욕구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눈이 깜빡일 때 나의 눈의 욕구, 혹은 간, 췌장, 심장 등 나를 구성하는 합목적적인 기관들은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다 각자의 차원에서 욕구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식 하에 반드시 들어올 필요는 없다. 가령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하듯 내가  $t_1$ 부터  $t_{10}$ 까지 꿈이 없는 잠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신체 기관들은 끊임없는 욕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물체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에도,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자극하기 때문이다.”(NE 116)

### 3)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 욕구들의 상호작용 : 심리학적 설명, 그리고 충동적 행위

당연히 의식적 욕구나 무의식적 욕구가 같은 종류의 욕구와만 상호작용할 필요는 없다. 의식적 욕구들과 무의식적 욕구들이 함께 인과적 상

89) 물론 이 정도의 규칙성이 성립한다면 과연 정말 무관한지 의심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간풍기 욕구가 눈의 깜빡임과 무관하다는 상식적인 견해를 따르도록 하자.

호작용 하에 놓여있을 수 있다. 즉, 이 경우는 의식적 욕구들과 무의식적 욕구들이 동시에 두드러지면서 설명적으로 유관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식적&무의식적 욕구들이 인과 작용을 하는 경우와 앞에서 살펴본 무의식적 욕구들이 인과 작용하는 경우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IV장에서 살펴봤듯이, 어떠한 의식적 욕구도 그보다 낮은 차원의 무의식적 욕구들로부터 결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의식이 개입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어떠한 현상에도 무의식적 욕구들은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무의식적 욕구들이 의식적 욕구들로 취합되어 결과 됨으로써 두드러지는 것인지, 아니면 의식적 욕구로 취합되지 않고 무의식적 욕구로 남아 있음에도 두드러지는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양자를 뚜렷하게 구분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욕구들을 상정함으로써 “데카르트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인지심리학적 설명의 형태”<sup>90)</sup>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즉, 라이프니츠는 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주의 환경을 통한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습관화[habituation](NE 53-4), 과거 자극에 대한 의도적 주목(NE 54), 한 물체로부터 다른 물체로의 의도적이지 않은 주의 전환(NE 115), 깨어남((NE 115), 숙고되지 않은 행위((NE 115-6, 188) 등을 설명해낼 수 있다. 시몬스는 라이프니츠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론을 통해 맹시[blindsight]<sup>91)</sup>, 점화효과[priming effect]<sup>92)</sup>, 자동화된 행동, 각테일 효과<sup>93)</sup> 등 역시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sup>94)</sup>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이러한 심리적 현상들은 오직 무의식적 욕구들을 상정함으로써만 설명될 수 있으며, 그리고 (적어도 내가 이해하는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이러한 의식적&무의식적 욕

---

90) Simmons(2001, 28)

91) 시각 자극 처리에 대한 의식적 경험은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자극을 처리하는 현상.

92) 시간적으로 먼저 제시된 단어가 나중에 제시된 단어의 처리에 영향을 주는 현상.

93)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해도 관심 갖는 이야기만 골라 듣는 현상.

94) Simmons(2001, 28-9)

구들 간의 작용(결과 작용과 인과 작용)을 통해서만 비로소 제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라이프니츠의 욕구 이론, 혹은 욕구의 역학을 통해서 이러한 심리 현상들을 충분히 다 해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라이프니츠의 욕구의 역학은 단지 일반적인 설명적 도식을 제공하고, 또한 존재론적인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별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정초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내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욕구의 역학을 통해 충동적 행위를 의식적&무의식적 욕구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까 들었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시점  $t_1$ 에 나에게 살을 빼고 싶은 욕구, 내일 오전에 있을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욕구, 내일 모레 제출해야 하는 석사 논문을 잘 쓰고 싶은 욕구,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를 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t_1$ 에서 이 욕구들이 나의 두드러지면서 관련한 의식적 욕구의 전체집합을 이룬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나는  $t_1$ 에서 이 욕구들이 종합하여 결과한 어떤 특정한 의지적 욕구  $x$ 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지적 욕구의 내용이 무엇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x$ 가 맥주를 마시는 것을 욕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나는  $t_2$ 에서 수십 병의 맥주를 마시는 점이 발생했다. 왜 그런가?  $t_1$ 에서 사실 “나”라는 개체의 것으로 간주되는 욕구 중 두드러지면서 관련한 무의식적 욕구, 즉 맥주를 마시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가 있었는데, 이 욕구의 값이 나의 의지적 욕구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만큼 컸던 것이다. 따라서  $t_1$ 에서 나의 모든 두드러지면서 관련한 욕구들의 총합은  $t_2$ 에서 내가 맥주를 마시는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다. 즉, 욕구의 역학에서 충동적 행위는 “특정 시점에서, 두드러지면서 관련한 무의식적 욕구의 총합의 값이, 그 시점에서 두드러지면서 관련한 의식적 욕구의 총합의 값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클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육체와 정신의 충돌이 “혼동된 사고들과 뚜렷한 사고들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경향성들의 충돌에 다름아니”(NE 193)라는 라이프니츠의 언급과 완전히 부합한다.

#### 4) 외부 욕구들과의 상호작용 : 베일의 개 사례

일반적인 욕구 이론이라면 이전 단락에서 논의를 마쳤어야 하겠지만, 라이프니츠의 욕구 이론에서는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V장에서 살펴봤듯이 모든 단자는 세계의 모든 모습을 보편 반영하여 자신의 내부에 세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단자는 세계의 모든 욕구들을 자신 안에서 욕구하고 있다. 즉, 나의 지배 단자는 단지 “나”의 욕구만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의 “영희”의 욕구도 욕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배 단자 안에서 “나”의 욕구들과 “영희”의 욕구들이 인과 작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개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파생적 욕구들”과 “개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파생적 욕구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베일의 개 사례에 대한 좀 더 나은 해명을 제공할 수 있다.

베일의 개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이 사례에서 베일의 개는  $t_1$  시점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을 욕구했지만  $t_2$  시점에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다. 그렇다면 개가 두들겨 맞는 것을 욕구했단 말인가? 만약 이 질문이 그 개의 지배단자가  $t_1$ 에서 두들겨 맞는 것을 욕구했냐는 질문이라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개의 지배단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완전히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 안에는 그 개 자신(혹은 그것의 표상) 뿐만 아니라 개 주인(혹은 그것의 표상)도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t_1$  시점에서 개의 표상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욕구한다. 그리고 동시에  $t_1$ 에서 개 주인의 표상은 이 개의 버릇을 고쳐주고 싶다는 것을 욕구한다. 그리고  $t_2$  시점에서 이 두 욕구가 충돌한 결과로 개가 얻어맞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개의 지배단자가 구성한 개 자신의 욕구와 개 주인의 욕구가 모두 존재론적으로 개의 지배단자의 원초적 힘에 의존하므로, 개의 지배단자는  $t_1$ 에서 개가 두들겨 맞는 것을 욕구한 것이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지배단자 안에 있는 개의 표상은 두들겨 맞는 것

을 욕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가 맞는 것을 욕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IV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개의 지배단자는 자신이 구성한 개의 표상을 자기 자신으로 느낄 수 없다. 따라서 개의 지배단자는 개의 표상의 욕구를 특별히 자신의 욕구로 느낄 수 없다. 따라서 개의 지배단자는 t1에서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두들겨 맞고 싶은 욕구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개의 지배단자는 개체로서의 자신의 욕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세계 전체의 욕구를 특정한 관점에서 욕구할 뿐이다.

그러나 IV장에서 살펴봤듯이 동물이 통각이나 의식을 갖는지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입장을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만약 라이프니츠가 동물도 자의식을 갖는다고 생각했다면, 위의 설명은 약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베일의 개를 철수와 영희의 예로 바꿔서 설명해보도록 하자. 철수는 t1 시점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을 욕구했지만 t2 시점에서 영희에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다. 그렇다면 철수가 두들겨 맞는 것을 욕구했던 말인가? 만약 이 질문이 철수의 지배단자가 t1에서 두들겨 맞는 것을 욕구했느냐는 질문이라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철수의 지배단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완전히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 안에는 그 철수 자신(혹은 그것의 표상) 뿐만 아니라 영희(혹은 그것의 표상)도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t1 시점에서 철수의 표상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욕구한다. 그리고 동시에 t1에서 영희의 표상은 철수의 버릇을 고쳐주고 싶다는 것을 욕구한다. 그리고 t2 시점에서 이 두 욕구가 충돌한 결과로 철수가 얻어맞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철수의 지배단자가 구성한 철수 자신의 욕구와 영희의 욕구가 모두 존재론적으로 철수의 지배단자의 원초적 힘에 의존하므로, 철수의 지배단자는 t1에서 개가 두들겨 맞는 것을 욕구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질문이 개체로서의 철수가 t1에서 두들겨 맞는 것을 욕구했냐는 질문이라면 대답은 “아니오”이다. 철수의 지배단자가 그 자신이라고 여기는, 즉 자의식을 갖는 대상인 철수의 표상, 즉 개체로서의 “철수”는 t1에서 결코 두들겨 맞는 것을 욕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철수의 지배단자에게 “철수”의 버릇을 고쳐주고자 하는 욕구는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파생적 욕구이기는 하지만, 개체 외부의 것으로 간주되는 외부 욕구, 즉 “영희”의 욕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철수가 두들겨 맞는 것을 욕구했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 질문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는 이러한 설명이 II장 2절에서 살펴본 이 문제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답변을 가장 잘 해명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라이프니츠의 답변을 다시 살펴보자.

만약 자발성[spontaneity]과 수의성[voluntariness]이 같은 것이라면, 분명히 양립불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수의적인 모든 것은 자발적이지만, 반면에 선택되지 않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의적이지 않은 자발적 행위들이 존재한다. 영혼은, 그것이 가진 느낌들이 그것이 가져왔던 느낌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언제나 좋은 느낌들을 제공할 수는 없다.(July 1698, WF 81)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자발성과 수의성을 구분하고 있다. 라이프니츠가 이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개가 두들겨 맞는 사태는 개에게 수의적이지 않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는 개에게 여전히 자발적이다. 그렇다면 수의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그에 따르면, 수의적인 모든 것은 자발적이지만, 자발적인 모든 것이 수의적이지는 않다. 수의성은 자발적일 뿐만 아니라 선택이라는 요소가 첨가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수의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개체 x에게 행위 A가 수의적이다 iff

- i) 개체 x에게 행위 A가 자발적이다
- ii) 행위 A는 개체 x가 선택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발성과 수의성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위의 예에 적용시켜보자. 이 예에서 철수의 지배단자가 가지고 있는 철수의 표상의 욕구와 영희의 표상의 욕구는 모두 철수의 지배단자에게 자발적인 것이다. 이 둘 모두 철수의 지배단자의 파생적 욕구로서, 그 내부적 힘으로부터 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예에서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철수의 표상의 욕구는 자발적일 뿐만 아니라 수의적이다. 이 욕구는 철수의 지배 단자의 지배단자를 가지고 있는 대상, 즉 “철수”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sup>95)</sup> 반면에 “영희”의 욕구는 철수의 지배단자에게는 외부 욕구에 해당하며, 외부 욕구는 결코 의식적인 작용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직관을 따른다면, 외부 욕구는 결코 결코 선택될 수 없다. 따라서 “영희”의 욕구는 철수의 지배단자에게는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수의적이지는 않다.

베일의 개 문제에 대한 욕구의 역학의 설명이 여전히 반직관적이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특히, 이중 가닥 해석을 통한 베일의 개 문제의 해명이 좀 더 직관적이고 그럴듯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욕구의 역학을 통한 설명이 가장 라이프니츠의 의도를 잘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베일의 문제제기에 대해 단지 자발성과 수의성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욕구의 역학이 라이프니츠가 염두에 두고 있던 옳은 그림이라면, 그의 자발성/수의성 구분 답변은 어느 정도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다. 즉, 이 문제에 대한 욕구의 역학의 설명이 가장 직관

---

95) 욕구가 수의적인지 불수의적인지에 관해서는 여기서 깊게 논의하지 않겠다. 본 논문에서는 의지적 욕구는 그것의 의식적 성격 때문에 수의적일 수 있음을 가정하도록 한다.



적이지는 않더라도, 가장 라이프니츠적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 3. 가능한 반론과 그에 대한 답변

지금까지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욕구 개념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제시한 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해석적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욕구의 역학을 통해 라이프니츠가 염두에 둔 다양한 심리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번에는 이러한 새로운 해석에 제기될 수 있는 반론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답해보도록 하겠다.

#### 1) 목적인 결여 반론

*Q : 라이프니츠 철학에서 목적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욕구의 역학에서는 목적인의 자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만약 욕구의 역학이 목적인에 적절한 자리를 찾아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라이프니츠 철학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지 않은가?*

욕구의 역학에서 각각의 욕구들은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음 사태를 유발시킨다. 그렇다면 이러한 욕구들은 작용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반론은 만약 그렇다면, 욕구의 역학에서는 목적인의 자리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욕구의 역학은 라이프니츠를 오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타당하지 않다. 이 반론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작용인의 역할을 하는 어떤 것도 목적인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욕구의 역학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이 이유가 없다. 욕구의 역학에서 상정하는 욕구들은 작용인의 역할과 목적인의 역할을 모두 만족시킨다.

어떤 활동의 목적인이란 보통 그 활동의 목표, 혹은 목적을 뜻한다. 가령 철수가 형광등의 스위치를 누르는 활동의 목적인은 방의 밝음이라

는 사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철수의 행동의 목적인이 방의 밝음이라는 미래 사태인가, 아니면 그러한 사태에 대한 철수의 심적 상태인가? 아래의 인용문은 라이프니츠가 목적인으로 후자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능동적 실체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결정될 때조차도 그것이 대상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결정에 기여하는 것은 능동적 실체 안에 있는 대상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결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실체의 자발성은 온전하다. 대상은 작용적이고 물리적인 원인이 아니라 목적적이고 도덕적인 원인으로서 지성적 실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이 같은 종류의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운동은 실체의 능동성과 대립되지 않으며 실체의 행동의 자발성과도 대립되지 않는다. (*Theodicy*, “Observations on King,” 20; GP VI, 421; 변신론 642; 강조는 나의 것)

그렇다면, 라이프니츠에게 어떤 활동의 목적인이란 “그 활동의 목표 혹은 목적이 되는 사태에 대한 활동 주체의 심적 상태”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욕구의 역학에서 상정하는 파생적 욕구들은 이러한 목적인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목적인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가령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는 맥주를 마시는 사태에 대한 심적 상태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또한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욕구는 날씬한 몸매를 갖는 사태에 대한 심적 상태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이 두 욕구가 충돌한 결과로 맥주인 듯 맥주 아닌 카스 라이트를 마시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욕구들은 자신의 목적인 사태에 대한 심적 표상으로서 다음 사태에 대한 목적인적 역할을 한 것이다.

칼린 역시 라이프니츠에게 욕구가 목적인과 작용인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는 해석을 제시한 적 있으며, 나도 이에 적극 동의한다. 칼린에 따르면, 목적인과 작용인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라이프니츠의 구절들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물체의 현재 상태는 작용인의 법칙들을 통해 이전 상태에서부터 발생된다; 영혼의 현재 상태는 목적인의 법칙들을 통해 그것의 이전 상태에서부터 발생된다. 하나는 운동의 계열 하에 있고, 다른 하나는 욕구들의 계열 하에 있다; 하나는 원인으로부터 결과로 움직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으로부터 수단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사실, 영혼 안에 있는 목적에 대한 표상은 같은 영혼 안에 있는 수단의 표상의 작용인이다* [Et revera dici potest, repraesentationem finis in anima causam efficientem esse repraesentationis mediorum in eadem].  
(Notes on Stahl from 1702, Dut, II, 2, 134; 강조는 칼린의 것)

그녀는 이 구절에서 “라이프니츠가 목적의 표상—목적인—이 수단들의 지각을 *작용적으로 야기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sup>96)</sup>고 말한다. 즉, 작용인이 동시에 목적인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라이프니츠가 “작용인”으로 오직 외부 세계들에서 벌어지는 인과 작용들만을 의미한다면, 단자의 욕구는 작용인이 될 수 없다. 단자의 욕구는 어디까지나 단자 내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인용문은 라이프니츠가 “작용인”으로 단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인과 작용들 역시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그렇다면, 단자의 욕구가 목적인과 작용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물론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에 고유한 목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이중가닥 해석에 비하면 나의 해석에서 목적인이 갖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라이프니츠의 목적인 자체에 대한 해석적 입장 차이가 크게 반영된 것이며, 나는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해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욕구의 역학이 표준적 해석, 혹은 아담스의 해석보다는 목적인의 역할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살펴본 바 있는 다음의 구절을 다시 고려해보자.

---

96) Carlin(2006, 226)

“욕구” 그리고 “목적과 수단”이라는 언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른다. 이것은 갈구된 미래 사태의 추구를 제안하지만, 라이프니츠적 실체적 형상의 행위는 때때로 “원칙에 의한 행동”이라고 불리는 것에 더 가깝다. 라이프니츠의 관점에서 “한 지각에서 다른 지각으로의 전환”을 일으키는 “내적 원칙”은 이후 사태 그 자체의 갈구할만함에 기초를 둔다기 보다는, 어떤 자연의 법칙들을 따르는 것에 기초를 둔다. 만약 영혼 혹은 형상적 실체가 일반적으로 “좋은”을 위해서 작용한다면, 라이프니츠의 체계에서 그 좋은이란 자연의 법칙들에 따름으로써 유지되는 세계의 조화이어야만 한다.<sup>97)</sup>

여기서 아담스는 라이프니츠의 ‘욕구’란 일종의 기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사태 그 자체에 갈구할만함에 기초를 두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라이프니츠의 욕구를 목적지향적인 어떤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해석은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사실상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나의 파생적 욕구들은 그 자체가 목적하는 바를 나아가고 있으며, 그 각각이 나아가는 도중에 충돌하여 다음 사태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욕구의 역학에서는 각각의 파생적 욕구들이 다 목적지향적이며, 또한 사실상 그래야만 한다. 만약 그렇다면, 나의 해석은 적어도 아담스의 해석보다는 욕구의 목적인적 성격을 훨씬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이 반론이 나의 해석에 대한 결정적인 반론이 된다고 볼 필요는 없는 듯하다.

## 2) 지배단자와의 친밀성 반론

*Q : 욕구의 역학에 따르면 철수의 지배단자는 “철수”의 욕구뿐만 아니라 “영희”의 욕구도 욕구한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의 욕구를 욕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단자들은 모두 갖은 것을 욕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러한 사실이 라이프*

---

97) Adams (1994, 318)

니츠의 보편 반영 논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해석은 보편 반영 논제를 너무 강하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단자들 간의 구분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철수의 지배단자가 어떠한 의미에서 철수의 지배단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반론은 욕구의 역학이 보편 반영 논제를 너무 강하게 해석함으로써, 지배단자와 개체간의 친밀성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만물의 욕구가 모두 철수의 지배단자의 욕구이고, 개체 “철수”의 욕구는 단지 이러한 욕구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면, 철수의 지배단자와 영희의 지배단자 간의 어떠한 차이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다.

그러나 욕구의 역학은 철수의 지배단자의 욕구와 영희의 지배단자의 욕구 간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 앞의 예를 다시 생각해보자. 철수는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영희는 철수의 버릇을 고쳐주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때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를 A라고 하고 철수의 버릇을 고쳐주고 싶은 욕구를 B라고 해보자. 욕구의 역학에 따르면, 철수의 지배단자는 A와 B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희의 지배단자도 A와 B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A와 B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철수의 지배단자와 영희의 지배단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A와 B를 각기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철수의 지배단자는 A를 의식적 욕구로서 갖고 있다. 그러나 B는 의식적 욕구로 가지고 있지 않다. B는 외부 욕구로서 가지고 있다. 반면에 영희의 지배단자는 A를 의식적 욕구가 아니라 외부 욕구로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B를 의식적 욕구로 가지고 있다. 의식적 욕구와 외부 욕구가 그 성격상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우리는 의식적 욕구에 대해서는 뚜렷하고 상당한 정도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 욕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이렇게 뚜렷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영희의 지배단자는 B를, 그리고 철수의 지배단자는 A를 뚜렷하고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따라 나오며, 이러한 점에서 이

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라이프니츠 자신의 용어로 다시 설명할 수도 있다. 철수의 지배단자에게 A는 수의적인 반면 B는 단지 자발적이다. 이와 반대로 영희의 지배단자에게 B는 수의적인 반면 A는 단지 자발적이다. 즉, 철수의 지배단자에게 B는 사실 그냥 나타나는 것인 반면, A는 자신이 수의적으로 선택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A는 개체 “철수”가 갖는 욕구이고 B는 개체 “영희”가 갖는 욕구라는 것을 상기해보자. 이에 따르면, 철수의 지배단자는 “철수”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 “영희”에게는 사실상 그럴 수 없다. 영희의 지배단자에게는 정확히 그 역이 성립한다는 것은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즉, 욕구의 역학 설명에서 지배단자와 개체의 관계는 수의성, 혹은 자의식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다. 어떤 것의 지배단자는 오직 그 어떤 것에만 수의적일 수 있다. 혹은 오직 그 어떤 것에만 자의식을 가질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욕구의 역학이 지배단자와 개체의 친밀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반론은 적절하지 않다.

### 3) 과다결정[over-determination] 반론

*Q : 파생적 욕구가 원초적 욕구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면 다음과 같은 철학적 문제가 발생한다. 즉, 파생적 욕구가 원초적 욕구와 별개의 인과력을 갖는다고 말할 경우에는 과다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파생적 욕구가 원초적 욕구에 의존적으로만 인과력을 갖는다고 말할 경우, 파생적 욕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과력을 갖는 것은 아니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욕구의 역학은 어떠한 쪽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반론은 일종의 딜레마 논증이다. 전자를 택할 경우 나는 과다결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PSR 때문에 과다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반면 후자를 택할 경우 나는 파생적

욕구들이 진정한 인과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나의 해석은 파생적 욕구가 직접적인 인과력을 갖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이중 가닥 해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진다. 특히, 만약 이중 가닥 해석이 복수의 파생적 욕구를 상정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욕구의 역학과 이중 가닥 해석의 차이는 정말로 열린다. 만약 그렇다면, 욕구의 역학은 이중 가닥 해석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에 불과하다. 만약 그렇다면, 욕구의 역학은 어떠한 선택지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두 번째 선택지로 나아가야 한다. 내가 본 논문을 통해 거듭 강조했듯이, 파생적 욕구는 원초적 욕구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 것이다. 따라서 파생적 욕구의 인과력 역시 원초적 욕구의 인과력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두 번째 선택지를 택한다고 해서 이중 가닥 해석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는 없다. 우선, 이중 가닥 해석은 원초적 욕구와 파생적 욕구를 존재론적으로 별개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중 가닥 해석에서 파생적 욕구가 직접적 인과력을 결여하는 것은 그것이 원초적 욕구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욕구의 역학은 파생적 욕구와 원초적 욕구의 관계를 존재론적 의존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이중 가닥 해석과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한다고 해서 파생적 욕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과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라이프니츠 철학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의존적인 것은 정말로 실재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단정적인 대답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라이프니츠가 실재성의 정도[degree of reality]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I 장에서 단자들로부터 구성된 일상적인 물체들이 단자들이 실재적인 정도로 실재적일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봤다. 그러나 아담스는 이러한 일상적인 물체들이 물론 단자들만큼 실재적이지는 않지만, “실재적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구성된 것보다는 더 실재성을 갖는다”<sup>98)</sup>고 말한다. 이 물체들은 실재하는 단자들로부터 구성되었기 때

문이다. 즉, 일상적인 물체들은 단자들보다는 덜 실재적이지만 실재적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구성된 것, 예컨대 상상의 동물들의 집합보다는 더 실재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제를 구성할 수 있다.

(DR) 어떤 것의 실재성의 정도는 그것의 존재론적 근본성의 정도와 비례한다.

이 (DR)에 따르면, 파생적 욕구는 원초적 욕구보다 덜 실재하지만 그렇다고 실재성을 완전히 결여하는 것은 아니다. 파생적 욕구는 그 존재론적 근본성의 정도에 비례하는 실재성을 갖는다. 그리고 파생적 욕구는 상당한 정도의 실재성을 갖는 원초적 욕구로부터 곧바로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상당한 정도의 실재성을 갖는다. 따라서 파생적 욕구의 인과력도 원초적 욕구의 인과력만큼 실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정한 의미의 인과력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즉, “진정한 의미의 인과력”을 통해 의미하는 것이 원초적 욕구와 같은 정도의 인과력을 갖는다는 것이라면, 당연히 파생적 욕구는 진정한 의미의 인과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것이 파생적 욕구가 실질적인 인과력을 완전히 결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파생적 욕구의 인과력은 그 존재론적 지위에 걸맞는 정도로 실재적이다.

실재성의 정도를 상정하는 것이 정말로 받아들일만한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논하는 것은 본 논문의 역량을 넘어선다. 그러나 라이프니츠가 실재성의 정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하며, 따라서 나는 다만 이러한 대답이 라이프니츠 철학에 대한 해석적 작업으로서 충분히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4) 또 다른 대안적 해석 반론

---

98) Adams(1994, 245)



Q : 복수의 욕구들이 충돌하여 다음 사태를 일으킨다는 욕구의 역학의 기본 골자는 상당히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의 원초적 욕구로부터 다수의 파생적 욕구들이 파생되고, 이러한 파생적 욕구들이 **단지 파생적으로만** 충돌한다는 설명은 별로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원래 욕구의 역학이 가지고 있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것 같다. 차라리 복수의 원초적 힘들, 즉 복수의 원초적 욕구들을 상정하고 이 원초적 욕구들이 **진정으로** 충돌하여 다음 사태를 야기시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직관적이지 않은가?

이 반론이 제안하는 것은 욕구의 역학의 기본적인 전제는 그대로 가져가되, 원초적 힘과 파생적 힘 간의 관계를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좀 더 나은 해석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나는 이 논문에서 하나의 원초적 힘으로부터 다수의 파생적 힘들이 존재론적으로 파생되고, 이러한 파생적 힘들이 충돌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물론 이 때 파생적 힘들은 그 존재론적 지위가 원초적 힘보다 낮기 때문에, 파생적 힘들의 충돌도 원초적 힘들이 충돌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의미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파생적 힘들 간의 충돌은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진정한 충돌이 아니라 파생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충돌이다. 물론 나는 과다 결정 반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때 일어나는 파생적인 힘들의 충돌도 충분히 높은 정도의 실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 반론의 의견에 따르면 문제가 좀 더 단순해진다. 충돌하는 항들이 원초적 힘이라면, 이때 일어나는 충돌은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인 항들의 충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에서도 진정한 충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의견에 따르면 파생적 힘은 어떻게 원초적 힘으로부터 파생되는가? 의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설명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복수의 원초적 힘들이 상정되면 이 원초적 힘들로부터 단일한 파생적 힘이 결과, 혹은 구성된다. 마치 지각이나 욕구가 그보다 작은 무수히 많은 지각들이나 욕구들로부터 구성되는 것과 마

찬가지의 방식으로 말이다. 즉, 단일한 원초적 힘으로부터 복수의 파생적 힘들이 결과된다는 나의 의견과 정반대로, 복수의 원초적 힘들로부터 단일한 파생적 힘이 결과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였을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말한 것처럼, 충돌하는 항들이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때 일어나는 충돌이 진정한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과다 결정의 문제가 애당초 발생하지 않으며, 덕분에 “욕구들 간의 충돌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진정한 충돌은 아니지만, 충분히 높은 정도의 실재성을 가진 충돌”이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회피해야 할 필요도 없다.

둘째, 존재론적 순서와 설명적 순서가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나는 “파생적 욕구들이 원초적 욕구에 의존한다”는 것과 “어떠한 욕구도 그보다 작은 무한히 많은 욕구들로부터 의존한다”는 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명제는 얼핏 보기에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서 나는 전자의 의존관계만이 존재론적인 의존관계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오직 설명적인 차원에서만 의존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의지적 욕구나 감각적 욕구가 무한히 많은 미세 욕구로부터 의존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설명적인 차원에서만 참인 진술이며, 이 세 종류의 욕구가 모두 파생적 욕구라는 점에서 존재론적 지위에 진정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나는 이러한 입장이 충분히 정합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설명적 순서와 존재론적 순서를 별개로 상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능한 입장이지만, 라이프니츠는 가능한 한 이 두 순서를 일치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입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나의 해석에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반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복수의 무한한 원초적 힘들을 상정할 경우, 이 두 순서가 별다른 무리없이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의 해석보다 분명한 장점을 지닌다.

셋째, 파생적 힘이 순간적 부분이라는 기존 해석자들의 입장을 유지

할 수 있다. V장에서 나는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의 순간적 부분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박하고, 한 순간적 사태 내에서도 복수의 파생적 힘들이 파생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안했다. 그러나 살펴본 바처럼 기존의 많은 해석자들이 순간적 부분이라는 해석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라이프니츠가 다소 명시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 부분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만약 이 반론의 제안에 따른다면, 이러한 기존의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 반론에 따르면, 한 순간적 부분에서 복수의 원초적 힘들을 바탕으로 결과된 단일한 것이 파생적 힘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반론이 상정하는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의 관계가 기존의 해석자들이 파악하는 관계의 양상과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다. 기존의 해석에서는 원초적 힘은 사태들의 계열과 동일시되고, 그 중에서 한 순간적 부분이 파생적 힘으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반론이 제안하는 해석은 내가 고수하고 있는 해석에 비해서 뚜렷한 여러 장점들을 지닌다. 만약 이 대안적 해석이 좀 더 성공적이라면, 나로서는 이 대안적 해석을 택함으로써 욕구의 역학의 기본적인 직관을 극대화하는 선택지도 매우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 해석과 나의 해석 중 어떤 것이 좀 더 라이프니츠 전체 철학과 정합적일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 보인다. 무엇보다 이 입장을 뒷받침할만한 문헌적 증거들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선불리 판단하기 힘들다. 이 입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단 나는 여기서 이러한 입장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몇 가지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이 반론이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원초적 힘이 자신이 목적하는 바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게 된다. 카스 라이트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이 입장에 따를 경우, 카스를 마시고 싶은 욕구와 살을 빼고 싶은 욕구는 모두 원초적 욕구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 둘로부터 구성되는 카스 라이트를 마시고 싶은 욕구는 파생적 욕구가 된다. 그렇다면 다음 시점에서 카스 라이트를 마시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

문에, 파생적 욕구는 반드시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반면, 이 파생적 욕구를 구성하는 각각의 원초적 욕구들은 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이 입장을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 욕구 등등의 이유로 맥주를 먹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무력해지는 사례에 적용할 경우, 원초적 욕구가 완전히 무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따라 나온다. 만약 그렇다면, 이 입장은 기존의 원초적 힘과 파생적 힘에 대한 이해와 너무나 정반대의 귀결을 낳지 않는가? 물론 이러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줄 라이프니츠의 문헌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함축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 보인다.

둘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라이프니츠는 단자의 원초적 힘을 그 단자의 사태들의 계열들을 모두 모은 것과 동일시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단자 그 자체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예비적 논의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라이프니츠는 단자와 단자 간의 인과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단자 내부의 인과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서로 충돌하고 인과작용을 하는 항들은 오직 단자 내부에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원초적 힘이 단자 그 자체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한 단자 내부에 복수의 원초적 힘들이 있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즉, 원초적 힘이라는 것이 단자 자체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한 단자 내부에는 복수의 원초적 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과 작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개별 단자의 내부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단자들이 있는 것을 상정했을 때는(즉, 단자의 외부에는) 복수의 원초적 힘들이 있을 수 있지만, 라이프니츠에게 인과는 오직 단자 내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수의 원초적 힘들은 인과 작용을 할 수 없다. 즉, 이 입장이 진정한 인과 작용을 확보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어떠한 인과 작용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는 듯하다.

내 생각에 이 두 번째 반론은 치명적인 결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듯하다. 복수의 원초적 힘들이 인과 작용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떠한 부분도 갖지 않는 단순한 것이라는 ‘단자’의 정의와 피조물의 인과 작용은 단자 내부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라이프니츠의 입장과 정합적이기 힘들

다. 물론 이 입장을 개진하고자 하는 자들은 원초적 힘이 단자 그 자체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명제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피함으로써 이 입장을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정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을 듯하다.

## 결 론

지금까지 나는 라이프니츠의 욕구 개념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대안적 해석을 제시하고 이를 옹호하였다. 나는 우선 욕구에 대한 표준적 해석과 그에 대한 이석재의 반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석재의 대안적 해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나의 반론과 가능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표준적 해석에 대한 이석재의 문제제기는 간결하면서도 결정적이다. 표준적 해석은 반직관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으며, 또한 라이프니츠의 문헌과도 합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적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힘들어 보인다. 반면 이중 가닥 해석은 표준적 해석이 갖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으면서도, 라이프니츠의 문헌과도 잘 부합한다. 그러나 나는 이중 가닥 해석에서 전제하는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가 전혀 아무런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그렇다면, 파생적 힘으로서의 욕구는 존재론적으로 잉여적이며, 따라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중 가닥 해석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나의 반론은 완전히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단지 어느 정도의 해석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때문에 나는 또 다른 대안적 해석을 제시하고 이 해석의 상대적 장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나의 해석은 직관적이면서도 표준적 해석의 문제점을 모두 피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문헌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나는 이러한 나의 해석을 옹호하기 위해서, 욕구의 무한성과 종류의 문제, 그리고 파생적 힘과 원초적 힘의 관계 문제들을 각각 살펴보고 이에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모두 고려한 욕구의 역학의 최종적 형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베일의 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식을 제안하였다.

욕구의 역학 해석은 라이프니츠의 욕구에 대한 새로운 견해이고, 또한 여러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해석일 것이다. 특히 내가 새롭게 제안하고 이 논문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몇몇 논제들은 충분

히 정당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의심스럽다. 그러한 점에서 이 글은 많은 약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이러한 의심스러울 수 있는 논제들을 좀 더 안전한 논제들로 치환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몇몇 논제들을 제외한 다른 많은 구성요소들은 많은 부분 기존 학자들의 주요 해석적 입장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욕구의 역학은 그 기본적인 구도에 있어서 표준적 해석의 틀(아담스, 러더포드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욕구를 역학적으로 설명(맥래, 칼린)하려는 시도를 반영하였다. 또한 욕구의 종류와 구조에 대한 기존의 설명 틀(컬스터드, 페마이스터)을 가지고 왔으며, 파생적 힘이 원초적 힘에 존재론적으로 의존(러더포드, 맥더너, 칼린 등)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러한 나의 시도가 “다양한 철학적 부분들의 의견들에 흠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참을 발견하고 통합”(G 3:605/L 654)하는 역할을 아주 조금이나마 성공적으로 수행했기를, 그리고 나의 핵심적인 주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전달되었기를 바랄 뿐이다.

## 참 고 문 헌

- 박삼열, 2002, 「라이프니츠의 현상론 - 실체와 물체 -」, 『철학』 제 70집, 103-131.
- 박제철, 2013,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 Adams, Robert. 1979. "Theories of Actuality" in *The Possible and The Actual* ed by M.J. Loux, Cornell University.
- Adams, Robert. 1994. *Leibniz: Determinist, Theist, Ideali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napolitanos, Dionysios, 1999, *Leibniz: Representation, Continuity and The Spatiotemporal*, Kluwer Academic Publishers.
- Belaval, Y 1975, *Leibniz: Initiation a sa Philosophie*,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 Bennett, Jonathan, 2005, "Leibniz's Two Realms," in *Leibniz: Nature and Freedom* ed by Rutherford, Donald and Cover, J.A. , Oxford University Press.
- Carlin, Laurence, 2004, "Leibniz on Conatus, Causation, and Freedom,"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85: 365 - 379.
- Carlin, Laurence, 2006, "Leibniz on Final Causes" in *JHP* vol 44. No.2, 217-233.
- Cartwright, Nancy, 1980, "Do the Laws of Physics State the Facts?",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61, 75-84.
- Correia, Fabrice and Schnieder, Benjamin, 2014, *Metaphysical Grounding: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Re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scartes, René, 1993, "Animals are Machines," In *Environmental Ethics: Divergence and Convergence*, eds. S.



- J. Armstrong and R. G. Botzler, McGraw-Hill, 281–285.
- Fine, Kit, 1995, “Ontological Dependence,”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New Series*, Vol. 95, 269–290.
- Freddoso, Alfred, 1994, “God’s General Concurrence with Secondary Causes: Pitfalls and Prospects,” *American Catholic Philosophical Quarterly*, Vol. LXVIII, No. 2.
- Gale, George, 1988, “The Concept of ‘Force’ and Its Role in the Genesis of Leibniz’s Dynamical Viewpoint” in JHP 26, 45–67.
- Garber, Daniel, 2009, *LEIBNIZ: Body, Substance, Monad*, Oxford University Press.
- Hacking, Ian, 1977, “Individual Substance,” *Leibniz: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Harry G,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Kim, Jaegwon, 1974, “Noncausal Connetions,” *NOÛS* 8.
- Kulstad, Mark, 1991, *Leibniz on Apperception, Consciousness, and Reflection*, philosophia.
- Kulstad, Mark and Carlin, Laurence, 2013, “Leibniz’s philosophy of mind,”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Lawrenz Jürgen, 2010, *Leibniz: The Nature of Reality & The Reality of Natur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Lee, Sukjae, 2004, “Leibniz on Divine Concurrence,”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113, No. 2, 203–248.
- Lee, Sukjae, 2014, “Toward a New Reading of Leibnizian Appetites: Appetites as Uneasiness”, *Res Philosophica*, Vol. 91, No. 1, 123–150.
- Lewis, David, 1986, *On the Plurality of Worlds*, Blackwell Publishing.

- Mates, Benson, 1986, *The Philosophy of Leibniz: Metaphysics and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McDonough, Jeffrey, 2007, "Leibniz: Creation and Conservation and Concurrence," *The Leibniz Review* Vol 17, 31–60.
- McDonough, Jeffrey, 2014, "Leibniz's Philosophy of Physics",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McRae, Robert, 1978 *Leibniz: Perception, Apperception, and Thought*,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Mondadori, Fabrizio, 1973, "Reference, Essentialism, and Modality in Leibniz's Metaphysics." *Studia Leibnitiana* 5, 73–101.
- Naërt 1961, *Memoire et conscience de soi selon Leibniz*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 Peramatzis, Michail, 2008, "Aristotle's Notion of Priority in Nature and Substance",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35, 187–247.
- Phemister, Pauline, 2005, *Leibniz and the Natural World*, Springer.
- Rutherford, Donald. 1995a, *Leibniz and the rational order of n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therford, Donald. 1995b, "Metaphysics: The late period",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LEIBNIZ* ed by N. Joll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therford, Donald. 2005, "Leibniz on Spontaneity." In *Leibniz: Nature and Freedom*, edited by Donald Rutherford and J.A. Cover, 156–180, Oxford University Press.
- Simmons, Alison, 2001, "Changing the Cartesian Mind: Leibniz on Sensation, Representation and Consciousness," *The Philosophical Review*, 100, no.1.

Trogon, Kelly, 2013, “An Introduction to Grounding,” in *Varieties of Dependence: Ontological Dependence, Grounding, Supervenience, Response-Dependence (Basic Philosophical Concepts)*, Philosophia Verlag, 97–122.

Abstract

# Dynamics of Appetites

– A New Interpretation of Leibnizian

Appetite –

Kim Jun Young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riticize precedent interpretations of Leibniz's concept of appetite and provide my alternative one. It is unquestionable that Leibniz states that there is nothing but perceptions and appetites, and the perceptions take a representative role in simple substances. But unfortunately, we do not have a good grasp of what appetites are for Leibniz. That is because Leibniz never said as much about appetites as about perceptions. Despite this fundamental obstacle, interpreters somewhat have agreed that in monads, appetites take a role in causing the transition from one perception to the other by striving for the subsequent perception. This is so-called "the standard view." But Sukjae Lee(2014) points out that this view interprets Leibnizian appetites too simply, and consequently causes some problems in Leibniz's mature metaphysics.

Furthermore, he proposes a new interpretation that is not bothered by problems mentioned above. By reminding that Leibniz's appetite is not the concept which can be easily dealt as the standard view regards it to be, his new interpretation brings fresh attention to Leibniz's concept of appetite.

However, I think that his view has its own problems. According to his interpretation, each monad has two distinct kinds of appetites: one is *the appetite as primitive force*, and another is *the appetite as derivative force*. The latter play the role of causing the transition from one perception to the other, and the former play the other role of striving for goodness of its substance. But given that monads already have the appetite as primitive force which causes next state of affairs, why do they need to have another kind of appetite? Isn't the appetite as derivative force ontologically redundant? Lee answers that the appetite as derivative force has indirect causality, and it asks for the existence of its substance to God. But I doubt whether this kind of appetite would have any causal power even indirectly. In this thesis, I will argue that it would not.

And as an alternative view, I will suggest my new interpretation for Leibniz's appetite. The gist of my view is that (1) there are (infinitely) many appetites in a monad, (2) and each appetite strives for its own purpose, (3) but these distinct appetites conflicts with each other, (4) and this conflict causes the next state of affairs. Let us say that I have two different appetites: an appetite for drinking Cass and an appetite for losing weight. These two different appetites conflict with each other, and this collision causes my-drinking-Cass light-fact. I will call this view as "*Dynamics of Appetites*." This alternative view is intuitively plausible, and is supported by many textual evidences. Furthermore, I will substantiate *Dynamics of*

*Appetites* by considering the problem of infinity of appetit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rivative and primitive forces. Lastly, I will answer several kinds of possible objections.

keywords : Leibniz, Appetite, Causation, Ontological  
Dependence, Monadology.

*Student Number* : 2013-20046